

I.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 내용
3. 조사 설계
4. 자료처리 및 분석
5. 응답자 특성

1. 조사의 목적

1) 조사의 필요성

-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의 주요 견인차로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주로서의 ‘여성기업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소규모 중소기업의 높은 유연성이 환경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유리함.
 - OECD는 100인 미만의 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빠른 순고용증가를 보이고, 기술 진보를 확산시켜 경제사회적 후생에 기여하는 면이 크며, 기업가정신을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한 바 있음¹⁾.
 -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는 등 산업구조상의 변화가 여성의 소자본 창업 가능성을 넓힘. 이에 전통적인 산업에서 ‘소외’를 겪었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면서 세계적으로 여성기업의 증가추세가 뚜렷해짐.
 - 여성기업의 증가는 여성인력 고용률을 높이며, 협조적인 노사문화와 건실한 기업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순효과를 가져옴.

- 우리나라 여성사업체는 꾸준히 증가해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사업자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수준임.
 - 우리나라 여성사업체는 1999년 981,720개 업체에서 2003년 1,146,440개 업체까지 꾸준히 증가.
 - 1998년 OECD에서 실시한 7개국 대상 여성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기업중 여성기업의 비율이 미국 38%, 캐나다 33%, 독일 28%, 일본 23% 등으로 나타났음. 한국의 경우 98년 당시 여성기업 비율이 32%로 OECD 국가 평균 25%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²⁾.

<표 1> 여성사업체 증가 추이

(단위 : 개,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전체 사업자	2,927,330개	3,013,417개	3,046,554개	3,131,963개	3,187,916개
여성 사업자	981,720개	1,021,515개	1,066,019개	1,117,664개	1,146,440개
전체 사업자 대비 여성 사업자 비율	33.5%	33.9%	35.0%	35.7%	36.0%

※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 년도.

1) OECD Conference on Women Entrepreneurships in SMSs, 1997

2) 김영옥, 여성기업인의 현황과 리더십, 한국여성개발원, 2003

- 그러나 여성 사업체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정 업종의 비중이 높고, 영세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음·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비율이 높고, 전체 여성사업체 중 5인 이상 사업자는 '03년 현재 7.6%에 불과함(전체사업체는 15.9%).
 - 경영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 자금조달, 영업, 판로개척 및 시설확대 등 사업운영의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여성기업 및 사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여성창업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여성기업의 실태와 경영환경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함.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해 1999년 이후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여성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음.
 - 정기적인 「여성기업실태조사」를 통해 여성기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정부의 여성기업 정책지원 활동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 및 육성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 정책개선에 반영함.

2) 조사의 근거 및 연혁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함. 또 동법 제2항에 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99년에 여성기업 실태 및 차별적 관행에 대한 조사를 처음 실시함.
 - 조사 대상을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여성사업체까지 확대하여 여성기업의 생산, 경영, 재무구조 등을 파악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폭넓게 조사함.

- 2001년, 2003년 조사를 통해 정부 및 각 기관단체에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의 중요한 원시자료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여성사회단체, 학계 등의 여성기업 연구자료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음.

- 2003년 조사부터는 통계법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승인됨(정부승인 제39301호).

2. 주요 조사 내용

1)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여성벤처기업 실태조사’의 두 가지로 구성됨.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여성기업 실태조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사업체를 영위하는 여성기업인
	여성벤처 실태조사	중소기업청의 벤처인증을 받은 여성벤처기업인
모집단 규모	여성기업 실태조사	대표자가 여성인 전국의 1,146,440개 사업체(「2003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통계청, 2004. 5)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한 1,101,521개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함 - 농림업, 어업, 광업 및 제주도 소재 사업체를 제외한 사업체 - 조직형태가 회사이외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비법인단체 등인 사업 체를 제외한 사업체) - 전기가스·수도 업종의 경우 모집단 규모(N=13)가 적어 제외함
	여성벤처 실태조사	중소기업청의 벤처인증을 받고 여성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278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263개 업 체 - 예비벤처기업으로 아직 벤처인증을 받지 못한 사업체 - 농림업, 어업, 광업 및 제주도 소재 사업체를 제외한 사업체
조사대상 기간		조사기준일: 2004년 12월 31일 조사대상기간: 200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조사실시 기간	여성기업 실태조사	2005년 5월 12일 ~ 2005년 6월 15일
	여성벤처 실태조사	2005년 5월 20일 ~ 2005년 6월 10일
조사방법		일대일방문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 응답자 사정에 따라 FAX 조사, E-mail 조사를 병행함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 이외 별책으로 구성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가 있음.

3) 회사이외 법인: 사단, 재단, 학교, 종교법인 등,
비법인단체: 법인자격을 없는 종친회, 후원회, 동창회 등

2) 주요 조사 항목

○ 여성기업 실태조사

구 분	내 용	
창업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동기 - 창업시 소요기간 - 창업 준비시 애로사항 - 기능훈련 습득방법(비제조) - 창업지원기관 이용실태 - 창업자금 조달경로 및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사업 운영시 애로사항 및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요건 -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 - 창업자의 특성
기업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형태 - 업력 - 사업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현황 - 산업재산권 보유현황(제조/건설) - 정보화 현황
재무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 재무현황 - 가장 중요시하는 재무목표 - 2004년도 자금조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대출금상환시 연체현황 - 최근 2년간 자금사정
경영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 경영지표 - 2004년 매출액 성장률 - 2004년 경영성과의 긍정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이후 부도 경험 - 현재 위치하고 있는 성장 단계 - 향후 구조조정 계획
기업 경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부자재 조달 - 생산 활동(제조/건설) - 판매 활동 - 투자 및 사업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및 디자인 - 해외 기업 활동 - 전자상거래 현황 - 경영활동 향후 비전
인사노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인력 부족 현황 - 종업원 근무의욕 증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5일제 도입 현황 - 최근 2년간 노사분규 여부
교육 및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교육 및 연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주의 교육 및 연수현황

구 분	내 용	
여성 기업인의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의 애로사항 - 여성기업인의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인식 -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대우 및 차별적인 관행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인의 금융기관 거래시 애로사항 - 여성기업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부 해결 과제 - 여성기업인의 여성경제단체활동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활동 지원정책 인지도 및 평가 -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 인지도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 여성벤처기업 실태조사

구 분	내 용	
벤처기업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및 업력 - 사업체 등록 형태 - 사업장 입지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대표이사) 현황 - 창업 대표자 현황 - 최대주주 현황
벤처기업 경영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2004년 재무현황 및 경영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2004년 매출액 구성비율 - 성장 단계
벤처기업 경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현황 - 해외활동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현황 - 여성벤처기업 경영상의 애로사항
여성벤처 기업인의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인의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인식 -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대우 및 차별적인 관행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인 차별개선을 위한 정부 해결 과제 - 여성기업인의 여성경제단체활동 - 경영상의 애로사항
벤처기업 지원활동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지원제도 이용률 -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효과 - 벤처기업 창업시 어려움 - 벤처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항 - 지방소재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방안

3. 조사 설계

1) 표본설계

■ 조사 모집단의 정의⁴⁾

- 모집단: 2003년 12월 31일 기준(2004년 5월 조사)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 중에서 여성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체 전체
- 조사 모집단: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101,521개 민간사업체를 조사모집단으로 정의함.
 - 농림업, 어업, 광업 및 제주도 소재 사업체를 제외
 - 조직형태가 회사 이외의 법인(사단, 재단, 학교, 종교법인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비법인단체(법인자격이 없는 종친회, 후원회, 동창회 등)를 제외
 - 전기·가스·수도 업종의 경우 모집단 규모가 적어 조사대상에서 제외
(2003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준 모집단 N=13)

<표 2> 업종-규모별 조사 모집단 분포

(단위 : 개)

업종	5인 미만	5-19인	20-49인	50-99인	100인 이상	합계
제조업	37,688	11,020	1,328	215	67	50,318
건설업	3,443	2,693	330	36	11	6,513
도소매업	316,933	11,752	1,120	205	60	330,070
음숙박업	406,226	26,858	554	46	14	433,698
운수업	9,521	974	141	47	58	10,741
통신업	511	232	26	2	2	773
금융보험업	1,550	550	630	49	9	2,788
부동산임대업	26,267	824	104	6	4	27,205
사업서비스업	6,884	1,736	256	56	63	8,995
교육서비스업	53,581	7,294	699	116	16	61,706
보건복지사업	11,316	2,816	52	9	5	14,198
오락/문화/운동	39,224	1,032	43	16	1	40,316
개인서비스업	110,132	3,898	152	15	3	114,200
합계	1,023,276	71,679	5,435	818	313	1,101,521

4) '여성벤처기업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중소기업청의 벤처인증을 받은 여성기업 전체로 본 조사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263개의 여성벤처기업 리스트를 제공받았음. 조사수행기관(한국갤럽)에서는 263개 업체 중 100개 사업체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리스트에 수록된 전체 사업체에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그 중 77개 업체에서 조사에 성공하였음. 당초 모집단이 목표 표본수의 2.6배에 지나지 않아 전체 사업체에 접촉할 계획이었으므로 여성벤처기업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별도의 표본설계 내용은 없었음을 밝혀두는 바임.

■ 표본추출방법

- 업종별·종업원 규모별로 제곱근비례배분법에 의한 할당 후 업종별·종업원 규모별 층 내에서 지역을 반영한 계통추출 실시(13개 업종×5개 규모층×15개 지역)

<표 3> 업종-규모별 표본할당

(단위 : 개)

업종	5인 미만	5-19인	20-49인	50-99인	100인 이상	합계
제조업	321	173	58	24	65	641
건설업	96	86	30	10	11	233
통신업	32	20	9	2	2	65
도소매업	247	47	15	6	4	319
음숙박업	267	69	10	5	14	365
운수업	37	11	5	3	3	59
금융보험업	20	6	8	4	2	40
부동산/임대업	67	8	4	3	4	86
사업서비스업	29	14	8	5	3	59
교육서비스업	83	26	8	1	1	119
보건복지사업	30	14	-	1	-	45
오락/문화/운동	87	16	3	5	1	112
개인서비스업	143	27	9	2	3	184
합계	1459	517	167	71	113	2,327

- 표본추출의 기준⁵⁾

- 업종 분류 기준

- 제조업 - 제조업, 건설업, 통신업

- 비제조업 - 도소매업, 음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사업, 오락/문화/운동, 개인서비스업 등 10개 업종

- 종업원 규모별 기준: 5인 미만, 5인~19인, 20인~49인, 50인~99인, 100인 이상

- 지역별 기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5) 표본추출을 위한 층화 기준은 13개 업종×5개 종업원 규모×15개 지역으로 나누었으나, 조사결과 분석에 이용한 변인의 사후 층화는 과거 조사와의 연계 및 모수추정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

- 업종별:
 - 제조업 - 제조업, 건설업

- 비제조업 - 도소매업, 음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운수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사업, 오락/문화/운동, 개인서비스업 등 9개 업종)

- 종업원 규모별: 5인 미만, 5인~19인, 20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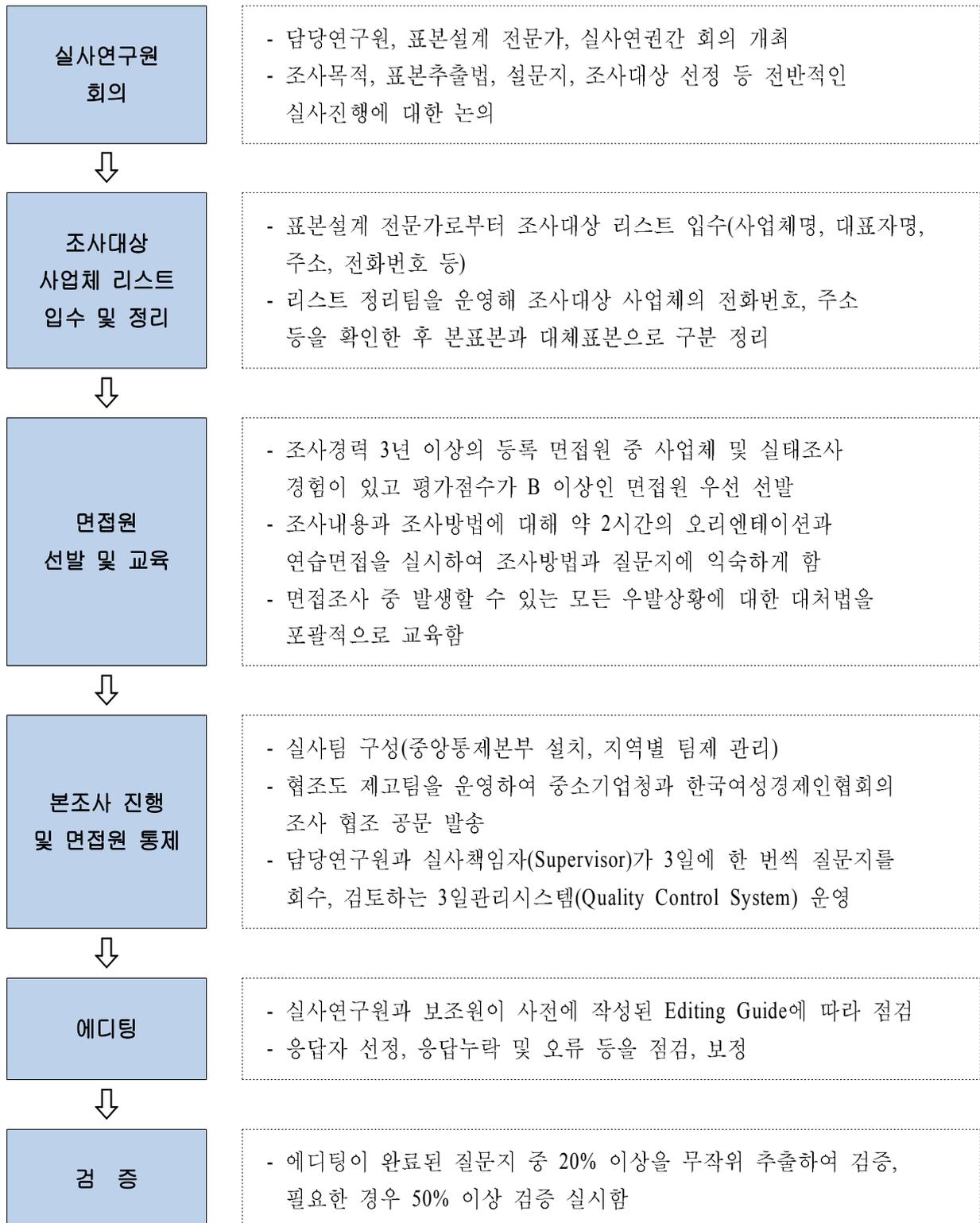
- 지역별: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 강원 등 6개 권역

○ 표본추출방법

- 1단계: 조사대상업종을 크게 제조업(제조업, 건설업, 통신업)과 비제조업(도소매업, 음식박업 등 10개 업종) 2개로 구분하여 제조업에 전체 조사표본의 40%, 비제조업에 60%를 우선 배분함.
- 2단계: 모집단 분포에 따라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이용하여 업종별, 종업원 규모별로 할당배분
- 3단계: 업종별·종업원 규모별 층 내에서 사업체를 지역 기준으로 정렬한 후 계통추출, 본표본 1개와 대체표본 10개씩을 추출하여 총 24,202개의 리스트를 구축함

2) 실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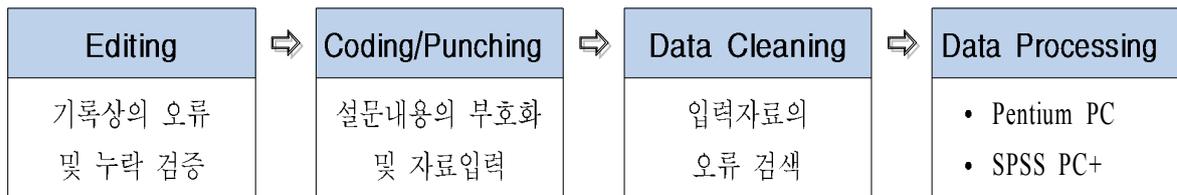
- 여성기업실태조사와 여성벤처기업실태조사는 한국갤럽의 표준적인 실사단계를 밟아 진행되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4. 자료처리

1) 자료의 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IBM 호환 Pentium PC를 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였음.



2) 항목 무응답의 보정(Imputation)

- 조사항목 중에서 무응답이 있을 경우 최근방향덱대체법(Hot Deck Imputation)을 이용해 무응답 항목의 대체값을 계산하여 완전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한 후 분석함

3) 모수추정

- 표본추출에서 업종별, 규모별로 할당된 표본을 다시 지역별로 계통추출 하였으므로 업종별·규모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음. 모수추정에서는 업종별·규모별 추출률과 응답률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한 추정법을 사용함
- 층화계통추출에서 표본가중치를 이용한 모평균의 추정량은 표본가중평균으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

$$\hat{Y} = \frac{\left(\sum_{h=1}^H \sum_{i=1}^{n_h} w_{hi} y_{hi} \right)}{w_{..}} \quad \dots\dots\dots (1)$$

여기서 y_{hi} 는 h층 i번째 조사단위에 대한 관측값이고, w_{hi} 는 h층 i번째 조사단위에 대한 가중치이며 $w_{..} = \sum_{h=1}^H \sum_{i=1}^{n_h} w_{hi}$ 로서 표본에 있는 모든 조사 단위들의 가중치의 합을 나타냄.

- 식(1)로 주어진 추정량의 분산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됨.

$$\hat{V}(\hat{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quad \dots\dots\dots(2)$$

여기서 n_h 는 h층의 표본크기이고, $e_{hi} = \left(\sum_{j=1}^k w_{hj} (y_{hij} - \hat{Y}) \right) / w_{h.}$ 이며,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임. 모집단 평균 추정량에 대한 표본오차는 위에 제시된 분산 추정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SE(\hat{Y}) = \sqrt{\hat{V}(\hat{Y})}$$

- 본 조사의 표본설계에서 층으로 고려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된 자료에서 지역별로 표본구성비를 계산하고 이를 모집단의 지역별 구성비와 연계하여 사후층화추정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음.
- 또한 표본추출시 고려되지 않은 세부영역에 대한 통계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보조정보를 이용하여 사후층화추정법을 적용하여 추정치를 계산함.

5. 응답자 특성

1) 여성기업 실태조사

구 분		표본조사		모수추정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373	100.0	1,101,459	100.0
업종별①	제 조 업	890	37.5	56,831	5.2
	비 제 조 업	1,483	62.5	1,044,628	94.8
업종별②	제 조 업	662	27.9	50,318	4.6
	건 설 업	228	9.6	6,513	0.6
	도 소 매 업	329	13.9	330,070	30.0
	음 숙 박 업	384	16.2	433,636	39.4
	기 타 (9개업종)	770	32.4	280,922	25.5
종업원 규모	5 인 미 만	1,662	70.0	1,023,276	92.9
	5 ~ 19 인	508	21.4	71,679	6.5
	20 인 이 상	203	8.6	6,504	0.6
지역별	서울/ 인천/ 경기	1,115	47.0	471,763	42.8
	부산/ 울산/ 경남	420	17.7	211,643	19.2
	대 구 / 경 북	274	11.5	132,532	12.0
	광주/ 전북/ 전남	246	10.4	126,138	11.5
	대전/ 충북/ 충남	232	9.8	112,292	10.2
	강 원	86	3.6	47,091	4.3

※ 본 조사에서 표본설계시 조사 모집단으로 설정한 여성사업체 수는 1,101,521개 업체였으나, 표본 추출과정에서 대전/ 충북/ 충남 지역 음숙박업의 종사자 규모 3. 20~49인, 4. 50~99인, 5. 100인 이상 층에 표본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전/ 충북/ 충남 지역 음숙박업의 20인 이상 규모층 모집단 62개 사업체를 제외한 1,101,459개 업체로 모수추정 되었음을 밝힘.

※ 표본추출을 위한 층화 기준은 13개 업종×5개 종업원 규모×15개 지역으로 나누었으나, 조사표본 수의 제한으로 인해 모수추정의 용이성을 도모하고 과거 조사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모수추정시에는 5개 업종×3개 종업원 규모×6개 지역으로 층화하였음을 밝힘.

- 업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숙박업, 기타(9개 업종: 운수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사업, 오락/문화/운동, 개인서비스업 등)
- 종업원 규모별: 5인 미만, 5인~19인, 20인 이상
- 지역별: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 강원

2) 여성벤처기업 실태조사

구 분		표본조사	
		사례수	%
전 체		77	100.0
업종별①	제 조 업	57	74.0
	비 제 조 업	20	26.0
업종별②	제 조 업	57	74.0
	사업 서비스 업	14	18.2
	도 소 매 업	3	3.9
	기 타	3	3.9
업력별	2 년 이 하	17	22.1
	3 ~ 5 년	26	33.8
	6 ~ 11 년	23	29.9
	11 년 이 상	11	14.3
지역별	서울/ 인천/ 경기	39	50.6
	부산/ 울산/ 경남	11	14.3
	대구 / 경 북	12	15.6
	광주/ 전북/ 전남	7	9.1
	대전/ 충북/ 충남	7	9.1
	강 원	1	1.3

II. 모집단의 특성

1. 여성사업체 현황

- 「2003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기준으로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약 1,146천개로 2001년에 비해 7.5%P(80,421개) 증가하였으며, 전체사업체중 여성사업체의 구성비 또한 35.0%에서 36.0%로 1.0%P 증가하였음.
- 1,146천개 여성사업체 중에서 순수영리사업체는 약 1,111천개로 2001년에 비해 7.2%P 증가하였으며, 전체 순수영리사업체 중 여성이 대표자인 순수영리사업체의 비율은 37.7%로 0.9%P 증가하였음.

<표 4> 여성사업체 현황

구 분		전체사업체수(A)	여성사업체수(B)	비율(B/A)
전체 사업체수	2001년	3,046,554	1,066,019	35.0%
	2003년	3,187,916	1,146,440	36.0%
순수영리 사업체수 ⁶⁾	2001년	2,814,561	1,036,981	36.8%
	2003년	2,944,993	1,111,461	37.7%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 년도

- 여성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23.6%로 여성사업체별로 평균 2.23명의 종사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여성사업체에서 일하는 여성종사자 수는 남성종사자수의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사업체 종사자수

구 분		전체사업체		여성사업체		비율 (B/A)
		전체 종사자수	순수영리사업체 종사자수(A)	전체 종사자수	순수영리사업체 종사자수(B)	
2003년 종사자수	전 체	14,729,166	10,498,758	2,793,940	2,481,505	23.6%
	남 자	8,773,497	6,188,215	699,122	624,169	10.1%
	여 자	5,955,669	4,310,543	2,094,818	1,857,336	43.1%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 년도

6)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모집단 원자료 중 지사, 공장,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제외한 사업체를 순수영리사업체(Enterprise)로 조작적 정의함.

2. 지역별

- 지역별 순수영리여성사업체의 비중은 2001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에 42.1% 정도가 위치하고 있음.
- 전체사업체 대비 지역별 여성사업체의 비율은 울산(46.6%)과 제주(45.8%), 강원(45.0%)이 가장 높고, 서울(31.8%)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6> 순수영리여성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비율

구 분	전체사업체수 (2001년)(A1)	전체사업체수 (2003년)(A2)	여성사업체수 (2001년)(B1)	여성사업체수 (2003년)(B2)	여성사업체비율 (B1/A1)	여성사업체비율 (B2/A2)
전 체	2,814,561	2,944,993	1,036,981	1,111,461	36.8%	37.7%
서 울	681,277	704,449	209,394	223,812	30.7%	31.8%
부 산	246,653	250,809	96,500	101,401	39.1%	40.4%
대 구	169,035	172,759	59,951	63,075	35.5%	36.5%
인 천	136,903	145,662	50,568	54,058	36.9%	37.1%
광 주	82,134	86,891	32,832	34,879	40.0%	40.1%
대 전	83,219	84,025	32,228	33,542	38.7%	39.9%
울 산	55,489	59,633	25,549	27,777	46.0%	46.6%
경 기	469,481	524,680	168,199	189,920	35.8%	36.2%
강 원	100,706	104,108	44,308	46,895	44.0%	45.0%
충 북	86,767	88,049	34,426	35,503	39.7%	40.3%
충 남	105,524	109,541	39,572	42,600	37.5%	38.9%
전 북	105,898	106,963	41,240	42,768	38.9%	40.0%
전 남	114,153	114,044	45,822	47,875	40.1%	42.0%
경 북	159,823	165,116	64,982	68,805	40.7%	41.7%
경 남	181,247	190,063	74,750	81,063	41.2%	42.7%
제 주	36,252	38,201	16,660	17,488	46.0%	45.8%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 년도

3. 업종별

- 여성사업체의 업종별 비중은 음식·숙박업(68.3%), 도소매업(38.4%), 기타 서비스업(27.2%)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순수영리여성사업체의 업종별 분포 및 비율

구 분	전체사업체수 (2001년)(A1)	전체사업체수 (2003년)(A2)	여성사업체수 (2001년)(B1)	여성사업체수 (2003년)(B2)	여성사업체비율 (B1/A1)	여성사업체비율 (B2/A2)
전 체	2,814,561	2,944,993	1,036,981	1,111,461	36.8%	37.7%
농림어업	2,458	2,389	120	138	4.9%	5.8%
광업						
제조업	320,400	318,250	46,886	50,555	14.6%	15.9%
건설업	69,808	79,868	4,587	6,552	6.6%	8.2%
도 소 매 업	864,733	865,168	321,850	332,636	37.2%	38.4%
음식 및 숙박업	612,714	643,793	413,886	439,961	67.5%	68.3%
기타 서비스업	944,448	1,035,525	249,652	281,619	26.4%	27.2%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 년도

4. 종업원 규모별

- 여성사업체의 종업원 규모별 비중은 5인 미만의 상시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여성사업체가 전체의 93.2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5~9인 이하 사업체는 5.27%, 10~19인 이하는 1.07%, 20인 이상은 약 0.4%임.

<표 8> 순수영리여성사업체의 종업원 규모별 분포

구 분	전체사업체수 (2003년)(A)	여성사업체수 (2003년)(B)	규모별비율 (Bi ⁷ /ΣB)	여성사업체비율 (B/A)
전 체	2,944,993	1,111,461	100.00%	37.7%
5 인 미 만	2,557,978	1,036,599	93.26%	40.5%
5 - 9명	250,785	58,534	5.27%	23.3%
10 - 19명	81,794	11,862	1.07%	14.5%
20 - 49명	39,212	3,722	0.33%	9.5%
50 - 99명	9,193	516	0.05%	5.6%
100 - 299명	4,989	196	0.02%	3.9%
300명 이상	1,042	32	0.00%	3.1%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3년도

7) Bi 는 B의 각각의 값을 의미함.

III. 주요 조사 결과

1. 여성기업 실태조사
2. 여성벤처기업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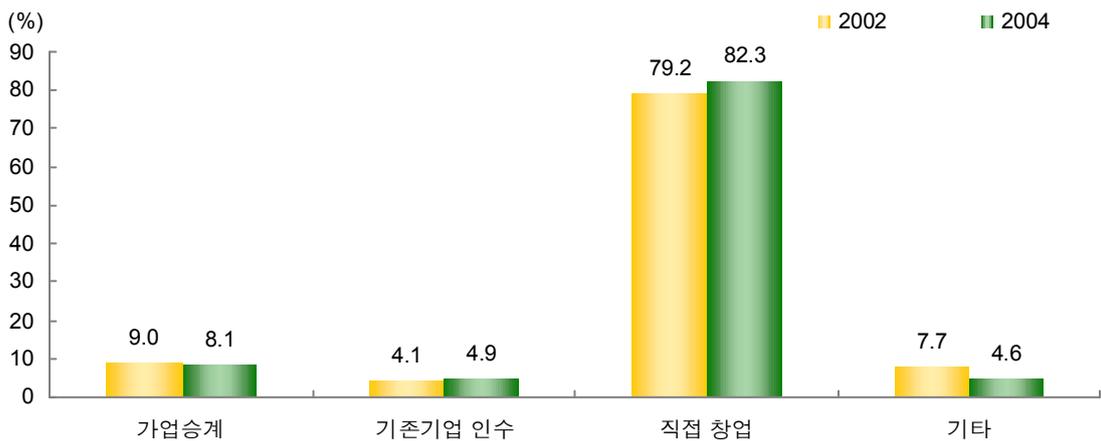
1. 여성기업 실태조사

① 여성기업의 창업 관련 사항

1) 창업 형태

- 여성기업인들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여성기업인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가 82.3%로 가업승계(8.1%)나 기존기업 인수(4.9%) 형태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음식박업 등 비제조업 여성기업인들의 직접 창업 비율이 높았으며, 제조업, 건설업 등의 제조업 여성기업인들은 가업승계형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여성기업인의 창업 동기



※ 2004년 모름/무응답 0.1%는 분석에서 제외

<표 9> 업종별 여성기업인의 창업동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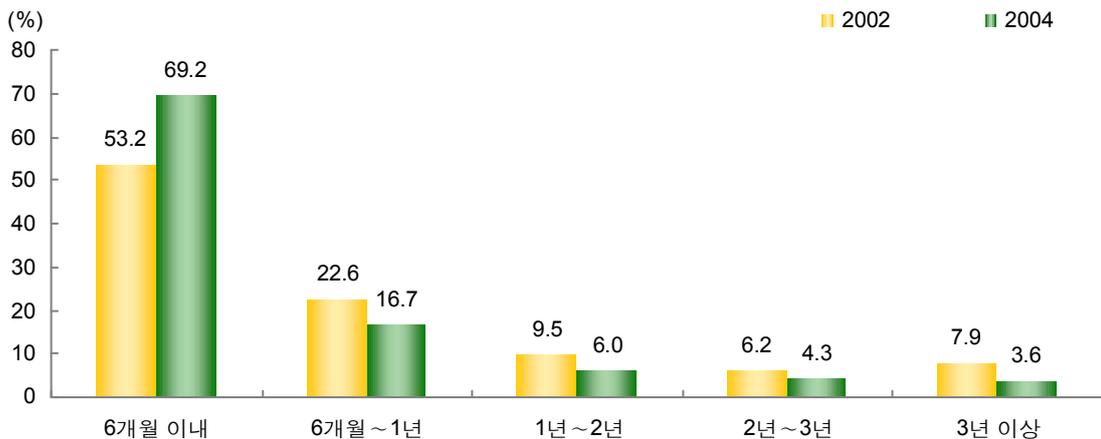
	사례수	가업승계	기존기업 인수	직접 창업	기타
전 체	1,101,459	8.1	4.9	82.3	4.6
제조업	50,318	18.0	4.9	69.4	7.7
건설업	6,513	30.1	4.8	50.5	14.2
도소매업	330,070	12.2	4.5	77.6	5.7
음식박업	433,636	3.8	5.8	86.8	3.2
기타	280,922	7.7	3.6	84.0	4.7

※ 모름/무응답 0.1%는 분석에서 제외

2) 창업시 소요기간

- 창업을 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6개월 이내가 69.2%, 6개월~1년 이내가 16.7%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창업/인수 결심 후 1년 이내에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음식박업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간 창업비율이 70% 이상을 차지(도소매업 78.7%, 음식박업 71.2%)해 다른 업종에 비해 창업기간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건설업, 기타 업종의 경우는 약 60% 정도가 6개월 이내에, 20% 정도는 6개월~1년 이내의 시간을 소요해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02년 조사 결과에 비해 6개월 이내 창업자의 비율이 1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창업 소요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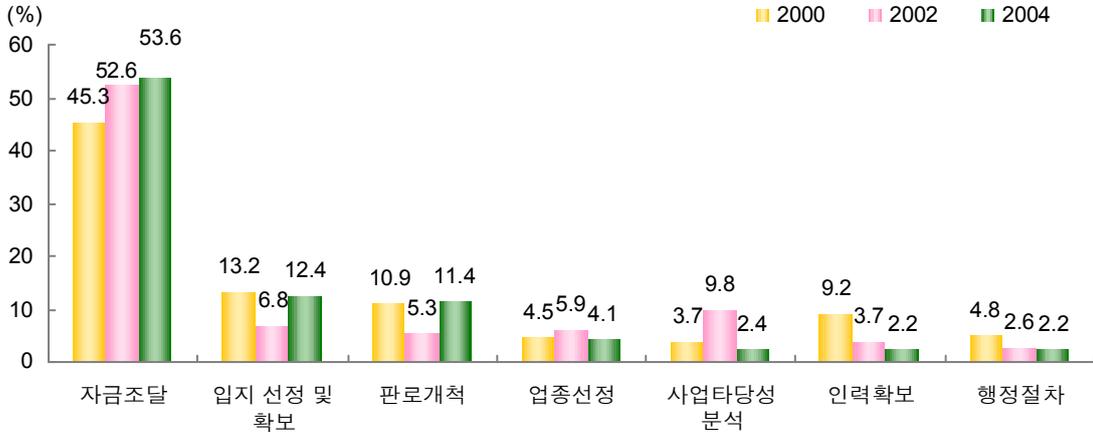
※ 없음(0.1%), 모름/무응답(0.1%)은 분석에서 제외

3) 창업 준비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 여성기업인들이 창업을 준비할 때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53.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입지선정 및 확보(12.4%), 판로개척(11.4%)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창업준비시 자금조달 측면의 애로사항은 2000년 45.3%, 2002년 52.6%, 2004년 53.6%

로 지속적으로 그 응답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창업 준비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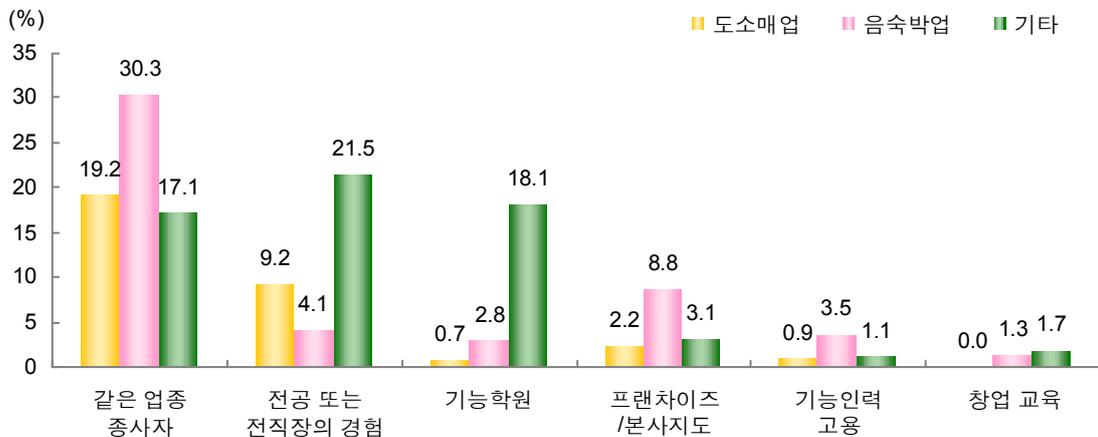
※ 2004년 응답기준 상위 7개까지 결과를 제시

4) 창업에 필요한 기능훈련 습득방법(비제조업)

○ 창업에 필요한 기능은 같은 업종 종사자로부터 습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업종의 경우 전공 또는 전직장의 경험이나 기능학원에서의 훈련경험을 살려 창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49.5%는 창업에 특별한 기능이 필요 없었다고 응답함.

<그림 4> 창업에 필요한 기능훈련 습득방법 (N=1,044,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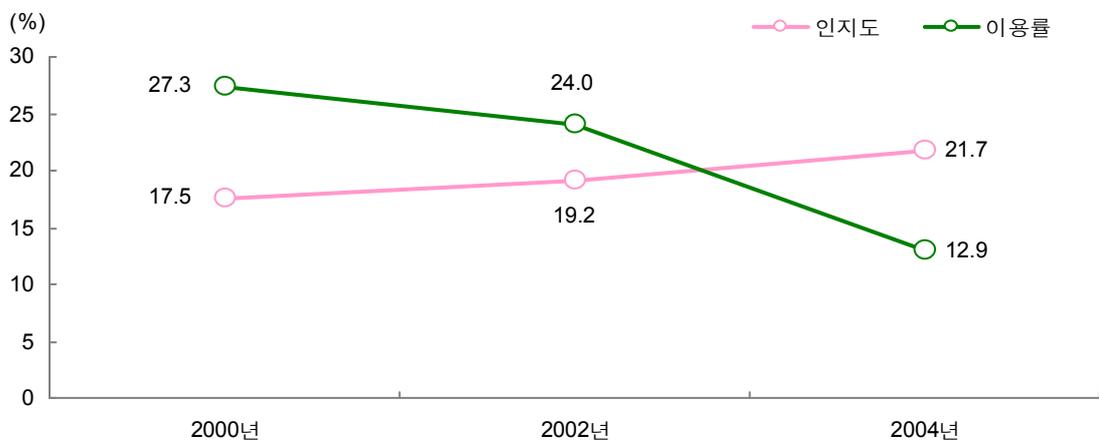


※ 전체 기준으로 특별한 기능이 필요 없었음(49.5%), 기타(2.0%), 모름/무응답(0.4%)은 분석에서 제외

5) 창업지원기관 이용실태

- 창업지원기관을 알고 있었던 여성기업인은 전체 응답자의 21.7%였으며, 그 중 12.9%가 실제 창업기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2002년에 이어 창업지원기관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용률은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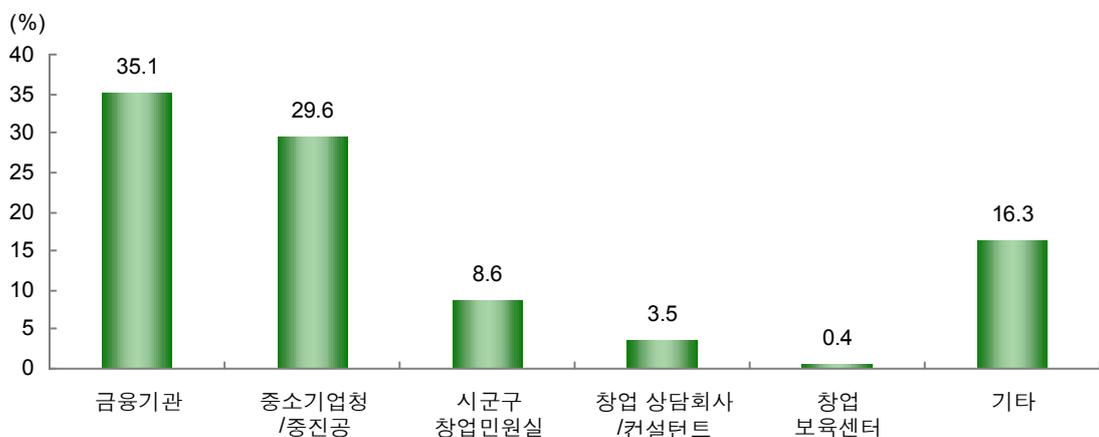
<그림 5> 창업지원기관 인지도 및 이용률



※ 창업지원기관 이용률은 창업지원기관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산출함.

- 창업준비시 가장 많이 이용한 창업지원기관은 금융기관(35.1%),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29.6%), 시군구 창업민원실(8.6%)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창업 준비시 도움 받은 기관 (N=30,522)



※ '없음(6.4%)'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6) 창업자금의 조달 경로 및 용자신청

- 여성기업인의 창업시 자금조달 경로는 우선 본인이나 공동경영인의 출자금 등 내부에서 조달하는 자금 비중이 71.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기관이나 사채, 정책자금 등의 외부자금 비중은 29.0%로 조사되었음.

<표 10> 창업시 필요한 자금조달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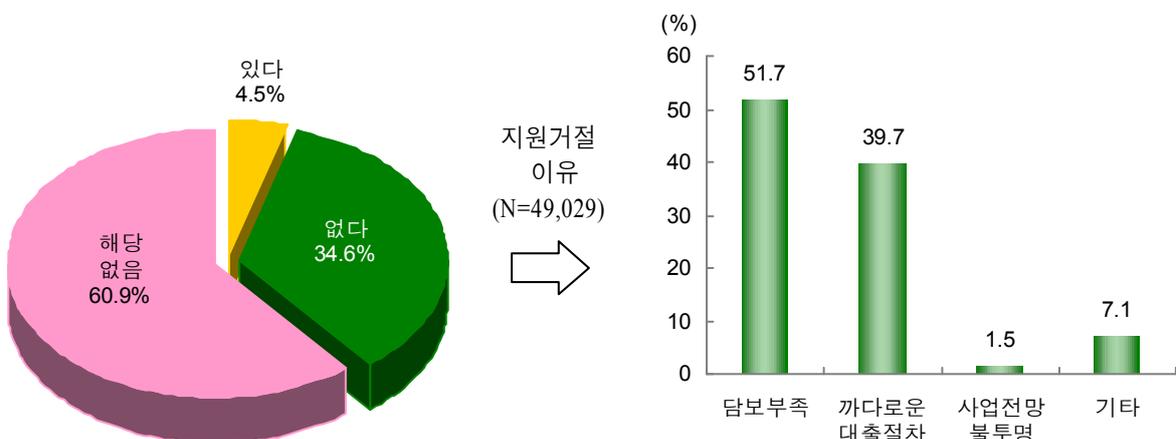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본인 및 공동 경영인의 출자	정책 자금	금융 기관 대출	창업투자 회사 및 벤처 캐피탈 투자	사채	기타
전 체	1,101,459	71.0	0.8	17.8	0.3	7.5	2.6
제조업	50,318	71.2	1.1	15.2	0.4	9.4	2.6
건설업	6,513	81.2	0.7	12.3	-	5.2	0.2
도소매업	330,070	73.2	0.5	15.1	0.5	7.4	3.2
음숙박업	433,636	67.1	0.9	21.0	-	8.7	2.4
기타	280,922	74.3	1.0	16.7	0.3	5.4	2.4

- 창업시 은행이나 투자회사, 정부산하단체 등 자금지원기관에 자금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인은 4.5%였음.

- 자금지원기관의 지원거절 이유는 담보 부족(51.7%), 까다로운 대출절차(39.7%), 사업전망 불투명(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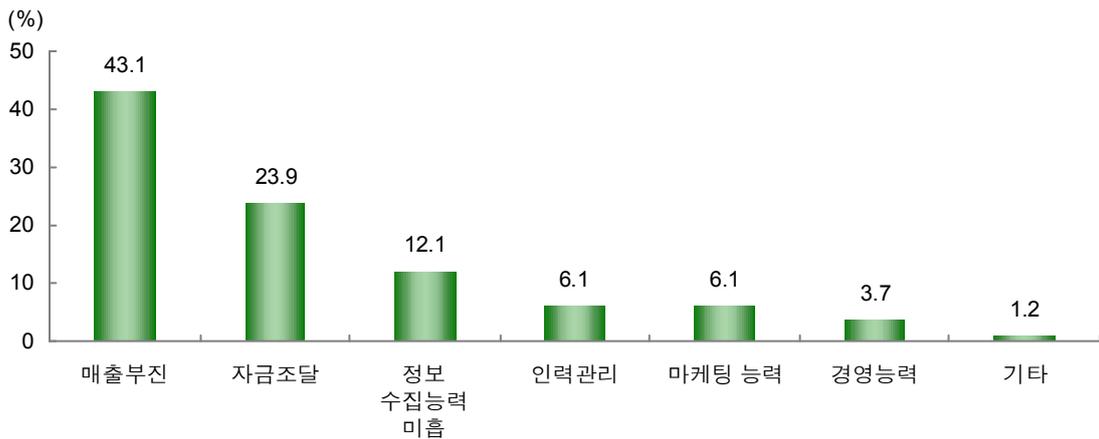
<그림 7> 창업자금 용자신청시 지원거절 경험 여부 및 지원거절 이유 (N=1,101,459)



7) 초기사업 운영시 애로사항 및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 여성기업인들이 창업 초기 사업운영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매출부진(43.1%)이었으며, 그 외 자금조달(23.9%), 시장환경 등 정보수집 능력미흡(12.1%)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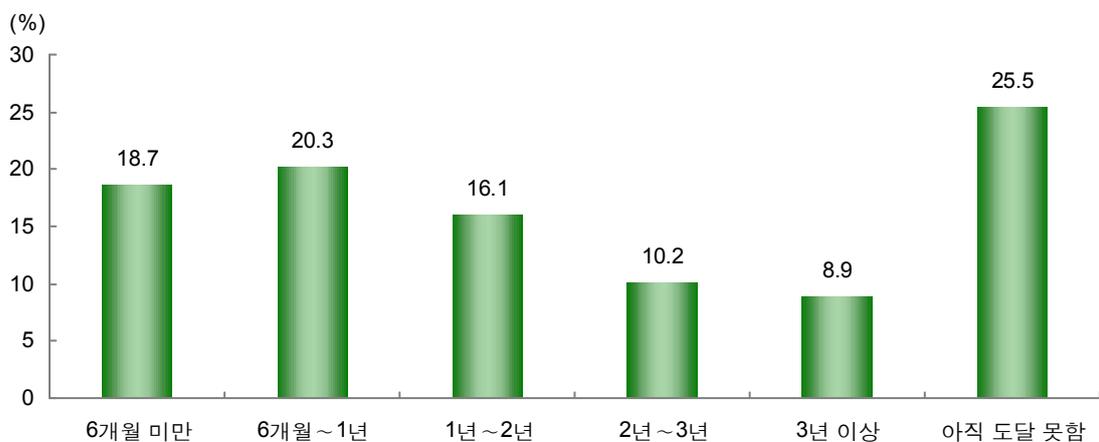
<그림 8> 창업초기에 어려웠던 점 (N=1,101,459)



※ 없음(3.6%), 모름/무응답(0.3%)은 분석에서 제외

- 창업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과반수 이상의 여성기업이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6개월 미만 18.7%, 6개월~1년 20.3%, 1~2년 16.1%). 한편 아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여성기업도 25.5%에 달함.

<그림 9> 창업 후 손익분기점 도달 기간 (N=1,10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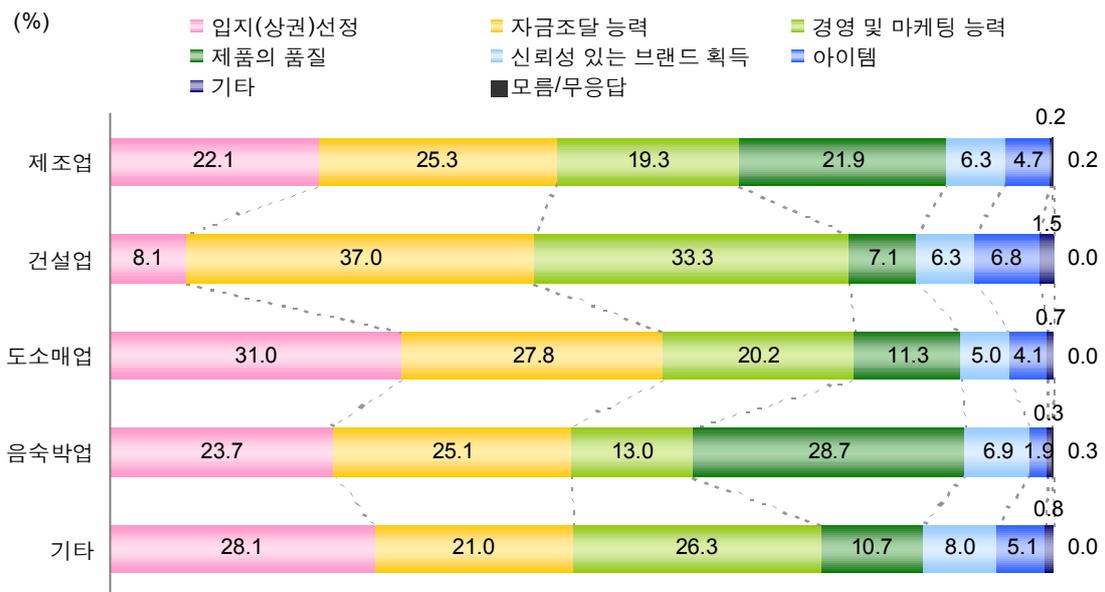


※ 모름/무응답(0.2%)은 제외

8)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중요 요인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중요 요인으로 제조업의 경우 ① 자금조달 능력(25.3%), ② 입지(상권) 선정(22.1%), ③ 제품의 품질(21.9%)을 꼽았으며, 건설업은 ① 자금조달 능력(37.0%), ② 경영 및 마케팅 능력(33.3%)을 꼽음.
- 비제조업 중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① 입지(상권) 선정(31.0%), ② 자금조달 능력(27.8%)을 우선적으로 들었으며, 음식박업은 ① 제품의 품질(28.7%), ② 자금조달 능력(25.1%)을, 기타 업종은 ① 입지(상권) 선정(28.1%), ② 경영 및 마케팅 능력(26.3%)을 꼽아 업종간에 창업 성공요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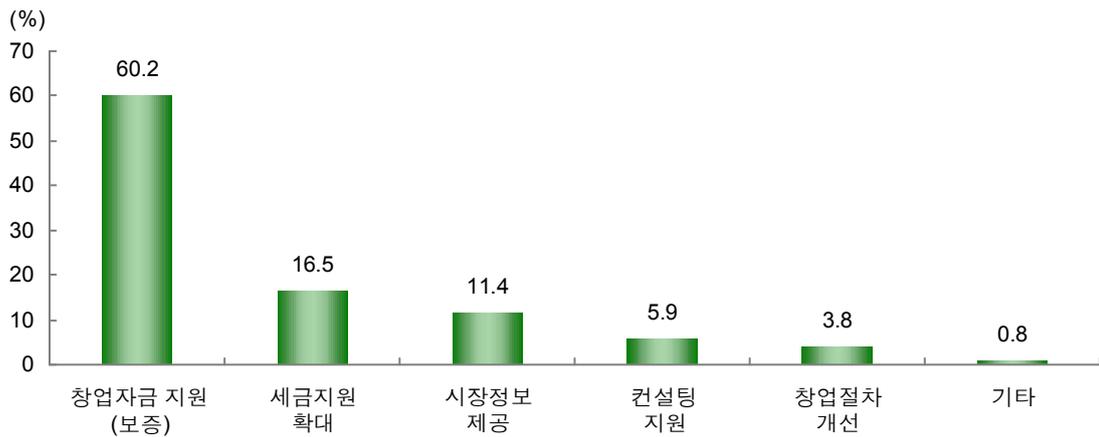
<그림 10> 업종별 창업 성공 요인 (N=1,101,459)



9) 효과적인 창업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

- 효과적인 창업을 위해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60.2%의 여성기업이 창업자금 지원(보증)을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세금지원 확대(16.5%), 시장정보 제공(11.4%) 등의 지원을 들었음.

<그림 11>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 (N=1,10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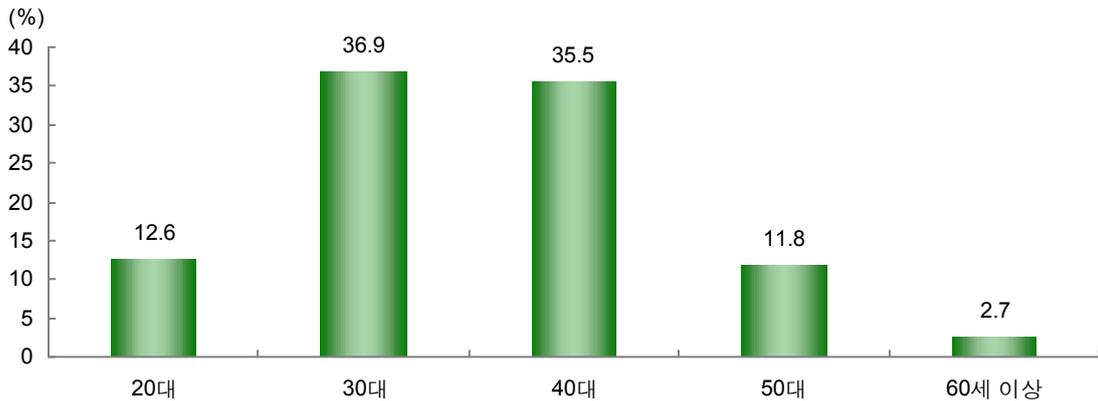


※ 없음(1.1%), 모름/무응답(0.3%)은 분석에서 제외

10) 창업자의 특성

- 여성기업인의 창업 평균연령은 39.96세로 대부분의 여성기업인이 30대와 40대에 창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30대 36.9%, 40대 35.5%)

<그림 12> 창업/인수 당시 창업자 연령 (N=1,10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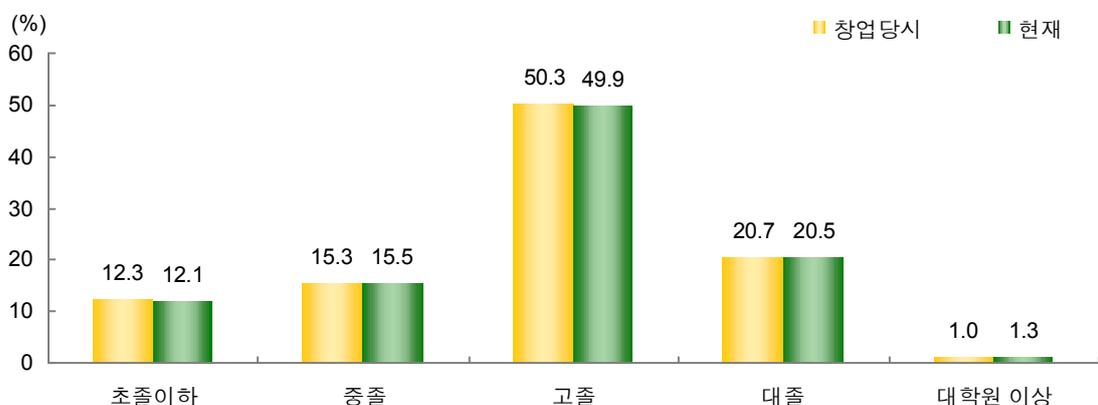


※ 모름/무응답(0.5%)은 제외

- 여성기업인 10명 중 8명 정도는 창업당시 학력이 고졸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 학력자는 약 2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당시 학력수준과 현재의 학력 수준 간에는 큰 변동이 없음. 다만 초졸자, 고졸자, 대졸자 비율이 조금 줄어들고 중졸자, 대학원 이상 학력의 비율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아 소수의 여성기업인들의 경우 창업이후에도 관련분야 지식획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그림 13> 창업자 최종학력 (N=1,10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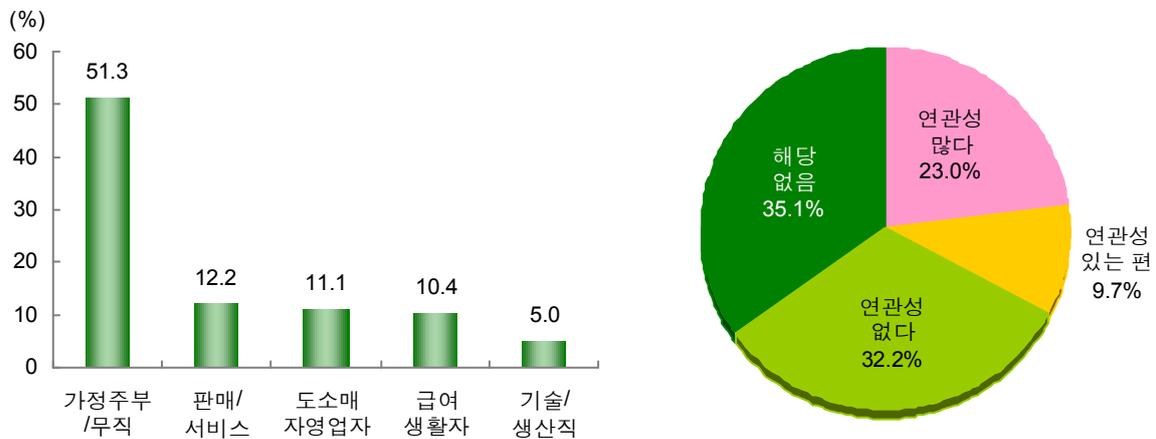


※ 모름/무응답(창업당시 : 0.4%, 현재 : 0.7%)은 분석에서 제외

11) 창업이전 경력 및 현 업종과의 연관성

- 창업이전 경력으로 가정주부/무직자가 51.3%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서비스 종사자(12.2%), 도소매 자영업주(11.1%), 급여생활자(10.4%), 기술/생산직(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창업전 종사분야와 현재 창업 업종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관성이 많거나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32.7%였으며, 연관성 없음 및 해당없음(창업이전 경력이 가정주부/무직) 응답자는 67.3%로 나타남.

<그림 14> 창업이전 경력과 연관성 (N=1,101,459)



※ 상위 5개까지만 응답제시. 전문직 종사(1.8%), 현회사의 임직원(0.9%), 기타(7.2%), 해당없음(2.1%)은 분석에서 제외

2 여성기업의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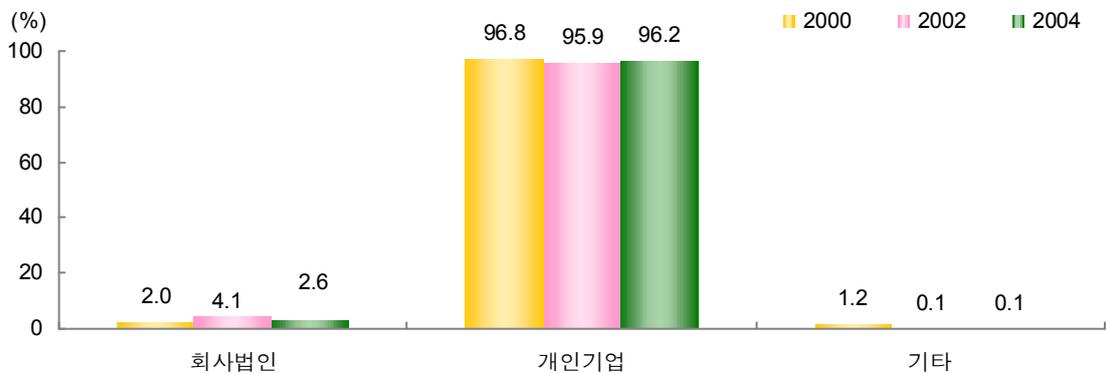
1) 조직 형태(법인화율)

○ 여성기업의 조직형태는 개인기업이 96.2%, 회사법인이 2.6%로 거의 모든 여성기업이 개인기업 형태임.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7.9%, 건설업이 41.7%, 도소매업이 3.0%, 음식박업이 0.7%, 기타 업종이 3.2%로 나타나 건설업과 제조업의 법인화율은 상당히 진척된 것을 알 수 있음.

○ 「2002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출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애로 실태조사 보고서」, 2003년)에서 중소기업의 법인화율을 보면 법인이 60.8%, 개인이 39.2%로 법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제조업 실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그림 15> 사업체 등록 형태



※ 2004년 응답기준 모름/무응답(1.0%)은 분석에서 제외

<표 11> 업종별 사업체 등록형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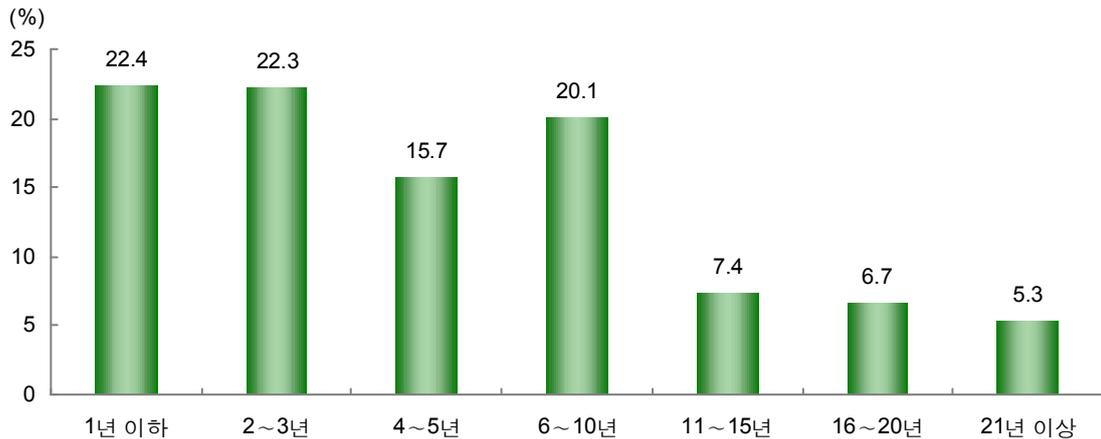
	회사법인	개인기업	기타
제조업	7.9	91.6	0.5
건설업	41.7	58.3	-
도소매업	3.0	96.9	-
음식박업	0.7	97.3	-
기타	3.2	95.5	0.5

※ 기타법인으로는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장외등록법인 등이 있음. 모름/무응답(1.0%)은 제외함.

2) 업력

- 2004년 여성기업의 평균 업력은 6.7년으로 창업 후 10년 이하 기업이 대다수(8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6> 업력 (N=1,101,459)



※ 모름/무응답(0.1%)은 분석에서 제외

- 「2002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출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애로 실태조사 보고서」, 2003년)에서 2002년 중소기업의 업력은 평균 10.2년으로 여성 제조기업(제조업 8.4년) 약 1.8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미만의 신설기업이 59.3%로 2004년 여성제조기업에 비해 그 비중이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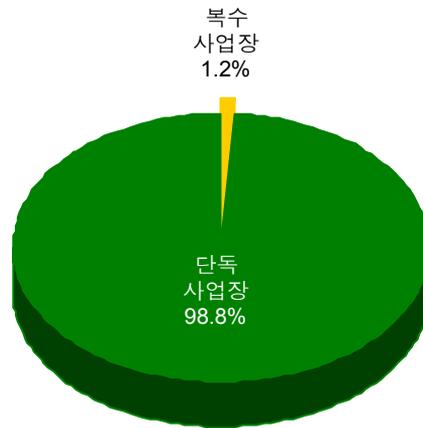
3) 사업장 현황

(1) 전체 사업장 수

○ 여성기업중 단독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98.8%이고, 복수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1.2%로 대부분의 기업이 단독사업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업종 특성상 복수사업장 비중이 9.9%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 3.4%, 도소매업 2.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17> 전체 사업장 수 (N=1,101,459)



<표 12> 업종별 사업장 수

(단위 : %, 개)

	사례수	단독사업장	복수사업장	평균사업장 수
전 체	1,101,459	98.8	1.2	1.02
제조업	50,318	96.3	3.4	1.06
건설업	6,513	87.7	9.9	1.36
도소매업	330,070	98.0	2.1	1.04
음숙박업	433,636	99.8	0.2	1.00
기타	280,922	98.7	1.3	1.03

(2) 본사 사업장 현황

- 여성기업의 본사사업장 평균 규모는 105㎡ (약 32평) 정도이며, 전체 사업체 중에서 본사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21.8%, 임차한 경우는 78.2%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성기업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본사규모가 타 업종에 비해 약 2배~6배 정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유 비율도 31.7%로 평균을 상당히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종업원규모가 클수록 본사의 규모 및 소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본사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2,235만원, 월평균임대료는 약 74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13> 본사 사업장 현황

(단위 : ㎡, %, 만원)

	사례수	사업장 규모 (㎡)	소유여부(%)		임대 보증금 (만원)	월평균 임대료 (만원)
			소유	임차		
전 체	1,101,459	105.49	21.8	78.2	2,235.45	74.04
업종별						
제조업	50,318	324.51	31.7	68.3	1,644.90	69.15
건설업	6,513	150.67	20.1	79.9	2,079.62	68.13
도소매업	330,070	55.93	22.1	77.9	2,097.09	70.47
음식박업	433,636	105.21	23.3	76.7	2,108.51	81.79
기타	280,922	123.87	17.3	82.7	2,661.30	67.73
종업원규모						
5인 미만	1,023,276	75.54	21.5	78.5	2,079.89	65.06
5~19인	71,679	372.39	24.2	75.8	4,058.64	182.74
20인 이상	6,504	1,875.71	37.6	62.4	8,616.40	395.02
지역별						
서울/인천/경기	471,763	86.83	16.0	84.0	2,239.01	87.61
부산/울산/경남	211,643	110.35	19.3	80.7	2,400.10	62.27
대구/경북	132,532	120.45	28.1	71.9	1,354.19	58.86
광주/전북/전남	126,138	122.91	36.6	63.4	3,367.28	44.94
대전/충북/충남	112,292	124.53	19.4	80.6	1,677.47	75.56
강원	47,091	136.46	38.3	61.7	2,733.17	83.15

※ 본 조사보고서에서는 사업장이 본사와 공장을 겸하고 있는 단독사업장인 경우 본사 사업장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음에 유의할 것.

※ 1㎡=0.3평, 즉 1평=3.3㎡로 환산됨.

(3) 공장 사업장 현황

- 여성기업의 공장 사업장 평균 규모는 1,270㎡ (약 381평) 정도이며, 공장이 있는 사업체 중 공장을 직접 소유한 기업은 41.7%, 임차한 경우는 58.3%인 것으로 나타남.
-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평균적으로 약 1,232만원, 월평균임대료는 약 79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14> 공장 사업장 현황

(단위 : ㎡, %, 만원)

	사례수	사업장 규모 (㎡)	소유여부		임대 보증금 (만원)	월평균 임대료 (만원)
			소유	임차		
전 체	1,578	1,269.54	41.7	58.3	1,232.36	79.04
업종별 제조업	1,578	1,269.54	41.7	58.3	1,232.36	79.04
종업원규모						
5인 미만	673	171.11	31.2	68.8	1,646.20	53.07
5~19인	630	464.73	38.7	61.3	1,020.00	98.00
20인 이상	275	7,292.10	74.2	25.8	0.00	74.62
지역별						
서울/인천/경기	961	611.67	35.3	64.7	1,094.59	99.86
부산/울산/경남	107	5,049.39	82.8	17.2	-	-
대구/경북	223	1,422.30	48.1	51.9	-	-
광주/전북/전남	162	128.43	7.6	92.4	1,835.50	6.58
대전/충북/충남	125	4,608.85	88.6	11.4	0.00	70.00

※ 본 조사보고서에서는 사업장이 본사와 공장을 겸하고 있는 단독사업장인 경우 본사 사업장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음에 유의할 것.

※ 1㎡=0.3평, 즉 1평=3.3㎡로 환산됨.

(4) 기타 사업장 현황

○ 여성기업의 기타사업장 평균 규모는 1,282㎡ (약 385평) 정도이고, 기타사업장이 있는 사업체중 사업장을 소유한 기업은 35.5%, 임차한 기업은 53.4%였음.

- 기타사업장에는 지점/지사, 공사현장, 대리점, 영업소, 농장, 창고 등이 있었음.

○ 기타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3,457만원, 월평균임대료는 약 1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5> 기타 사업장 현황

(단위 : ㎡, %, 만원)

	사례수	사업장 규모 (㎡)	소유여부		임대 보증금 (만원)	월평균 임대료 (만원)
			소유	임차		
전체	8,990	1,282.08	35.5	53.4	3,456.52	159.48
업종별						
제조업	213	3,314.35	17.5	40.6	10,720.60	1,399.89
건설업	988	52,139.56	2.8	11.2	6,001.88	247.03
도소매업	5,656	438.79	43.9	56.1	3,830.11	156.63
음식박업	407	198.00	100.0	0.0	-	-
기타	1,726	468.23	13.7	82.9	1,750.00	117.67
종업원규모						
5인 미만	5,154	139.36	28.6	67.5	3,375.63	135.01
5~19인	2,935	3,984.41	44.7	34.7	392.23	300.00
20인 이상	901	1,372.10	44.8	33.9	10,720.10	368.59
지역별						
서울/인천/경기	4,843	326.96	7.8	89.0	3,331.14	160.62
부산/울산/경남	854	23,296.11	17.5	18.7	18,700.00	0.00
대구/경북	697	319.86	59.7	40.3	-	-
광주/전북/전남	2,413	583.15	86.1	1.7	-	-
대전/충북/충남	183	3,124.75	94.9	5.1	20,00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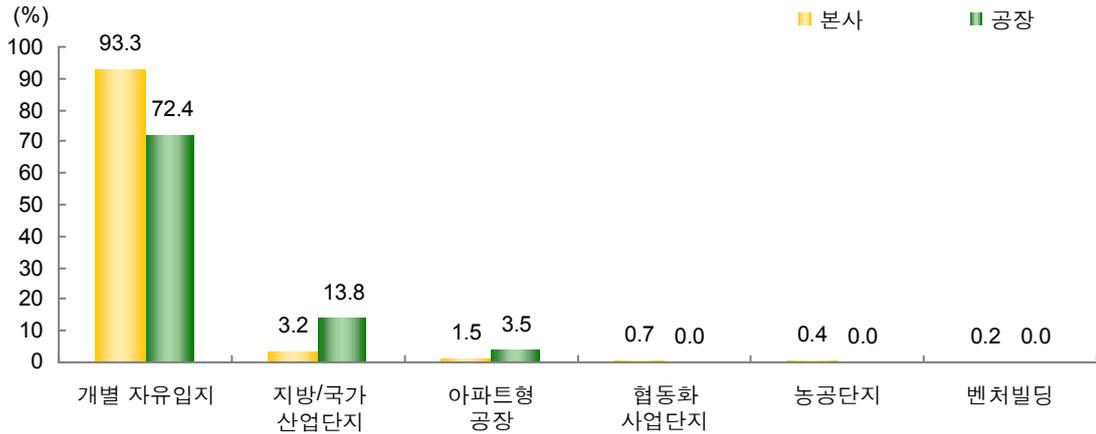
※ 기타사업장 중 건설업의 공사현장의 경우 그 소유여부와 임대보증금, 월평균임대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통계표에서 해당없음 항목으로 표시하였음.

※ 1㎡=0.3평, 즉 1평=3.3㎡로 환산됨.

(5) 사업장의 입지 형태와 연구소 보유현황

- 제조업 및 건설업의 본사와 공장 입지형태는 모두 개별자유입지가 각각 93.3%, 7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공단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18> 사업장 입지 형태(제조/건설) (N=56,831)



- ※ 모름/무응답(본사 0.6%, 공장 10.4%)은 분석에서 제외
- ※ 공장 입지 형태의 경우 해당없음(97.1%)을 제외하고 재환산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하는 연구소 및 연구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0.1%에 불과하였으며, 연구소 보유 기업의 평균 부설연구소 수는 1.43개, 사내 전담 연구부서 수는 1.00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4) 종사자 현황

(1) 전체 종사자 현황

- 여성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업체당 평균 2.69명으로 총 296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80.7%가 정규직, 19.3%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 또 남성 근로자는 30.9%, 여성 근로자는 69.1%를 차지해 여성기업의 여성근로자 비율이 남성근로자의 2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6> 전체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종업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관리인력(임원급이상)	0.31	0.98	0.01	0.02	0.32	1.00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0.02	0.01	0.01	0.00	0.03	0.01
사무인력	0.04	0.11	0.01	0.01	0.05	0.12
서비스 및 영업인력	0.13	0.24	0.07	0.18	0.20	0.42
생산 및 기능인력	0.11	0.08	0.02	0.04	0.13	0.12
단순노무인력	0.06	0.08	0.04	0.11	0.10	0.19
전 체	0.67	1.50	0.16	0.36	0.83	1.86

※ 위의 전체 종업원 수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가족종사자, 경영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본 조사보고서에서 자영업주는 관리인력(임원급 이상) 직종에 포함하였음.

(2) 가족 종사자 현황

○ 여성기업의 경우 가족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사업주의 배우자가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32.9%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주의 자녀가 함께 하는 경우는 5.7%, 친지가 같이하는 경우는 6.9%인 것으로 나타남. 전체 사업체의 평균 가족 종사자 수는 0.01명으로 조사되었음.

-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64.3%)에서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음식박업(51.4%), 제조업(49.2%), 도소매업(39.2%), 기타(32.5%) 순이었음.

<표 17> 가족 종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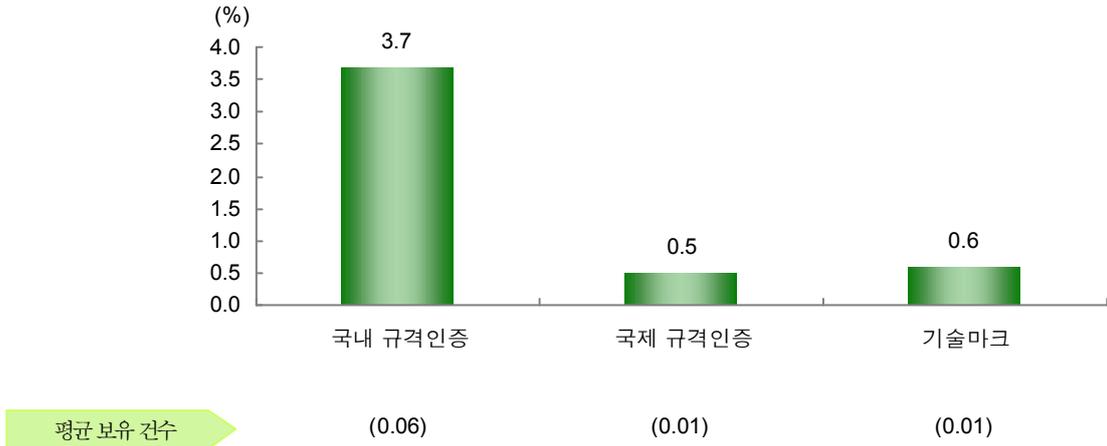
(단위 : %, 명)

	사례수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자녀	사업주의 친지	해당없음	평균 가족 종사자
전 체	1,101,459	32.9	5.7	6.9	57.1	0.01
제조업	50,318	39.9	6.0	7.0	50.8	0.03
건설업	6,513	51.7	7.1	8.6	35.7	0.05
도소매업	330,070	28.6	6.8	4.6	60.8	0.01
음식박업	433,636	41.2	6.3	8.9	48.6	0.02
기타	280,922	23.3	3.3	6.5	67.5	0.00

5)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제조/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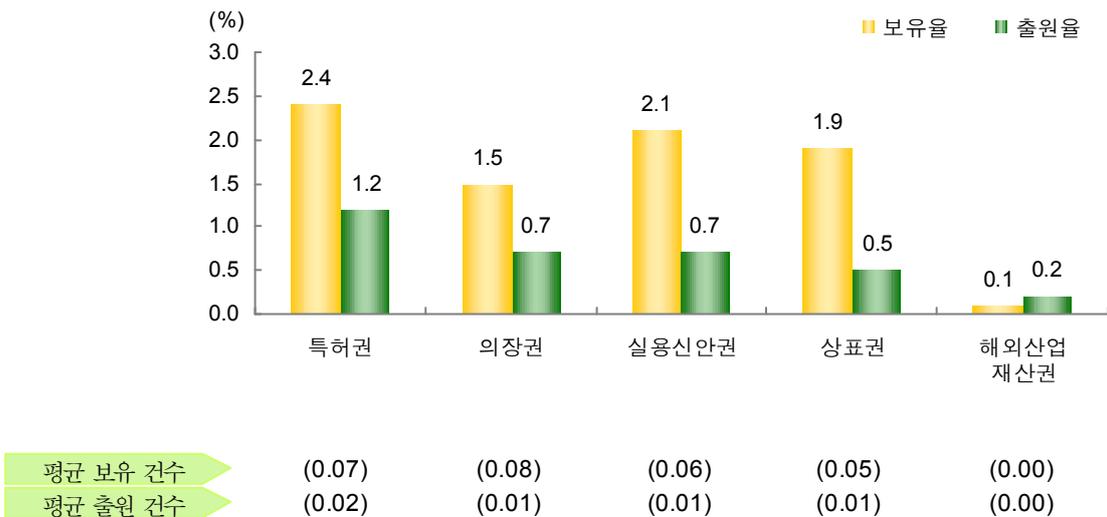
- 전체 여성기업의 기술마크 및 규격인증 평균 보유 건수는 국내 규격인증은 0.06건, 국제 규격인증은 0.01건, 기술마크는 0.01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9> 규격인증 및 기술마크 (N=56,831)



- 여성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율은 특허권이 2.4%, 의장권 1.5%, 실용신안권 2.1%, 상표권 1.9%, 해외산업재산권 0.1%였으며, 평균 보유 건수는 특허권 0.07건, 의장권 0.08건, 실용신안권 0.06건, 상표권 0.05건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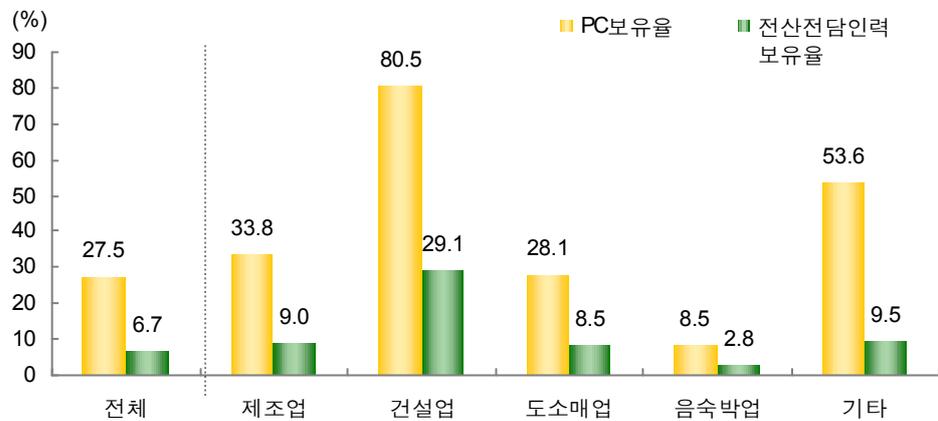
<그림 20> 산업재산권 보유 및 출원율 (N=56,831)



6) 정보화 현황

- 전체 여성기업의 PC 보유율은 27.5%이며, 평균 보유 대수는 0.63대였음.
 -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49대로 가장 많고, 다음은 기타 업종(1.53대), 제조업(1.12대), 도소매업(0.35대), 음식박업(0.16대) 순으로 나타남.
- 전산 전담인력이 있는 여성기업은 6.7%였으며, 평균 전산 전담인력은 0.08명이었음.

<그림 21> 업종별 PC 및 전산전담 인력 보유율 (N=1,10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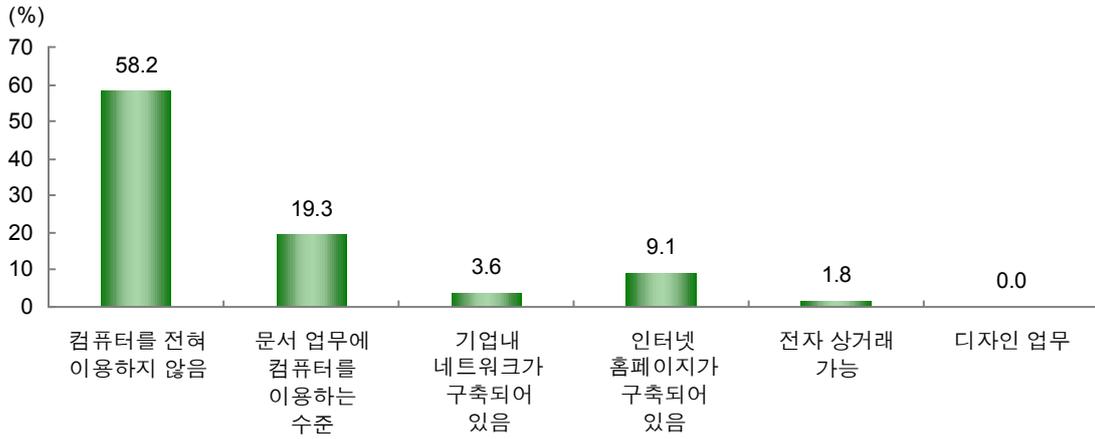
평균 보유 PC (대)	(0.63)	(1.12)	(2.49)	(0.35)	(0.16)	(1.53)
평균 전산인력 (명)	(0.08)	(0.12)	(0.42)	(0.08)	(0.03)	(0.14)

※ 참고로 2000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서의 PC보유율은 39.7%, 2002년 조사에서의 PC보유율은 76.5%로 이번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지는 것으로 판단됨.

- 여성기업 중 업무에 컴퓨터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58.2%인 반면, 업무에 이용한다는 기업은 25.0%로 실제 업무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도는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N=1,098,961)중 컴퓨터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가 58.2%, 모름/무응답이 16.8%였음.
 - 사내 컴퓨터 이용 수준을 보면 문서업무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수준이라는 기업이

1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음(9.1%), 기업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3.6%), 전자상거래 가능(1.8%) 등의 순이었음.

<그림 22> 여성기업의 정보화 수준 (중복응답) (N=1,098,961)



③ 여성기업의 경영실태

1) 2004년도 재무 현황

- 2004년 여성기업의 평균 자산총액은 약 11,500만원이며 자본금 규모는 약 7,374만원, 자기자본은 7,165만원, 부채는 3,572만원, 매출액은 8,539만원, 경상이익은 1,629만원 등으로 나타남.

<표 18> 연도별 재무 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자산총액	자본금	자기자본	부채액	매출액	경상이익
2000년	14,290	8,541	7,222	3,106	13,965	2,456
2002년	20,130	14,200	8,470	5,460	16,460	2,150
2004년	11,493	7,374	7,165	3,572	8,539	1,629

※ 2002년 조사결과의 경우 분석 단위가 백만원(소수 첫째자리까지 제시)이었던 것을 2000년, 2004년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만원 단위로 바꿨기 때문에 ‘만’ 자리 비교의 경우 정확하지 않음에 유의할 것.

-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자산규모가 42,97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은 25,505만원, 음식박업은 12,996만원 순이었음. 도소매업은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8,564만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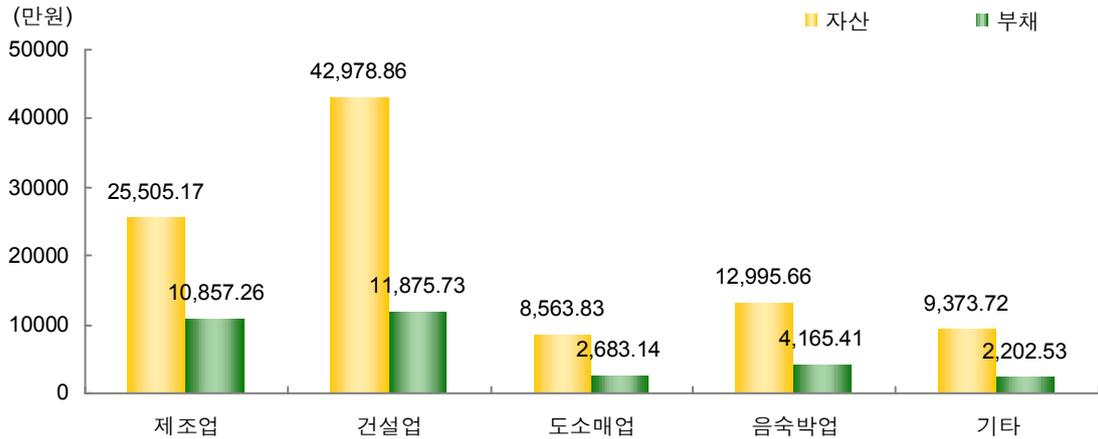
<표 19> 2004년도 재무 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사례수	자산총액	자본금	자기자본	부채액	매출액	경상이익
전 체	1,101,459	11,492.59	7,373.97	7,165.44	3,571.89	8,538.76	1,628.68
업종별							
제조업	50,318	25,505.17	12,128.26	11,579.95	10,857.26	33,335.40	3,754.16
건설업	6,513	42,978.86	26,587.28	26,129.96	11,875.73	79,594.96	6,374.47
도소매업	330,070	8,563.83	5,787.93	5,503.09	2,683.14	9,234.06	1,597.19
음식박업	433,636	12,995.66	7,932.44	7,669.00	4,165.41	4,971.21	1,326.56
기타	280,922	9,373.72	7,078.39	7,110.92	2,202.53	7,121.08	1,638.70
종업원규모							
5인 미만	1,020,276	8,946.92	5,910.29	5,694.07	2,551.65	4,826.22	1,323.95
5~19인	71,679	36,937.81	23,541.63	22,819.56	12,164.07	43,615.22	4,650.37
20인 이상	6,504	131,579.00	59,474.51	66,135.79	69,394.90	205,221.50	16,08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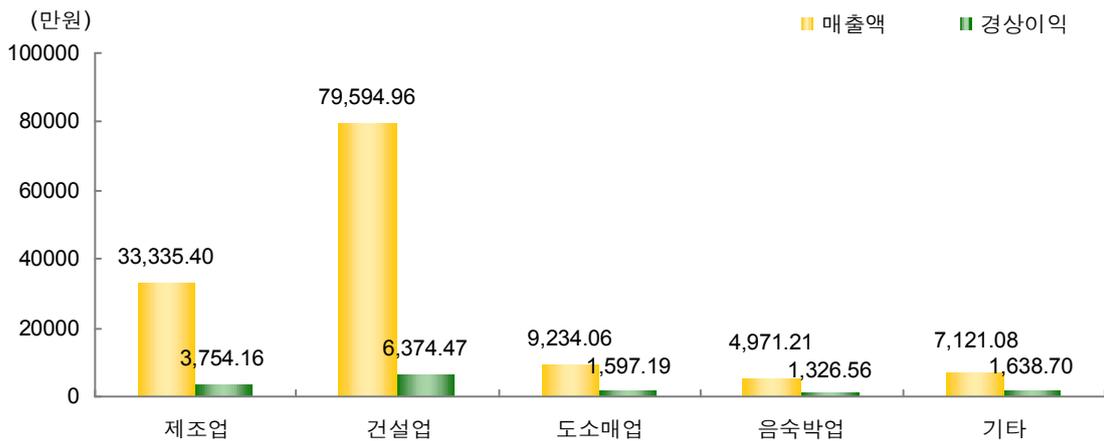
- 여성기업이 가진 부채규모는 평균 3,572만원으로,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우가 각각 11,876만원, 10,857만원씩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종업원 규모별로는 20인 이상 기업에서 약 69,395만원의 부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23> 업종별 자산 및 부채 규모(2004년 기준)



- 경상이익 규모는 전체 평균 1,629만원이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375만원, 제조업이 3,754만원, 기타 업종 1,639만원 등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 업종별 매출액 및 경상이익 규모(2004년 기준)



2) 주요 경영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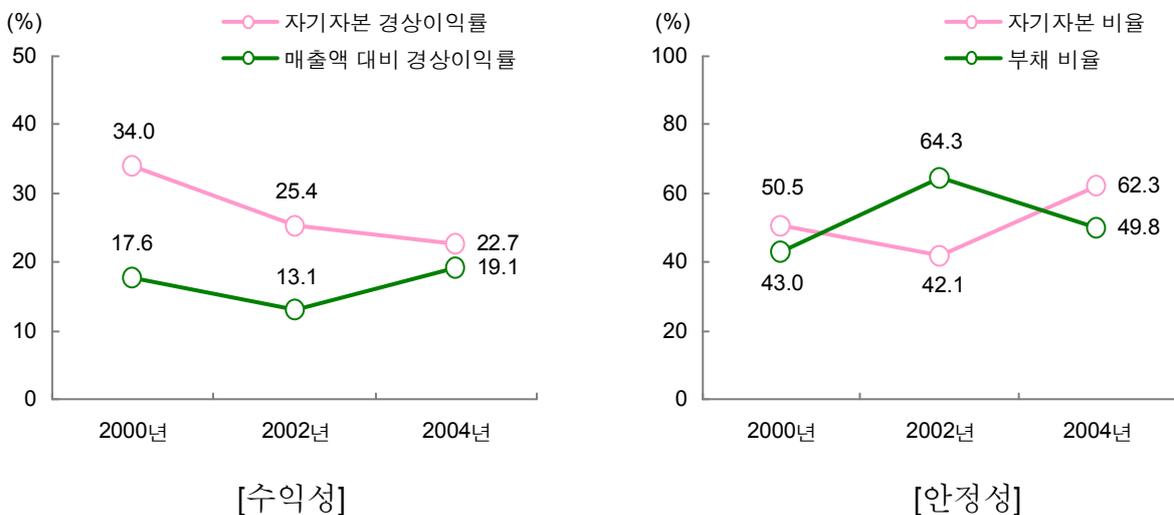
- 여성기업의 수익성 면에서 자기자본 경상이익률은 '00년, '02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해 22.7%로 낮아졌으며,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19.1%로 나타남.
- 여성기업의 안정성은 부채비율 49.8%, 자기자본 비율 62.3%로 나타남.
 - 「2002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보고서 中, 2003년 5월)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성 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173.67%, 자기자본비율이 36.54%로 나타나 여성기업의 안정성이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함을 알 수 있음.
- 여성기업의 활동성 지표를 나타내는 자기자본 회전률은 1.2배로 '00년, '02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여성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1인당 매출액(생산성)은 2,873만원으로 나타남.

<표 20> 연도별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배, 만원)

구 분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회전률	종업원1인당 매출액
2000년	34.0	17.6	43.0	50.5	1.9	3,373
2002년	25.4	13.1	64.3	42.1	1.9	4,800
2004년	22.7	19.1	49.8	62.3	1.2	2,873

<그림 25> 연도별 주요 경영지표의 변화 추이



<표 21> 2004년 업종별·종업원규모별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배, 만원)

구 분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회전률	종업원1인당 매출액
전 체	22.7	19.1	49.8	62.3	1.2	2,872.8
업종별						
제조업	32.4	11.3	93.8	45.4	2.9	3,697.8
건설업	24.4	8.0	45.4	60.8	3.0	9,279.7
도소매업	29.0	17.3	48.8	64.3	1.7	4,144.7
음숙박업	17.3	26.7	54.3	59.0	0.6	2,057.9
기타	23.0	23.0	31.0	75.9	1.0	2,335.7
종업원규모						
5인 미만	23.3	27.4	44.8	63.6	0.8	2,650.1
5~19인	20.4	10.7	53.3	61.8	1.9	5,691.7
20인 이상	24.3	7.8	104.9	50.3	3.1	6,788.1

※ 주요 경영지표의 산식

• 수익성

$$① \text{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 \frac{\text{경상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② \text{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 \frac{\text{경상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 활동성

$$\text{자기자본 회전률(배)} = \frac{\text{매출액}}{\text{자기자본}}$$

• 안정성

$$① \text{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액}}{\text{자기자본}} \times 100$$

$$② \text{ 자기자본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자산총액}} \times 100$$

• 생산성

종업원 1인당 매출액(만원)

3) 2004년도 자금조달 현황

○ 여성기업의 자금조달 형태는 자기자본 조달이 7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금융기관 대출(16.5%), 개인사채 및 기타(5.5%), 정부정책자금(0.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업종별로는 기타 업종의 경우 자기자본 조달률이 81.8%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의 경우 개인사채 및 기타 이용률이 8.2%로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 자금조달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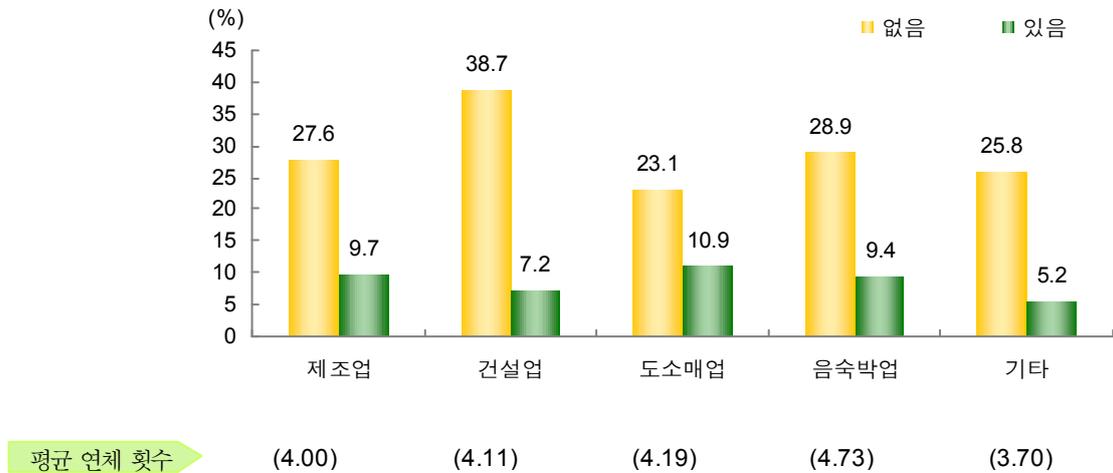
구 분	자기자본 조달	금융기관 대출	정부 정책 자금	창투자 및 벤처캐피탈 자금	회사채 및 주식 발행	개인 사채 및 기타
전 체	77.6	16.5	0.2	0.1	0.1	5.5
업종별						
제조업	73.6	17.6	0.5	0.1	0.1	8.2
건설업	77.1	18.0	0.4	0.0	0.4	4.2
도소매업	79.5	14.9	0.2	0.2	0.0	5.2
음숙박업	73.9	19.3	0.2	0.1	0.2	6.3
기타	81.8	13.7	0.3	0.0	0.1	4.2
종업원규모						
5인 미만	77.8	16.4	0.2	0.1	0.1	5.5
5~19인	74.9	18.4	0.8	0.3	0.1	5.6
20인 이상	74.8	17.5	1.5	0.1	1.1	5.1

4)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시 연체 현황

○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대출금을 상환할 때 한 번이라도 연체한 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 사업체중 8.8%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0.9%)이 타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체 경험이 있는 사업체의 평균 연체 횟수는 4.33회였음.

<그림 26> 업종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시 연체 경험 (N=1,10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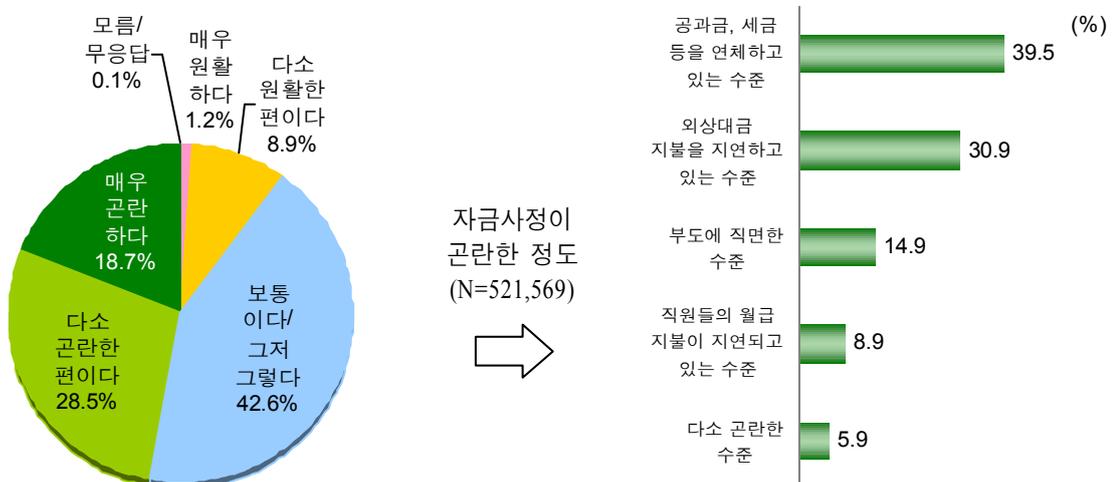
※ 전체 기준 64.9%의 응답자는 2004년에 금융기관 대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5) 최근 2년간(2003년 이후) 자금사정

○ 2003년 이후 최근 2년간 여성기업의 자금사정은 ‘(매우+다소) 곤란’하다는 응답자가 47.2%를 차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음식박업(57.2%)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곤란함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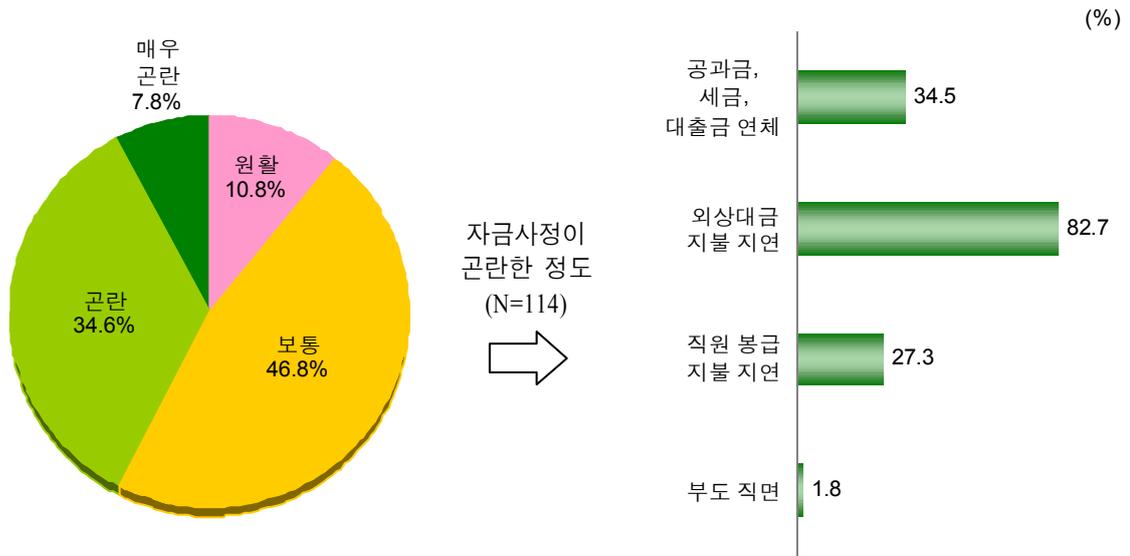
- 자금사정이 ‘(매우+다소) 곤란’하다는 기업의 구체적인 어려운 정도는 공과금 및 세금 연체(39.5%)나 외상대금 지불을 지연(30.9%)하고 있는 수준이 가장 많았으며, 부도에 직면한 수준이라는 응답도 14.9%에 달함.

<그림 27> 최근 2년간 자금 사정 (N=1,101,459)



- 「중소기업 자금실태 조사」(출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보고서」, 2003년)에서 자금사정이 '곤란'한 중소기업체는 42.4%로 조사되었으며, 그 곤란한 정도는 외상대금 지불지연(82.7%), 공과금 및 세금, 대출금 연체(34.5%), 직원봉급 지불지연(2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부도에 직면하였다는 응답은 1.8%였음.

<비교 1> 중소기업의 자금곤란 정도 (N=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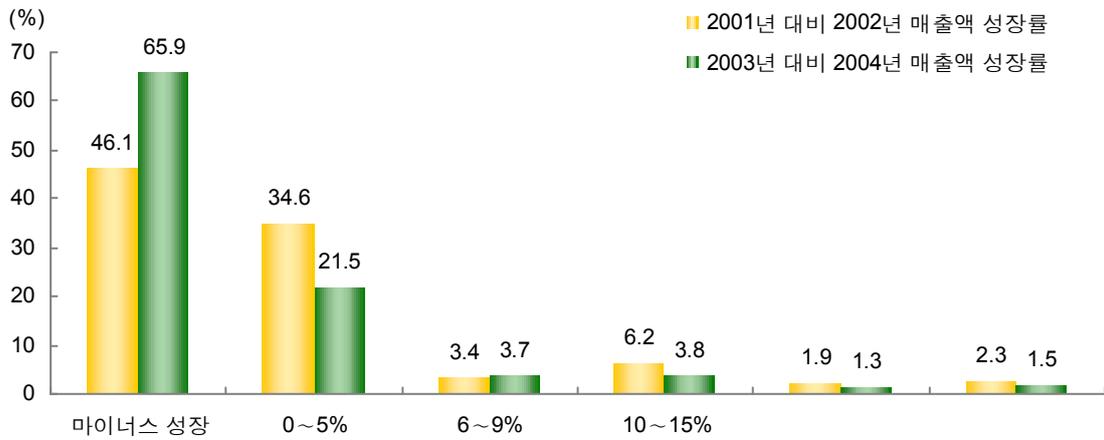


- ※ 출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보고서」, 2003년
- ※ '자금사정이 곤란한 정도'에 대한 응답의 경우 자금사정이 매우 곤란+곤란한 업체의 복수응답 비율임.

6) 전년 대비 매출액 성장률

- 2003년 대비 2004년의 매출액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기업이 6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0~5% 성장기업은 21.5%로 나타난 반면, 매출액이 10% 이상 늘었다는 기업은 전체 조사대상 사업체중 6.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03년 조사된 2001년 대비 2002년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마이너스 성장률이 46.1%로 나타나 2004년 마이너스 성장률이 2002년보다 19.8%p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8> 전년 대비 매출액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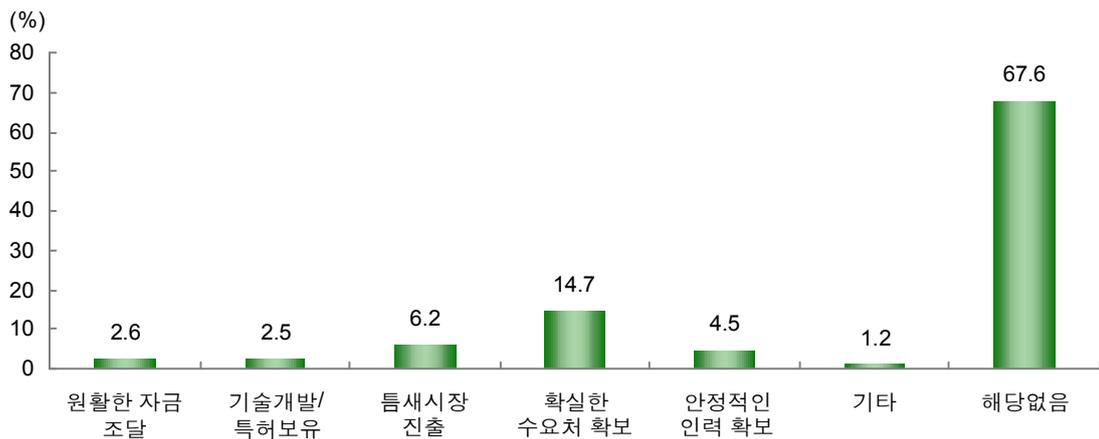


※ 2004년 응답 기준 모름/무응답(2.2%)은 분석에서 제외

7) 2004년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인

- 2004년에 플러스(+) 성장한 여성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은 확실한 수요처 확보(14.7%), 틈새시장 진출(6.2%), 안정적인 인력 확보(4.5%)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29>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인 (N=1,10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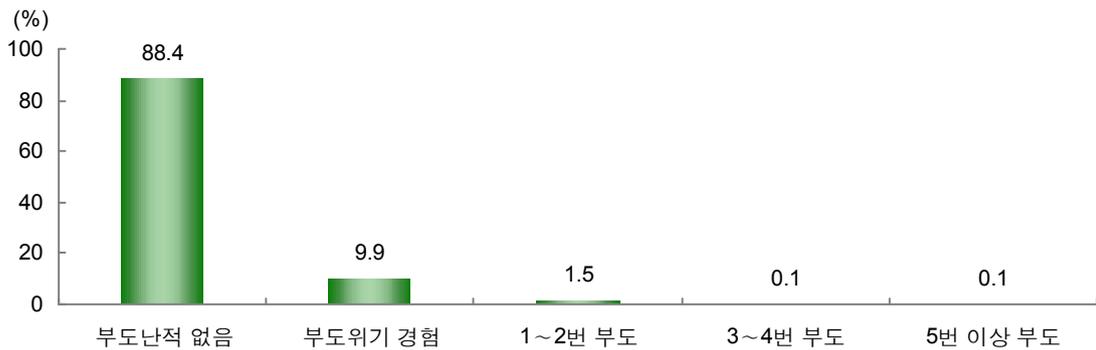
※ 모름/무응답(0.6%)은 분석에서 제외

8) 창업 이후 부도 경험

○ 여성기업 중 창업 이후 경영상 가장 큰 위기인 부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기업은 1.7% 정도였으며, 부도위기까지 간 경우도 9.9% 수준 정도로 나타났음.

- 창업이후 한 번도 부도난 적이 없는 사업체가 88.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그림 30> 창업 이후 부도 경험 (N=1,10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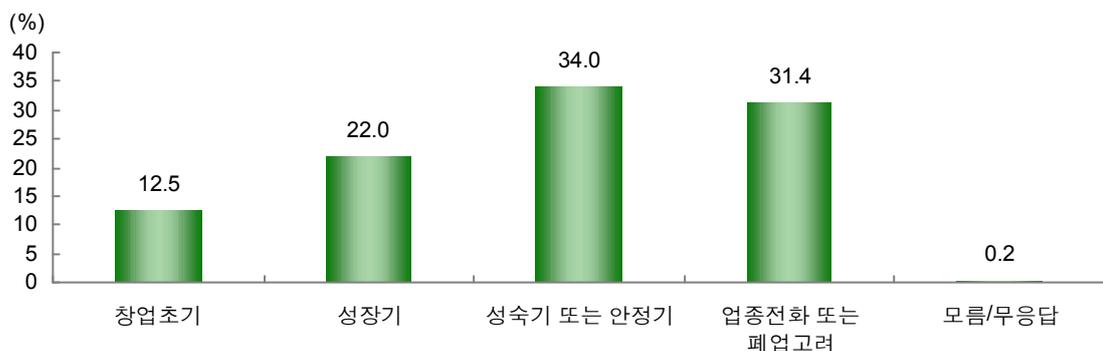


9) 현 성장 단계

○ 여성기업의 현 성장단계는 성숙기/안정기 기업이 3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업종전환/폐업고려 기업이 31.4%를 차지하였으며, 성장기 기업이 22.0%, 창업초기 기업이 12.5% 순으로 조사되었음.

- 업종전환/폐업고려에 있다는 응답이 높은 업종은 도소매업(35.7%)과 음식박업(34.6%)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종의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31> 자사 성장 단계 (N=1,10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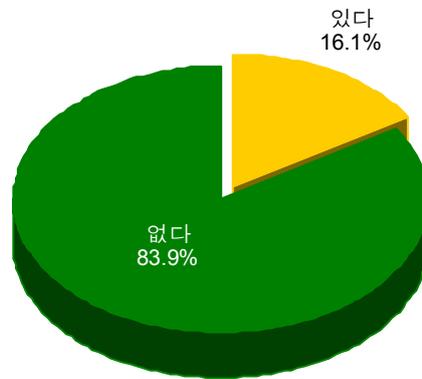


10) 향후 구조조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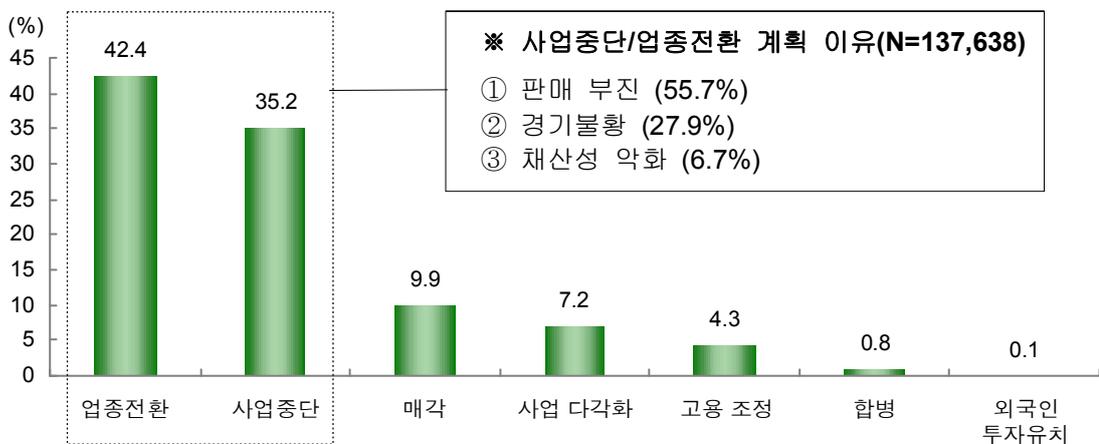
○ 향후 사업의 장래와 관련하여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는 여성기업은 16.1%로 나타남.

- 구조조정의 방향은 업종전환(42.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중단(35.2%), 매각(9.9%), 사업다각화(7.2%) 등의 구조조정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업중단이나 업종전환을 계획하는 주된 이유로 우선 판매부진(55.7%)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경기불황(27.9%), 채산성 악화(6.7%) 등의 원인이 지적되었음.

<그림 32> 향후 구조조정 계획 유무 (N=1,101,459)



<그림 33> 구조조정 계획 방향 (N=177,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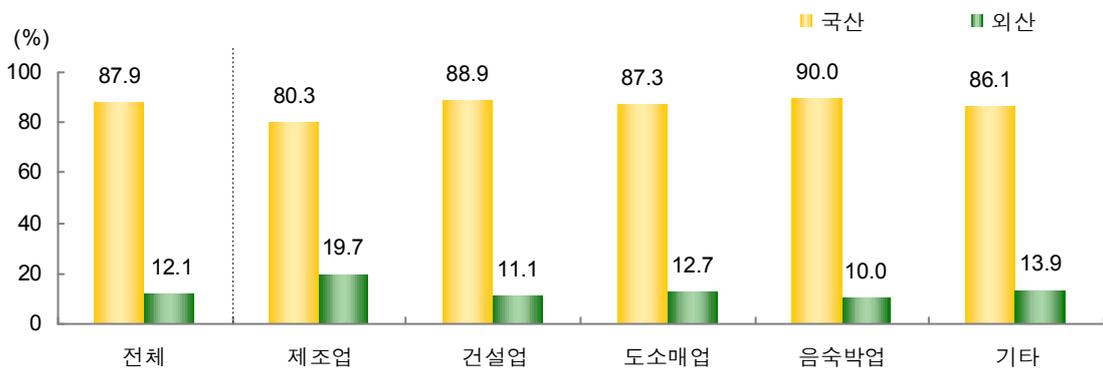


4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1) 원부자재 조달

- 여성기업의 원부자재 구매비율은 국내산 원부자재가 87.9%이고, 나머지 12.1%가 외국산 원부자재로, 여성기업이 사용하는 원부자재의 대부분은 국내산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4> 업종별 원부자재 구매 비율



※ 원부자재 조달과 상관없는 해당없음(25.8%)은 분석에서 제외.

- 원부자재 구매대금 결제방법은 순수현금 87.9%, 현금성 결제 11.4%, 어음 0.7%로, 구매대금의 99%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원부자재 구매를 위해 발행한 어음의 평균결제기일은 81.4일이었으며, 특히 제조업의 평균 어음결제기일이 88.4일로 타업종에 비해 긴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3> 원부자재 구매대금 지급 방법

(단위 : %, 일)

	사례수	순수현금	현금성 결제	어음지급	발행어음 평균 결제기일
전체	1,101,459	87.9	11.4	0.7	81.4
업종별					
제조업	50,318	80.3	14.7	4.9	88.4
건설업	6,513	76.8	19.1	4.1	83.8
도소매업	330,070	83.8	15.2	1.0	72.5
음숙박업	433,636	92.1	7.9	0.0	-
기타	280,922	88.1	11.8	0.1	87.4

2) 생산 활동(제조/건설)

- 여성기업중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는 82.2%, 중간제품이 9.4%, 부품이 8.4%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성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표 24> 최종 생산제품의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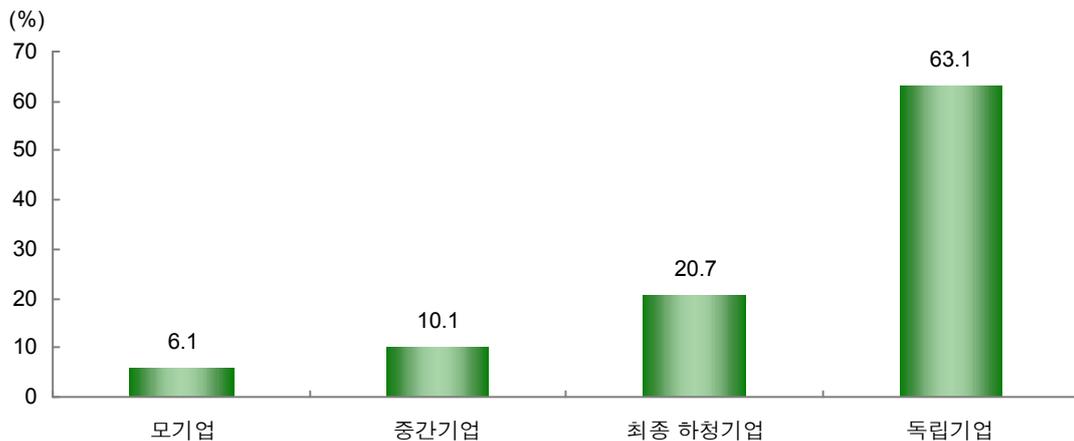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부품	중간제품	완제품
56,831	8.4	9.4	82.2

- 독립기업(수위탁거래가 없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3.1%로 가장 높았으며, 모기업(하청을 주기만 하는 모기업) 6.1%, 최종 하청기업이 20.7%, 하청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중간기업이 10.1%로 조사되었음.

- 모기업의 평균 하청기업 수는 6.27개, 중간기업과 최종 하청기업의 평균 모기업 수는 6.37개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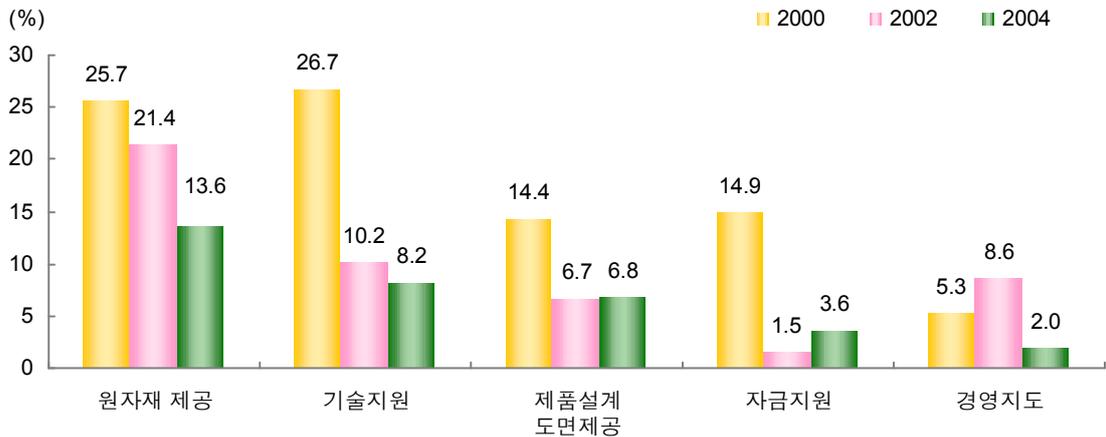
<그림 35> 수·위탁 거래 현황 (N=43,589)



- ※ 해당없음(제품생산 없음) 응답자 23.3%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항목별로 100%를 분모로 재환산한 비율을 제시함

- 여성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은 원자재 제공이 1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기술지원(8.2%), 제품설계 도면제공(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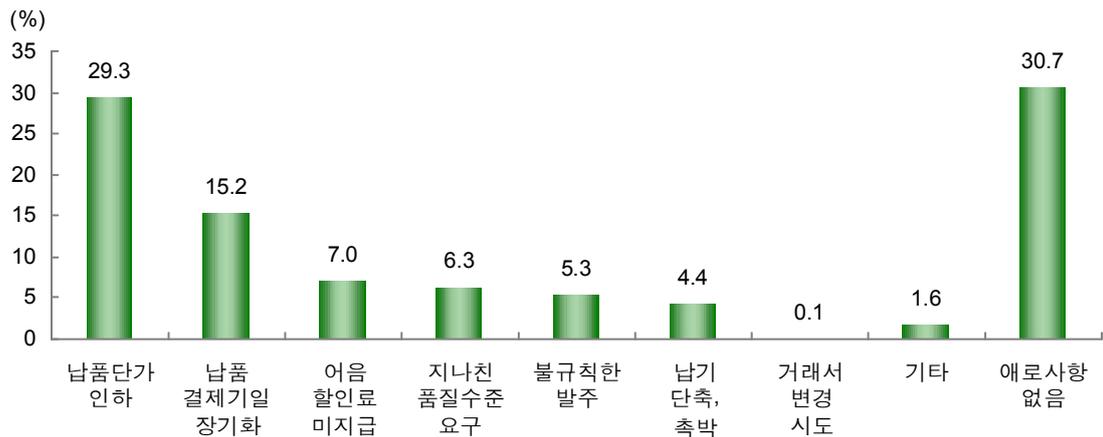
<그림 36> 모기업의 수급기업 지원내용



※ 2004년 응답 기준 상위 5개까지 제시하였음.

- 여성기업이 모기업과 수급거래시 모기업으로부터 겪은 주된 애로사항은 납품단가 인하가 2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납품결제기일 장기화 15.2%, 어음할인료 미지급 7.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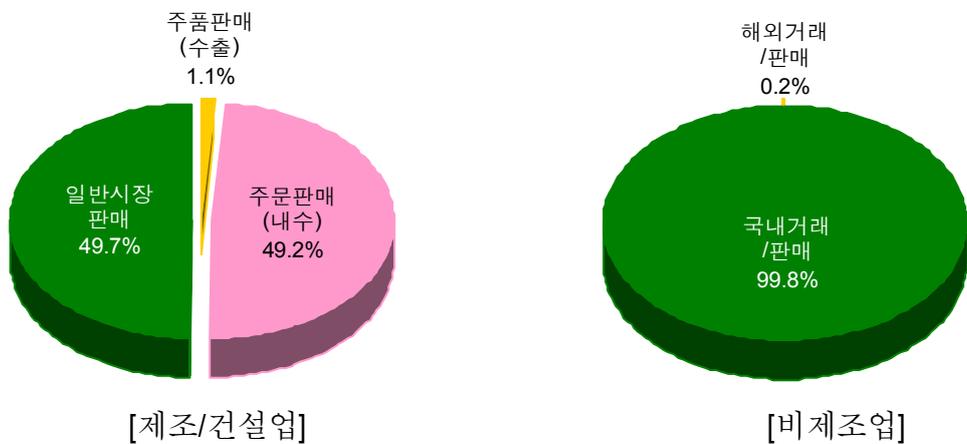
<그림 37> 수급기업의 모기업 납품거래시 애로 사항 (N=13,422)



3) 판매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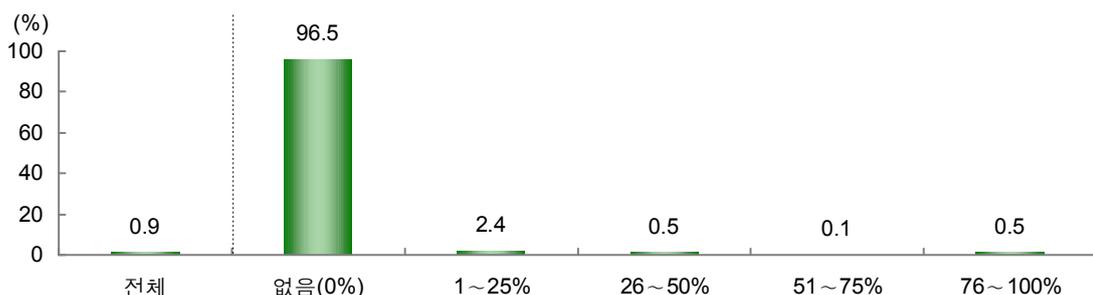
- 제조업(제조/건설)에 종사하는 여성기업인의 판매 경로별 매출액 구성비는 내수 주문 판매가 49.2%, 수출 주문판매가 1.1%, 일반시장 판매가 49.7%인 것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도소매업, 음식박업 등 11개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기업인들의 업체당 평균 판매경로별 비중은 국내 거래/판매가 99.8%, 해외 거래/판매가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8> 제품 판매 경로별 매출액 구성비



- 여성기업의 2004년 전체 매출액 중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0.9%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음.
 - 제조업의 정부/공공기관 대상 매출 비중이 3.8%(제조업: 1.5%, 건설업 21.6%)로 타 업종에 비해 공공기관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정부/공공기관 물품(요역)납품시 애로사항으로 납품단가가 낮고, 공공기관 구매 정보를 얻기 힘든 점을 지적하였음.

<그림 39> 업종별 정부/공공기관 대상 매출 비중 (N=1,101,459)



- 여성기업이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은 현금수취 비중이 99.0%, 어음수취 비중이 1.0%로 현금수취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타업종에 비해 어음수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제조업 10.1%, 건설업 6.9%).
-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의 평균 결제기일은 64.0일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90.5일, 제조업이 89.4일로 타업종에 비해 현금화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원부자재 구매시 발행한 구매대금 어음의 평균 결제기일이 81.4일이었으므로 구매대금보다 판매대금의 자금회전이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볼 수 있음.

<표 25> 판매대금 수취 방법

(단위 : %, 일)

	사례수	현금 수취	어음 수취	수취어음 평균결제 기일
전 체	1,101,459	99.0	1.0	64.0
제조업	50,318	89.9	10.1	89.4
건설업	6,513	93.1	6.9	90.5
도소매업	330,070	99.1	0.9	47.7
음숙박업	433,636	99.8	0.2	7.0
기타	280,922	99.5	0.5	68.6

4) 투자 및 사업의 확대

- 2004년 여성기업의 R&D 투자기업비율은 평균 4.1%로 2002년 2.9%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전체(N=1,101,459) 업체당 평균 R&D 비용은 99.5만원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의 R&D 투자비용이 각각 703.1만원, 744.2만원으로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투자업체(N=45,160)당 평균 R&D 비용은 2,427.1만원으로 2002년의 3,057만원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04년 여성기업의 설비투자 비율은 24.6%, 업체당(N=1,101,459) 평균 투자액은 470.9만원이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26.3%의 사업체에서 평균 1,847.2만원을, 건설업에서 38.3%의 사업체에서 평균 1,490.9만원을 투자해 타업종에 비해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남.
 - 투자업체(N=270,959)당 평균 설비투자 비용은 1,914.4만원으로 2002년의 2,208만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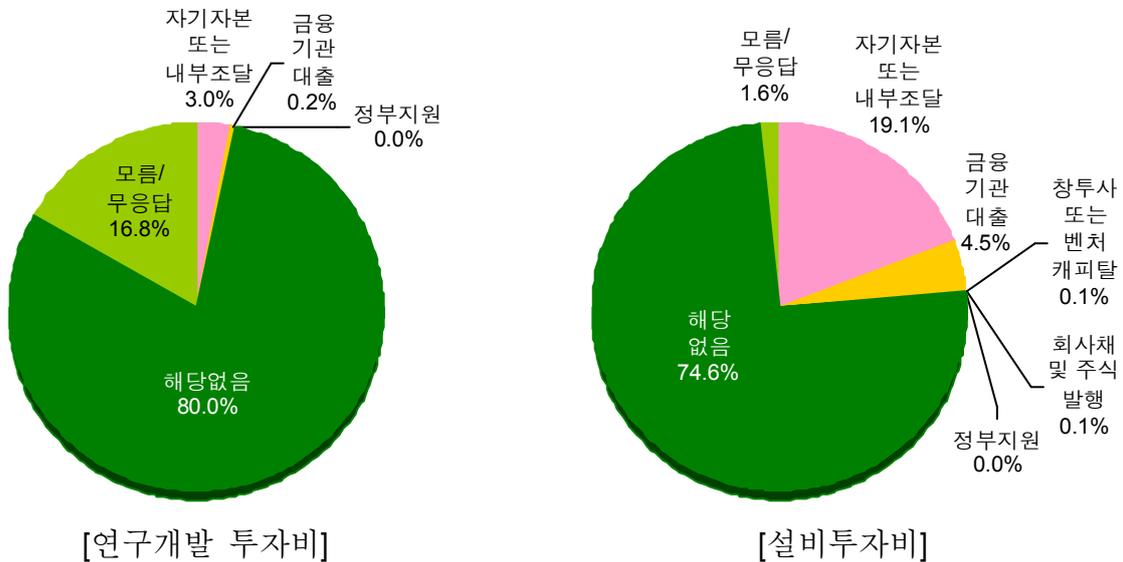
<표 26>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실적

(단위 : %, 만원)

	사례수	연구개발(R&D) 실적		설비투자 실적	
		연구개발투자 기업 비율	연구개발 평균 비용	설비투자 기업 비율	설비투자 평균 비용
전 체	1,101,459	4.1	99.5	24.6	470.9
업종별					
제조업	50,318	8.2	703.1	26.3	1,847.2
건설업	6,513	9.3	744.2	38.3	1,490.9
도소매업	330,070	2.1	18.1	18.7	340.4
음숙박업	433,636	1.3	9.5	28.4	329.4
기타	280,922	9.9	211.0	25.1	572.6

○ R&D와 설비투자에 소요된 비용은 주로 자기자본 또는 내부조달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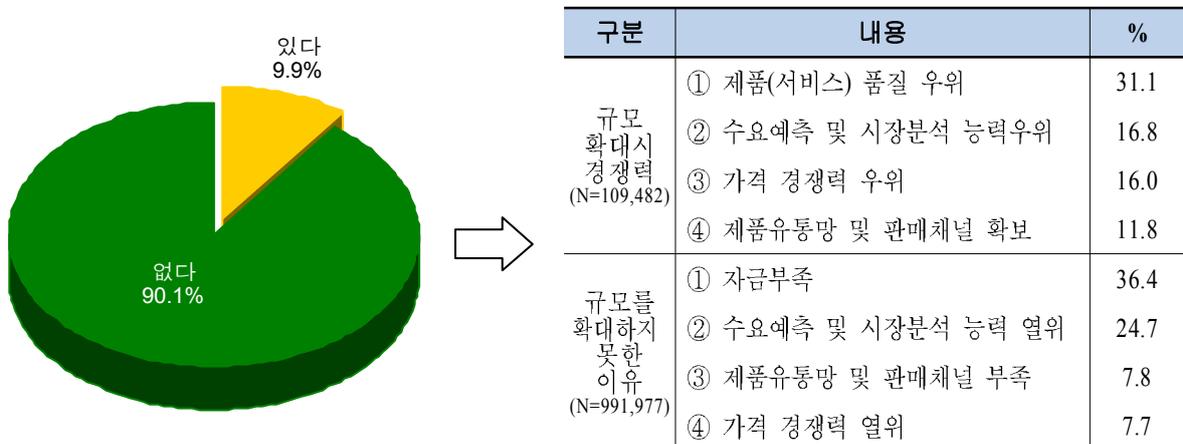
<그림 40>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비용의 조달 방법 (N=1,101,459)



○ 창업시보다 공장증설, 지점설치, 판매장 확대 등의 규모 확대를 경험한 여성기업은 전체 업체 중 9.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규모 확대가 가능했던 주된 경쟁력은 제품(서비스) 품질의 우위(31.1%), 수요예측 및 시장분석 능력 우위(16.8%), 가격 경쟁력 우위(16.0%)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를 확대하지 못한 기업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금부족(36.4%)과 수요예측 및 시장분석 능력 열위(24.7%)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41> 창업시보다 규모 확대 경험 유무 (N=1,10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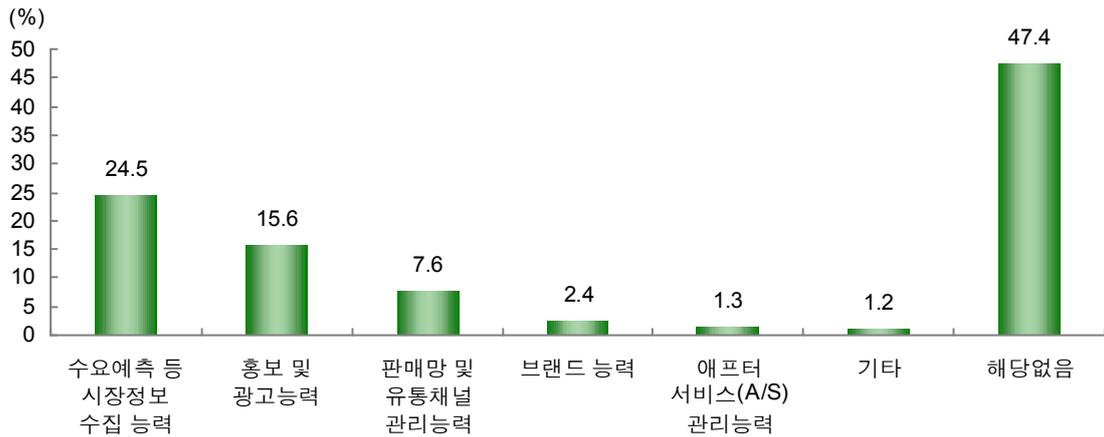


※ 상위 응답 기준 4개까지 제시하였음.

5) 마케팅 및 디자인

- 여성기업의 취약 마케팅 분야는 수요예측 등 시장정보 수집능력(24.5%)과, 홍보 및 광고능력(15.6%)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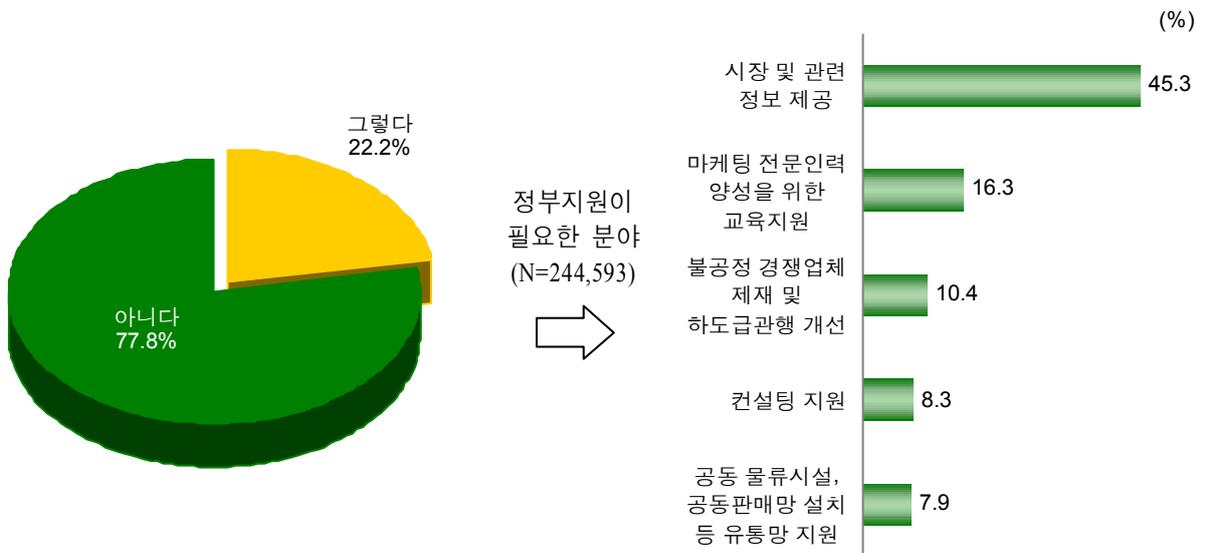
<그림 42> 취약 마케팅 분야 (N=1,101,459)



- 여성기업 가운데 10개중 2개 업체(22.2%) 정도는 마케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 분야는 시장 및 관련정보 제공(45.3%)과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16.3%) 등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 마케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N=1,101,459)



※ 상위 응답 기준 5개까지 제시하였음.

- 「중소제조업 마케팅 활동 및 애로요인 조사」(출처 : 중소기업활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보고서」, 2003년)에서 중소기업의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꼽은 분야는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지원(41.4%)과 유용한 해외시장 정보제공(36.4%) 등으로 여성기업의 정부지원 희망분야와 비슷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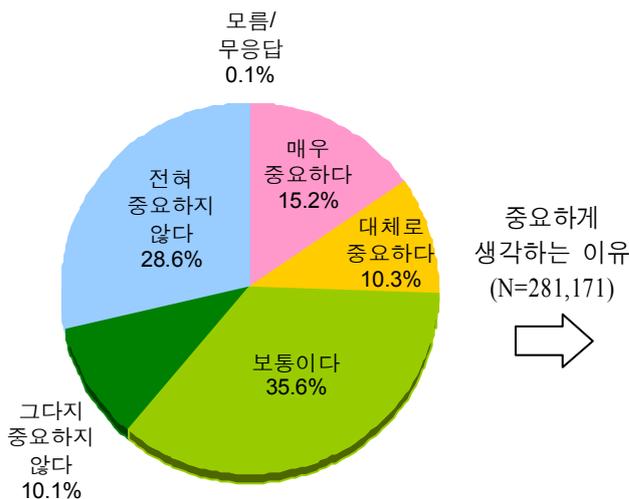
<비교 2> 중소기업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중복응답, 상위 5개)

내용	%
①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지원	41.4
② 유용한 해외 시장 정보 제공	36.4
③ 해외 전시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34.7
④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육성지원	33.4
⑤ 마케팅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32.6

※ 출처 : 중소기업활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보고서」, 2003년

- 디자인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기업은 4개 중 1개 업체 정도(25.5%)였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37.5%), 도소매업(29.5%), 건설업(28.4%) 순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44> 제품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 인식 (N=1,101,459)



내용	%
①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15.2
②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12.2
③ 시각적 효과의 중요성	11.0

※ 응답율 10% 이상 응답자만 제시

<표 27> 업종별 제품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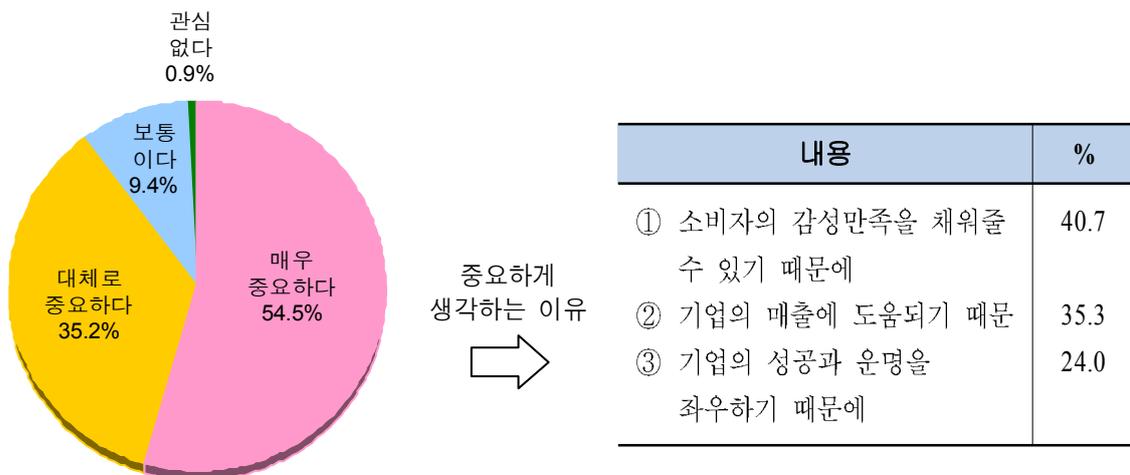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전 체	1,101,459	15.2	10.3	35.6	10.1	28.6	0.1
업종별							
제조업	50,318	25.5	12.0	35.5	12.4	14.6	-
건설업	6,513	18.2	10.2	43.7	8.8	19.1	-
도소매업	330,070	19.3	10.2	36.0	10.0	24.5	-
음숙박업	433,636	11.6	12.2	36.7	11.1	28.0	0.3
기타	280,922	14.0	7.3	33.2	8.3	37.2	-

○ 「중소기업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조사」(출처 : 중소기업활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보고서」, 2003년)에서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89.7%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여성기업에 비해 매우 높았음.

-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소비자의 감성만족(40.7%)은 물론 기업 매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35.3%)인 것으로 나타남.

<비교 3> 디자인의 중요성 인식 및 그 이유 (N=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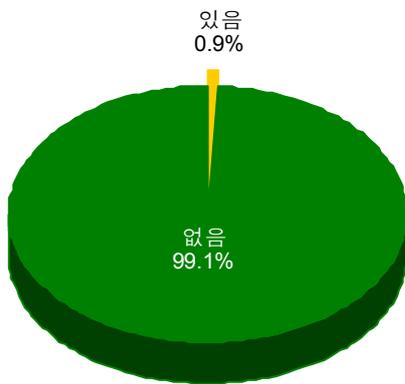
※ 출처 : 중소기업활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보고서」, 2003년

6) 해외 기업 활동

○ 2004년에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여성기업은 0.9%로 극히 적었으며, 아직까지는 대다수 여성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해외시장 개척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문항에서 해당없음, 즉 해외시장 개척 경험 없음 응답자가 98.3%에 달함.

<그림 45> 2004년 해외 수출 실적 (N=1,101,459)



해외시장 개척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N=18,725)
→

내용	%
① 해외 마케팅 경비 부담	17.7
① 해외 시장 정보 부족	17.7
① 물류비용 부담	17.7
② 언어장벽(계약협상, 통번역 등)	11.8
② 무역 전문 인력 부족	11.8

※ 해당없음 즉, 해외시장 개척 경험이 없는 여성기업이(98.3%)이 대부분을 차지함. 위의 결과는 해당응답자(N=18,725)를 대상으로 재환산한 결과임.

○ 여성기업의 주된 해외시장 정보수집 경로는 개인적인 연고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3.4%)과 KOTRA, 무역협회 등의 무역관련 단체(1.9%), 인터넷(1.2%)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보수집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수출 주력시장의 현지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점을 꼽음.

<표 28> 해외 시장 정보 수집 경로 및 애로사항 (제조/건설) (N=56,831)

구분	내용	%
해외시장 정보수집 경로	① 개인적인 연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고 있다	3.4
	② KOTRA/무역협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해외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1.9
	③ 해외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얻고 있다	1.2
	④ 내부자료와 외부 보고서를 이용하고 있다	0.8
	⑤ 해외지사 통해 직접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0.4
해외시장 정보수집시 애로사항	① 수출 주력시장의 현지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못한다	2.5
	② 수출지역 현지 외국조사 기관과의 접촉에 어려움이 많다	1.3
	③ 정보가 유료로 제공되므로 비용이 든다	1.2
	④ 유관기관에서의 제공 정보로는 불충분하다	0.7
	⑤ 해외 지사들의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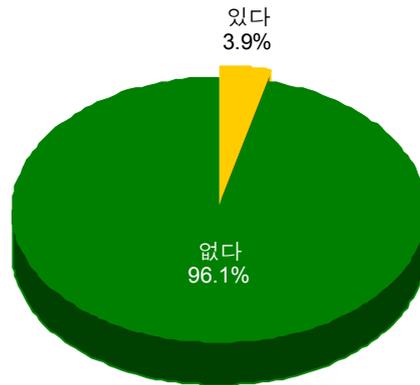
※ 상위 응답 기준 5개까지 제시하였음.

- 2004년 현재 해외에 판매지점, 생산공장 등의 해외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기업은 0.6% 정도이며,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향후 해외지사를 설립할 계획이 없는 여성기업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6> 해외지사 보유 여부(제조/건설)
(N=56,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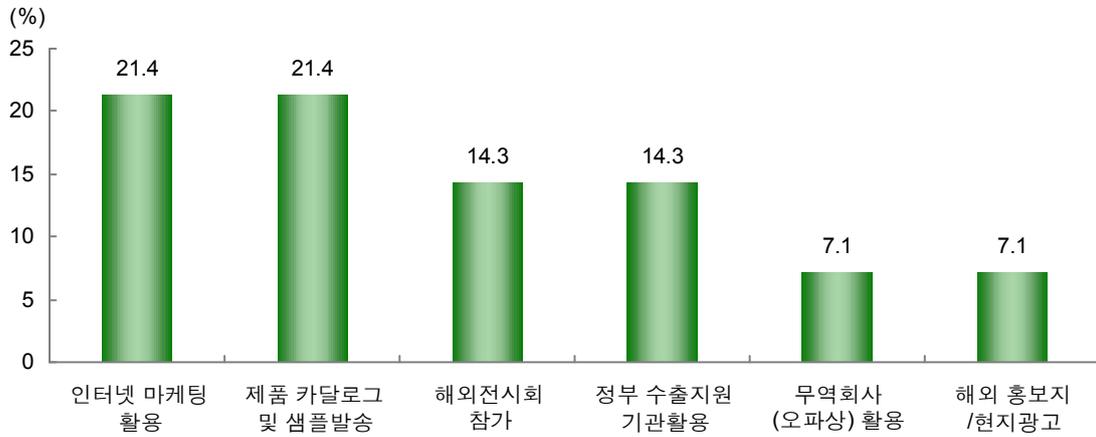


<그림 47> 향후 해외지사 설립계획 여부(제조/건설)
(N=56,493)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한 해외마케팅 수단 중 인터넷 마케팅의 활용(21.4%)이나 제품 카달로그 및 샘플 발송(21.4%) 등의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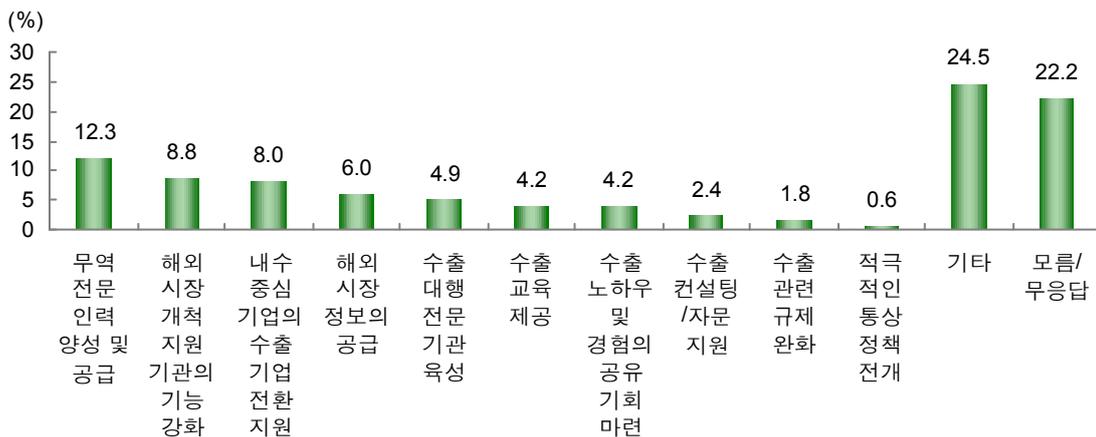
<그림 48>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수단 (N=15,420)



※ 해당없음(98.6%)이 대부분을 차지함. 위의 결과는 해당응답자(N=15,420)를 대상으로 재환산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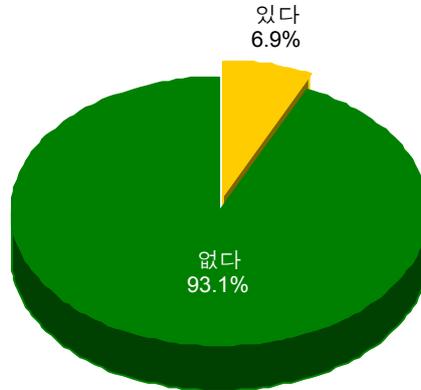
- 여성기업의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으로 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12.3%), 해외시장 개척 지원기관의 기능강화(8.8%), 내수중심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지원(8.0%) 등을 주로 지적함.

<그림 49> 여성기업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N=1,101,459)



○ 향후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는 6.9%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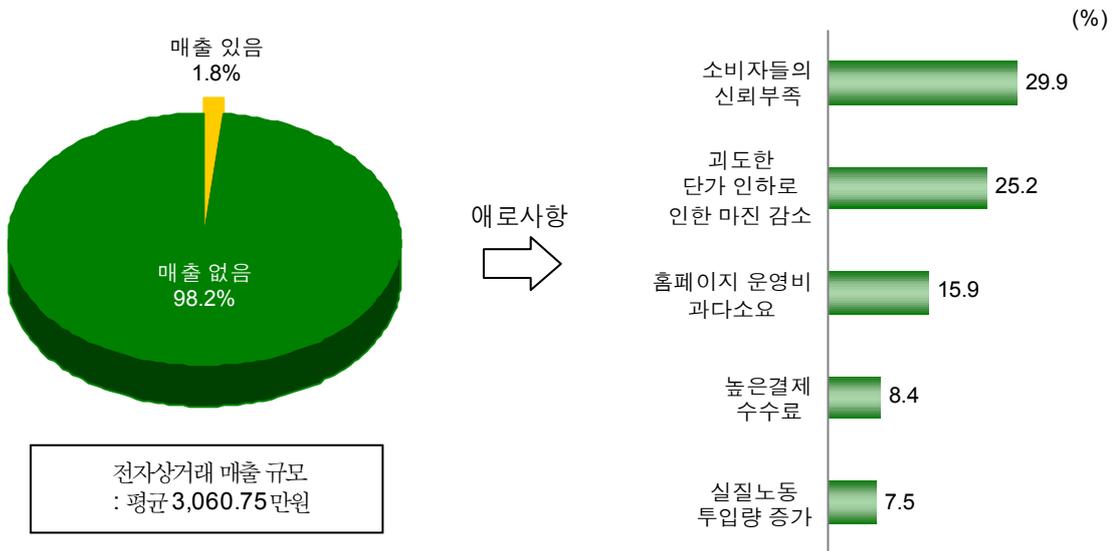
<그림 51> 전자상거래 시행계획 여부 (N=1,101,459)



○ 2004년에 전자상거래를 통해 매출을 올린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은 전체의 1.8%였으며, 이들의 평균 전자상거래 매출규모는 3,061만원 정도였음.

- 전자상거래 매출 확대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소비자들의 신뢰 부족(29.9%)과 과도한 단가인하로 인한 마진 감소(25.2%)를 꼽음.

<그림 52> 전자상거래 매출 현황 및 애로사항 (N=1,10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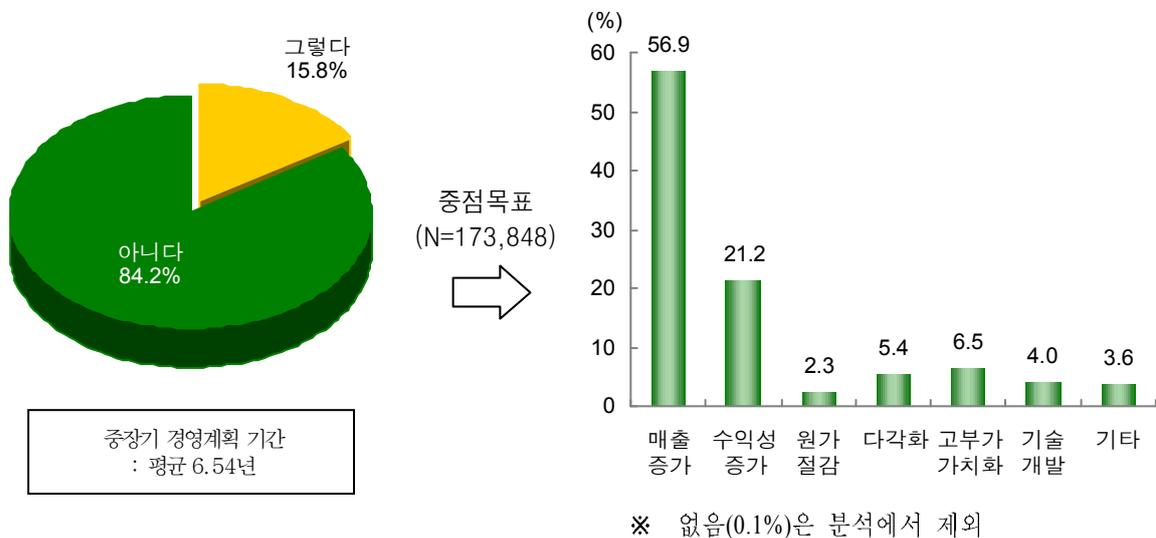
※ 상위 5개 내용 제시.
 해당없음(89.3%)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해당응답자(N=117,856)를 Base로 재환산한 결과임

8) 경영활동 향후 비전

○ 중장기 경영계획을 가진 여성기업은 15.8% 정도였으며 평균 중장기 경영계획 기간은 6.54년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중장기 경영계획을 가진 기업들의 중점 목표는 매출 증가(56.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익성 증가(21.2%)를 꼽아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익증대가 가장 큰 관심사임을 알 수 있음.

<그림 53> 중장기 경영계획 및 중점 목표



○ 여성기업인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경영분야는 시장개척(28.6%), 원가절감(13.4%), 시장정보의 입수(9.8%), 광고선전(8.7%) 등으로 나타남.

- 타업종에 비해 건설업은 시장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편, 도소매업은 시장정보의 입수에, 음식박업과 기타 업종은 광고선전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0> 업종별 중점 경영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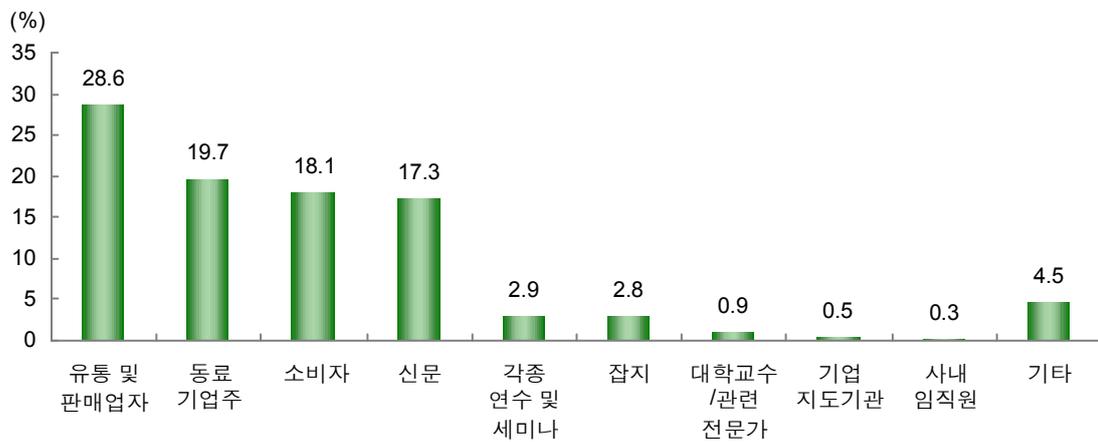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시장개척	원가절감	시장 정보의 입수	광고 선전	기존 제품의 고급화	신제품 개발
전체	1,101,459	28.6	13.4	9.8	8.7	7.3	6.6
업종별							
제조업	50,318	33.6	18.4	1.8	3.2	9.8	11.0
건설업	6,513	45.4	16.6	6.3	1.8	2.2	3.5
도소매업	330,070	32.9	14.0	16.8	4.8	7.1	4.1
음숙박업	433,636	25.0	17.1	5.4	10.7	9.4	9.9
기타	280,922	27.8	6.1	10.0	11.4	3.8	3.8

※ 전체 기준 응답률 5% 이상만 제시하였음.

- 여성기업인들이 평소 기업정보를 획득하는 주된 경로로 유통 및 판매업자(28.6%)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료기업주(19.7%), 소비자(18.1%), 신문(1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4> 기업정보의 수집 경로 (N=1,101,459)



※ 없음(4.2%), 모름/무응답(0.2%)은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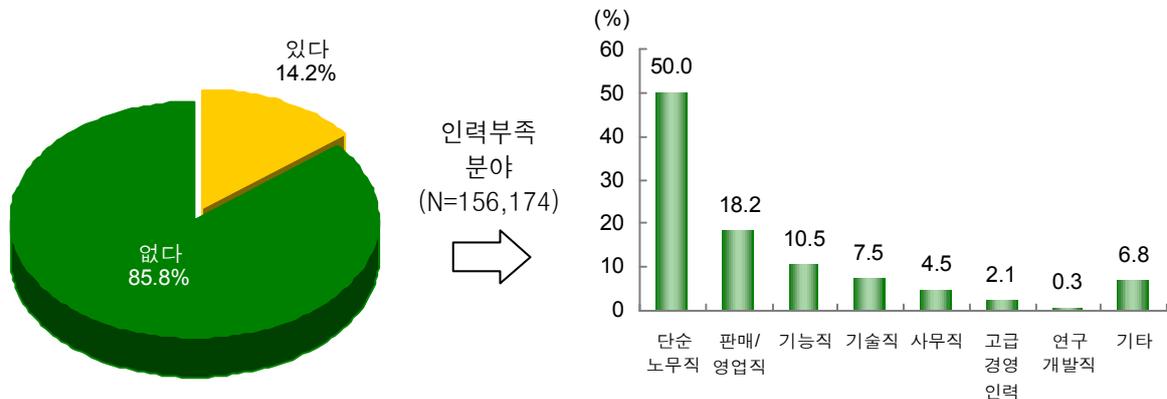
5 여성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

1) 최근 2년간(2003년 이후) 인력 부족 현황

- 최근 2년간 인력부족으로 경영상의 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인은 14.2%였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25.3%), 제조업(18.0%), 음식박업(17.3%), 기타 업종(16.3%), 도소매업(7.4%)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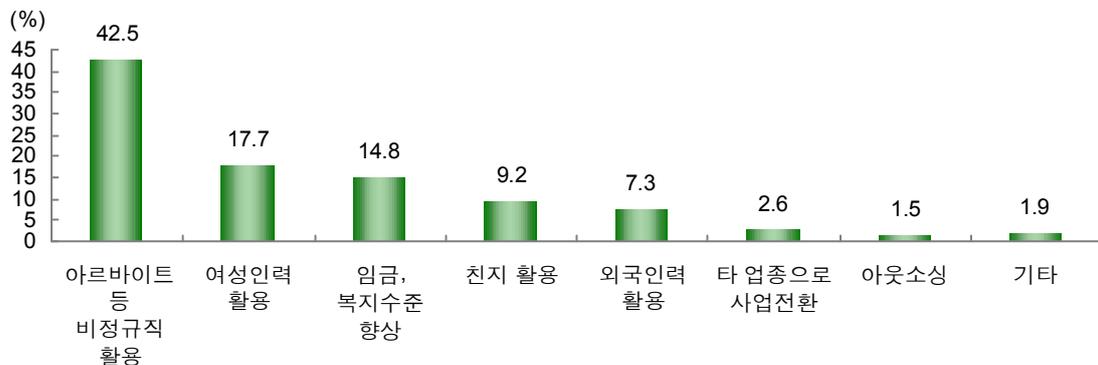
- 여성기업들이 인력부족을 가장 많이 겪은 분야는 단순노무직이 50.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판매/영업직이 18.2%, 기능직이 10.5% 등으로 나타남.

<그림 55> 인력부족 경험 현황 (N=1,101,459)



- 향후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업차원의 자구 대책으로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을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인력을 활용(17.7%)하거나 임금, 복지수준 향상(14.8%)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그림 56>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N=156,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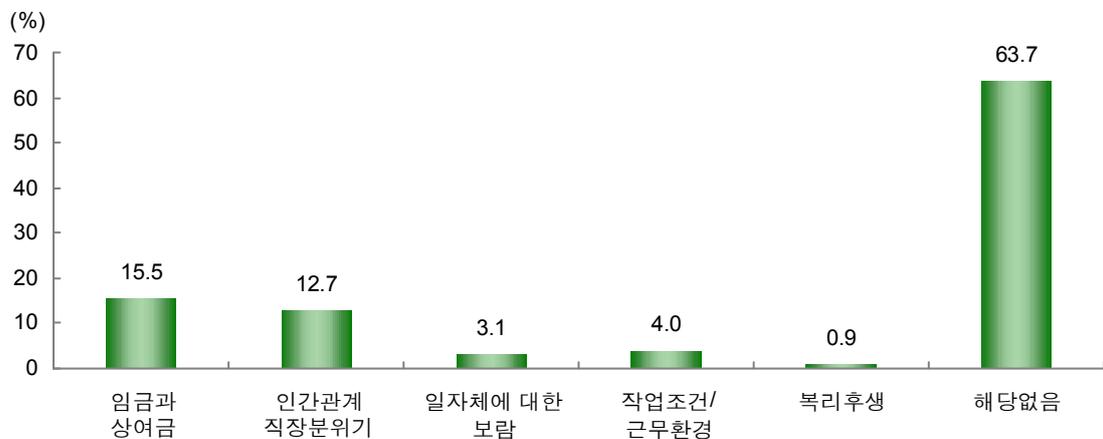
※ 없음(1.9%), 모름/무응답(0.6%)은 분석에서 제외

2) 종업원 근무의욕 증진 방안

○ 여성기업이 종업원의 근무의욕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시하는 사안은 임금과 상여금 (15.5%) 및 인간관계/직장 분위기 조성(12.7%) 등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체 여성기업 중 63.7%는 종업원 근무의욕 증진을 위해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중에는 1인 사업체도 다수 차지하고 있음에 주의).

<그림 57> 종업원 근무의욕 증진방안 (N=1,10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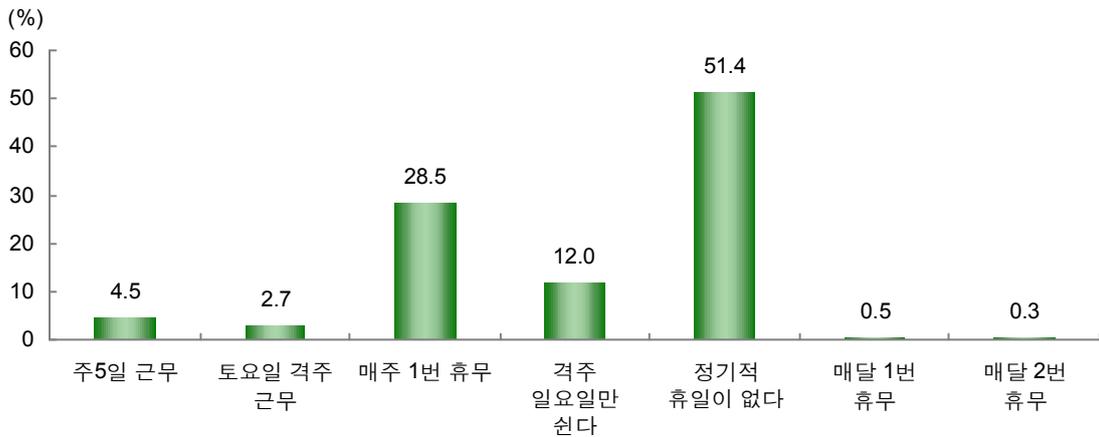


3) 주5일 근무제 도입 현황

○ 110만 여성기업체 중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4.5% 정도이며, 아직까지는 과반수 이상(51.4%)의 여성기업이 정기 휴일이 없는 상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매주 1번 휴무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과 음식박업은 정기적 휴일이 없는 형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 기타 업종의 경우 매주 1번 휴무이거나 정기적 휴일이 없는 형태가 비슷한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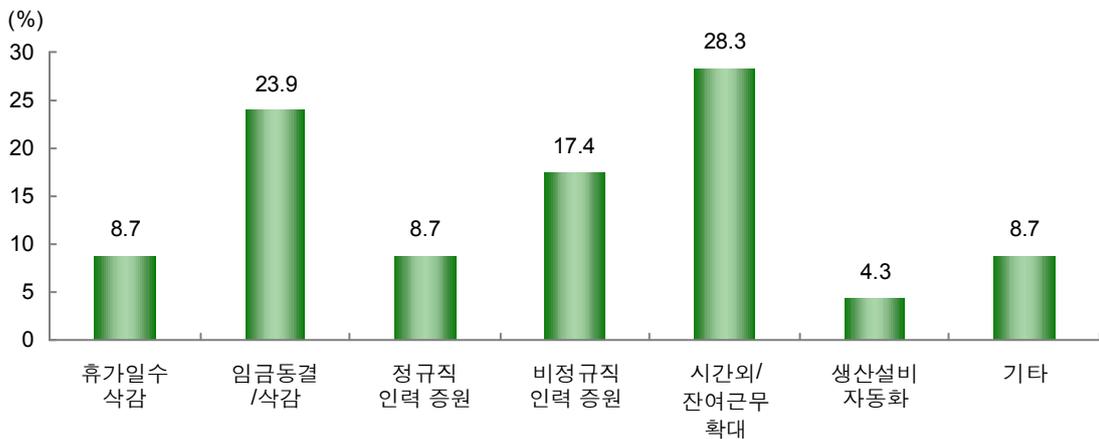
<그림 58> 휴일 근무 형태 (N=1,101,459)



○ 향후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시간외 잔여근무를 확대하겠다(28.3%)와 임금동결 및 삭감조치 (23.9%), 비정규직 인력 증원(17.4%)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전체 여성기업 중 95.3%의 응답자가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9> 주5일 근무제 도입시 회사차원의 대응책 (N=50,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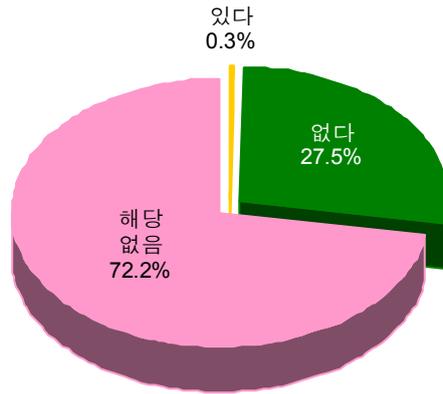


※ 해당없음(95.3%) 응답자가 대부분을 차지함. 위의 결과는 해당응답자(N=50,667)를 Base를 재산출한 결과임

4) 최근 2년간(2003년 이후) 노사분규 여부

- 최근 2년간 사내에서 단체행동이나 노사분규가 일어난 여성기업체는 0.3%에 불과하였음.

<그림 60> 사내 단체행동/노사분규 경험 유무 (N=1,10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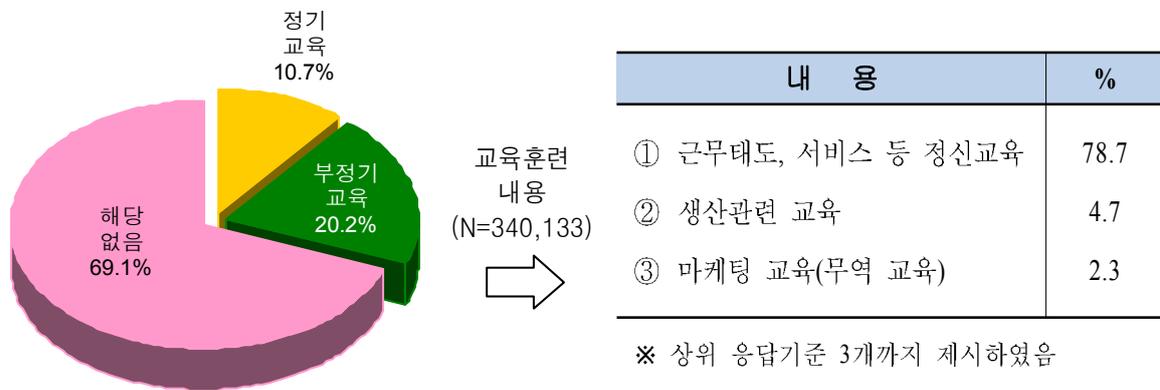
⑥ 여성기업의 교육 및 연수

1) 종업원 교육 및 연수 현황

○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기업은 10.7%,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20.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교육훈련의 주된 내용은 근무태도, 서비스 등 정신교육이 7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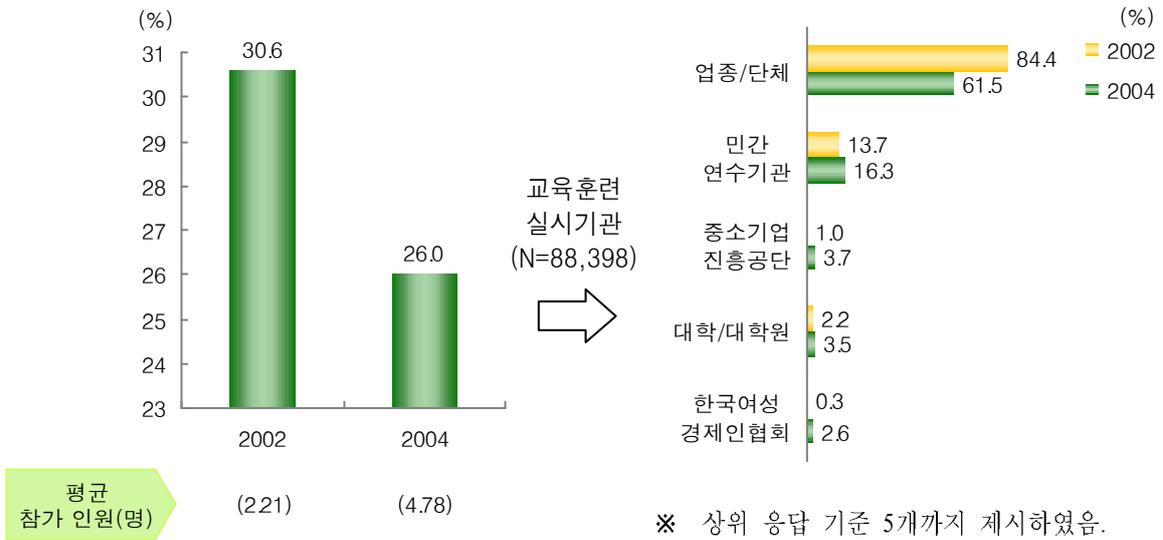
<그림 61> 종업원 교육(훈련) 실시 여부 (N=1,101,459)



○ 여성기업 중 외부기관의 교육훈련에 참가한 업체는 26.0%로 2003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평균 참가인원은 2.21명에서 4.7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외부 교육훈련기관은 업종 관련 협회 및 단체가 6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민간연수기관(16.3%), 중소기업진흥공단(3.7%) 등이 있었음.

<그림 62> 외부기관 교육 훈련 참가 경험율 (N=340,133)



○ 외부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받은 내용으로는 마케팅(35.5%), 정보화(12.7%), 생산관련 기술(19.5%), 경제동향/세무(각 8.9%) 등이 있었음.

<표 31> 업종별 외부 교육훈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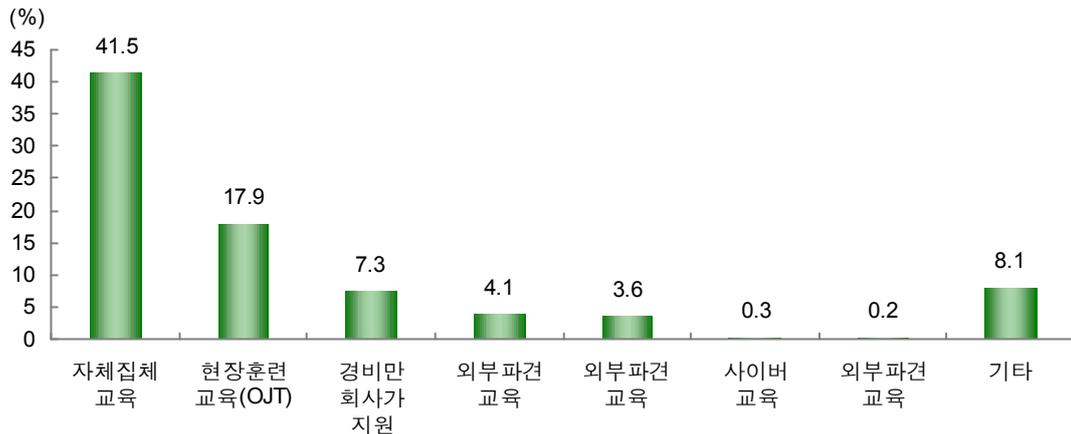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마케팅	정보화	생산관련 기술	경제동향	세무
전 체	88,398	35.5	21.7	19.5	8.9	8.9
업종별						
제조업	3,343	11.2	15.7	53.7	7.1	9.6
건설업	979	5.9	16.6	33.9	6.7	16.7
도소매업	12,194	46.8	23.8	13.5	40.9	1.0
음숙박업	35,838	51.9	13.1	14.7	3.5	14.5
기타	36,044	18.5	30.2	22.8	3.6	5.7

※ 상위 응답 기준 5개까지 제시하였음.

- 여성기업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종업원 교육훈련 방안은 자체집체교육(41.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현장훈련교육(OJT)(17.9%), 능력개발은 종업원 자신이 하고 경비만 회사가 지원(7.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기업들이 외부 교육훈련기관보다는 사내 자체 교육을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음.

<그림 63> 효과적인 종업원 교육훈련 방법 (N=340,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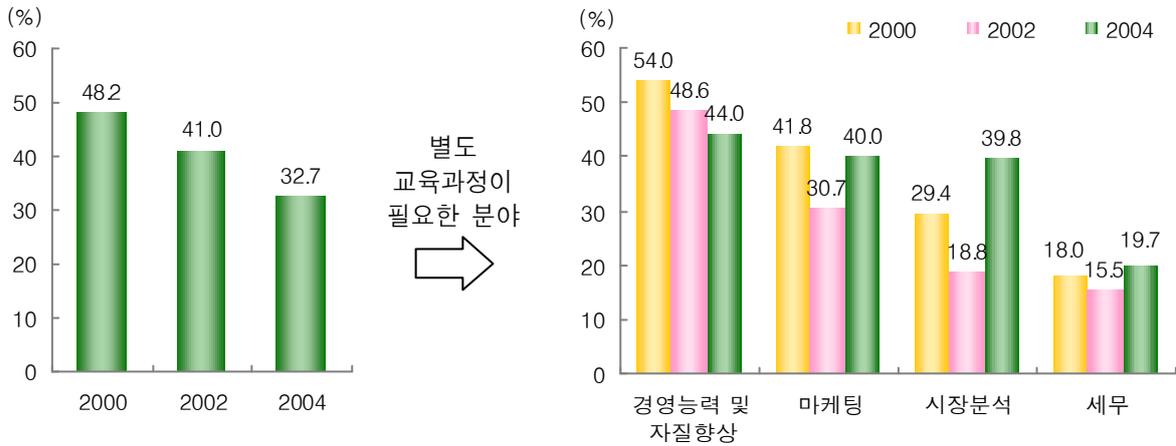


※ 모름/무응답(17.1%)은 분석에서 제외

2) 여성기업주의 교육 및 연수 현황

- 최근 2년간 여성기업주 대상의 교육/연수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8.9%였으며, 이러한 여성기업주 대상의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교육기관은 주로 업종 관련 협회 및 단체(59.0%)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체 여성기업 중 여성기업주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로 2000년(48.2%), 2002년(41.0%)에 이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할 경우 주로 필요한 교육분야는 경영능력 및 자질향상(44.0%), 마케팅(40.0%), 시장분석(39.8%) 등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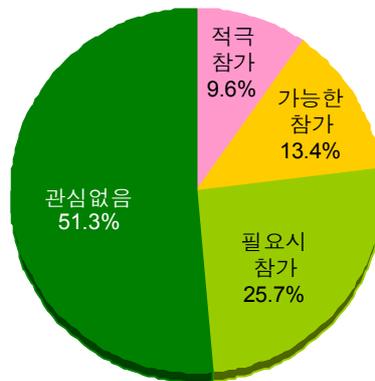
<그림 64> 여성기업주를 위한 별도 교육과정의 필요성 및 내용



※ 상위 4개 항목만 제시함

- 향후 여성 경제인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 부여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9.6%에 불과하였으며, 가능한 참가하겠다 13.4%, 필요한 경우만 참가하겠다 25.7%로 나타난 반면, 별로 관심없다는 응답자는 과반수(51.3%)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65> 교육훈련 기회시 참여 의향 (N=1,10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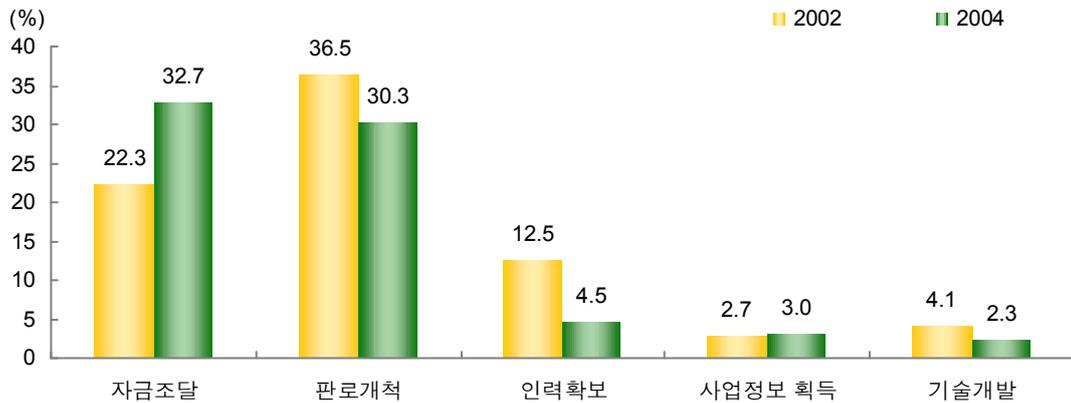
7 여성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1) 경영상의 애로사항

○ 여성기업이 기업활동을 영위해 나가며 가장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자금조달(32.7%)과 판로개척(30.3%)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애로사항은 판로개척(제조업 37.9%, 도소매업 38.8%)이, 건설업과 음식박업의 애로사항은 자금조달(건설업 41.9%, 음식박업 37.8%)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음.

<그림 66>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 2004년 응답 기준 상위 5개까지 제시하였음.

<표 32> 업종별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단위 : %)

	사례수	자금 조달	판로 개척	인력 확보	사업 정보 획득	기술 개발	행정 절차	동업 자간 마찰	신용 획득
전 체	1,101,459	32.7	30.3	4.5	3.0	2.3	1.8	1.7	1.0
업종별									
제조업	50,318	32.3	37.9	2.3	2.9	3.9	0.7	1.0	0.5
건설업	6,513	41.9	24.4	3.3	3.7	5.3	2.8	3.5	2.0
도소매업	330,070	30.8	38.8	1.1	3.0	0.7	0.8	2.7	1.2
음식박업	433,636	37.8	27.9	6.8	1.4	2.1	1.4	0.7	0.6
기타	280,922	26.8	22.9	5.4	5.4	4.1	3.8	2.3	1.5

※ 전체 응답 기준 기타(4.0%), 애로사항 없음(18.6%)은 분석에서 제외.

○ 여성기업이 경영상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판매선 확보(63.2%) 등 마케팅 관리 분야와 자금조달(54.3%)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2002년 조사 결과에서 여성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동일하게 나타나 향후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기업들이 어려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표 33> 분야별 경영상의 어려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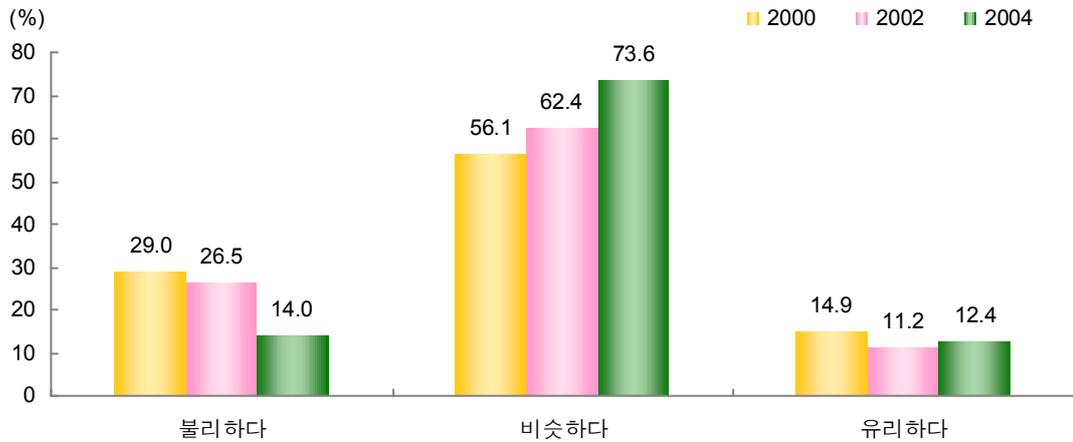
	전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숙박업	기타
가.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관리	63.2	66.5	63.5	68.9	62.9	56.4
나. 인사관리	12.9	17.4	32.8	6.6	12.7	19.0
다. 노사관계	1.7	3.3	6.8	0.5	1.7	2.7
라. 생산관리	8.9	19.1	20.8	11.3	8.4	4.7
마. 자금조달	54.3	56.3	63.8	56.8	57.4	45.9
바. 어음수취	1.8	11.2	8.5	2.5	0.4	1.2
사.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8.8	14.0	21.7	6.2	6.9	13.4
아. 기술개발	15.9	25.9	23.5	6.6	20.1	18.4
자. 경영관련 정보획득	19.5	24.2	26.9	16.8	18.2	23.5
차. 거래기업과의 마찰	9.3	15.2	20.6	11.1	6.3	10.5

2) 여성기업인의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인식

○ 여성이 기업경영활동을 하는 것이 남성이 하는 것에 비해 불리하다는 의견은 14.0%, 비슷하다는 의견은 73.6%, 유리하다는 의견은 12.4%로 나타남.

- 연도별로 보면 2000년 이후 불리하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비슷하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어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기업경영활동 여건이 체감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67> 남성기업 대비 여성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인식



○ 여성이 기업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유리한 점은 여성의 세심하고 꼼꼼한 특성을 살려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는 의견이 92.7%로 압도적이었음.

- 반면에 불리한 점은 가사 및 자녀양육의 병행(29.0%)이나 사회적 편견(28.8%), 남성중심의 집대문화(21.7%)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점 및 유리한 점

구분	내용	2000년	2002년	2004년
불리한 점	① 가사, 자녀 양육 병행	34.6	49.2	29.0
	② 사회적 편견	34.7	21.6	28.8
	③ 남성 중심의 집대문화	24.3	14.7	21.7
유리한 점	① 소비자 욕구 파악 용이	78.3	73.8	92.7
	② 일단 신용을 얻으면 끝까지 신용을 얻을 수 있음	7.0	10.8	3.0
	③ 불필요한 간접비 절약	1.1	9.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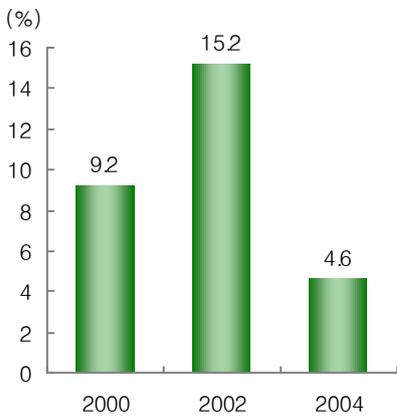
※ 2004년 기준 응답률 상위 3개까지 제시하였음.

3)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대우 및 차별적인 관행 경험

○ 최근 2년간 여성기업인이기 때문에 남성기업인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6%였으며, 이들의 평균 차별 경험 횟수는 4.13번으로 조사되었음.

- 차별을 받았을 때 과반수 이상의 여성기업들은 기분은 나쁘지만 무시(57.9%)하는 대응방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차별대우를 받은 자리에서 항의(24.5%)하거나 별 생각 없이 넘어가는(14.5%) 경우가 대부분임.

<그림 68> 차별적 대우 경험 및 대응방법



내용	2000	2002	2004
① 기분은 나빴지만 무시	73.5	54.9	57.9
② 그 자리에서 항의	24.2	31.3	24.5
③ 별생각 없이 넘어감	-	11.1	14.5
④ 감독기관에 신고	1.3	0.7	-

※ 2004년 기준 응답률 상위 4개까지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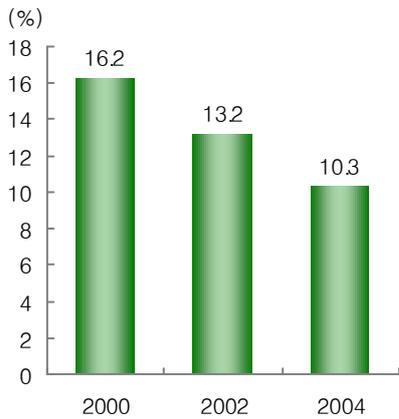
4) 여성기업인의 금융기관 거래시 애로사항

○ 여성기업인이 자금조달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업무를 볼 때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0.3%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금융기관 거래시 구체적인 애로사항은 여자라는 이유로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42.1%), 담보부족(22.0%), 대출한도 부족(17.6%), 신용보증기준의 엄격함(11.2%)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용자 신청시 은행측으로부터 여성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주문을 받은 적이 있는 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자가 11.7%로 나타남.

<그림 69> 금융기관 이용시 남성보다 불리한 점



내 용	2000	2002	2004
① 여자라서 신용도를 낮게 평가	32.7	-	42.1
② 담보 부족	28.3	20.0	22.0
③ 대출한도의 부족	12.4	21.2	17.6
④ 신용보증 기준의 엄격함	16.0	11.5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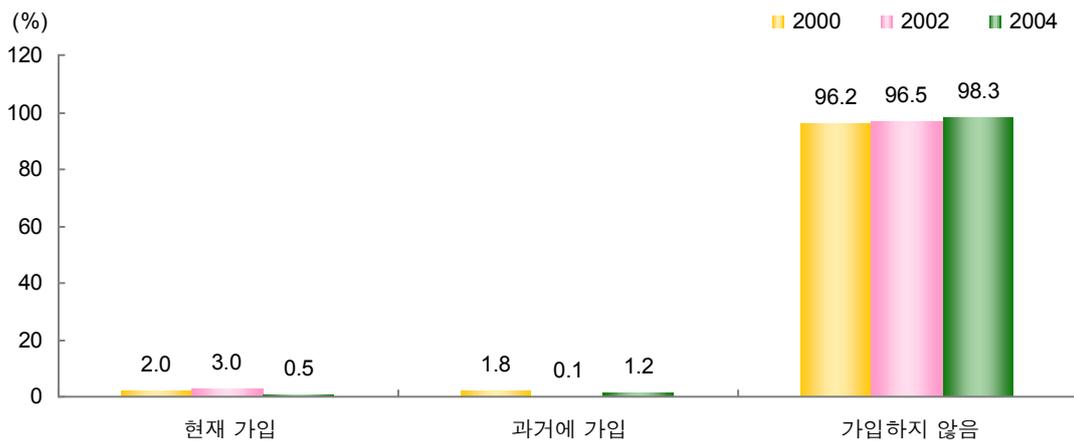
※ 2004년 기준 응답률 상위 4개까지 제시하였음.

5) 여성기업인의 여성경제단체 활동

○ 2004년 현재 여성기업인의 0.5%가 여성경제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경제단체 활동의 이점은 정보교류(25.1%), 인맥형성(21.7%), 경영의 친분도모(7.6%) 순이었으며,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도 45.6%에 달했음.

<그림 70> 여성경제단체 가입률



⑧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1) 기업활동 지원정책 인지도 및 평가

○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여성기업의 인지도와 이용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 인지도 : 자금지원제도(26.4%)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세제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정보화지원제도 등임.
- 이용률 :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도는 자금지원제도와 정보화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등임.
- 효과 : 기술지원제도를 제외한 다른 지원정책들에 대해 이용자들의 유용성 평가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표 35>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정책 인지도 및 평가

구 분		자금지원 제도	세제지원 제도	기술지원 제도	판로지원 제도	정보화지원 제도	수출지원 제도
인지도	2000	27.3	12.5	13.4	6.4	14.1	8.3
	2002	37.7	17.2	23.9	11.4	16.2	13.2
	2004	26.4	15.4	13.4	10.8	12.7	10.5
이용 경험	2000	9.9	6.4	3.1	4.4	4.5	0.2
	2002	3.0	0.8	0.7	0.4	1.0	1.3
	2004	5.6	2.9	1.3	-	1.5	0.1
효과	2000	84.7	92.2	82.4	21.1	52.6	100.0
	2002	89.2	57.2	66.1	15.5	55.1	27.3
	2004	89.0	99.8	8.9	-	73.8	100.0

2)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 인지도 및 평가

○ 정부의 여성기업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여성기업의 인지도와 이용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 인지도: 여성기업 창업촉진 지원제도(23.3%)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음
- 이용률 및 효과: 인지도에 비해 이용률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나 여성기업활동 지원제도를 이용한 응답자들의 유용성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6> 정부의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 인지도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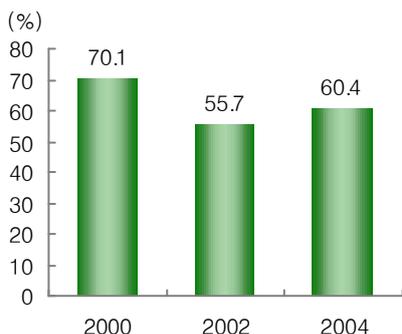
구 분		여성기업 창업촉진 지원	여성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여성기업 경영개선지원	여성기업 유망업종 지원
인지도	2002	18.9	12.1	11.3	11.7
	2004	23.3	14.5	14.4	15.7
이용 경험	2002	0.4	0.2	0.4	0.5
	2004	0.8	0.0001	0.0001	1.4
효과	2002	75.2	57.9	51.7	13.9
	2004	100.0	100.0	100.0	100.0

※ 2000년 조사에서는 정부의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관련 설문이 없었음.

3)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 전체 여성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0.4%로, 여성기업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분야는 금융지원(47.7%), 경영 및 기술지도(17.3%), 세제 지원(16.7%) 등으로 나타남.

<그림 71> 여성기업 지원제도 마련의 필요성 및 필요 정책



필요 정책분야
→

내 용	2000	2002	2004
① 금융지원	29.7	35.0	47.7
② 경영 및 기술지도	28.8	28.9	17.3
③ 세제지원	19.2	15.2	16.7

※ 2000년 응답은 복수응답 기준임에 유의할 것.

※ 2004년 기준 응답률 상위 3개까지만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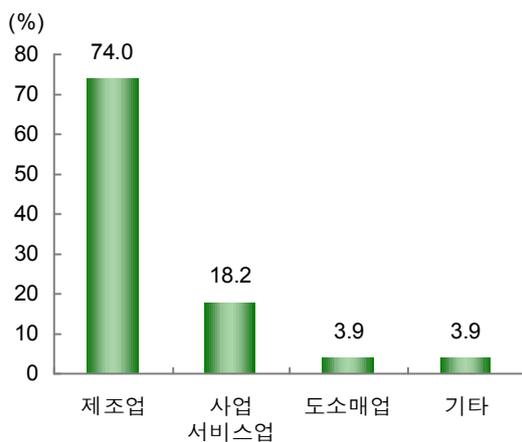
2. 여성벤처기업 실태조사

1) 여성벤처기업의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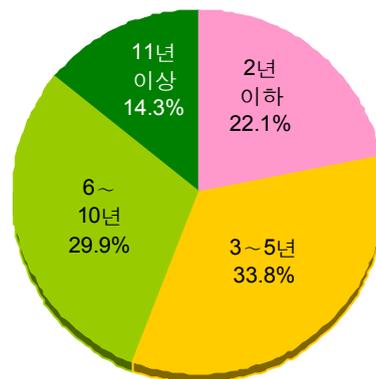
1) 업종 및 업력

- 본 조사에서 파악된 여성벤처기업의 표본수는 전체 모집단 263개 업체 중 77개 업체였으며, 그 중 74.0%(N=57)가 제조업, 18.2%(N=14)가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음.
- 조사된 여성벤처기업의 과반수 이상(55.9%)가 업력 5년 이하의 사업체였으며, 전체 평균 업력은 6.04년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72> 업종(N=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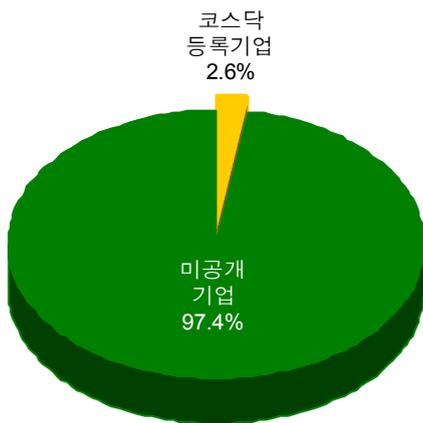
<그림 73> 업력(N=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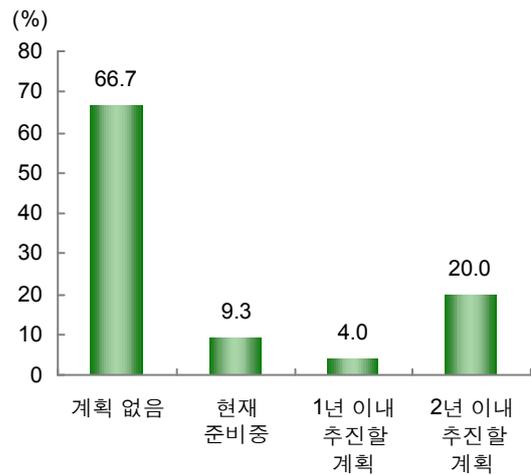
2) 사업체 등록 형태

-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여성벤처기업은 2.6%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 미공개기업인 것으로 조사됨. 미공개기업 중 현재 준비 중이거나 향후 1~2년내 주식공개 계획이 있는 기업은 33.3%였음.

<그림 74> 거래소·코스닥시장 등록여부(N=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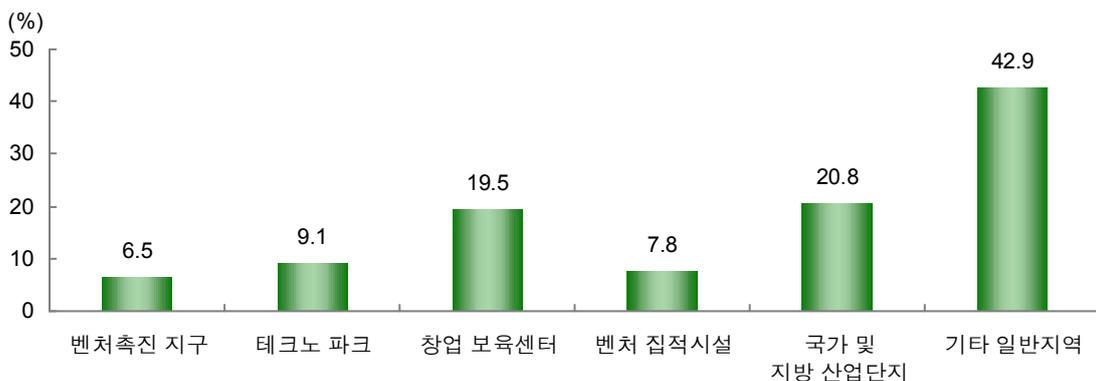
<그림 75> 향후 주식공개 계획(N=75)



3) 사업장 입지 형태

- 여성벤처기업들의 사업장은 기타 일반지역(42.9%)에 가장 많이 위치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20.8%), 창업보육센터(19.5%), 테크노파크(9.1%) 등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벤처촉진지구나 벤처집적시설 입주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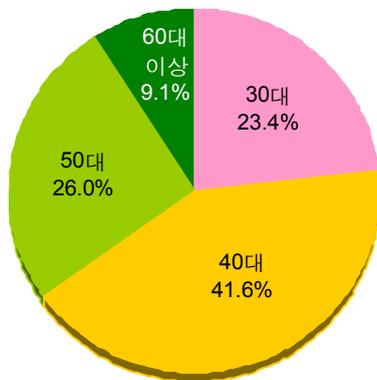
<그림 76> 사업장 입지 형태(N=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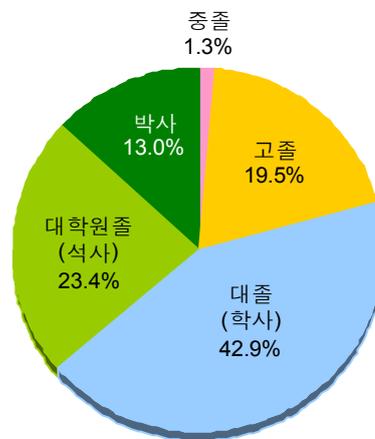
4) 대표자(대표이사) 현황

- 여성벤처기업의 현 대표자 연령대는 40대(41.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0대가 26.0%, 30대가 23.4%로 나타남.
- 현 대표자의 최종학력 분포는 대졸자(학사)가 42.9%로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석사 졸업자가 23.4%, 고졸자가 19.5%를 차지하였음.

<그림 77> 대표자 연령(N=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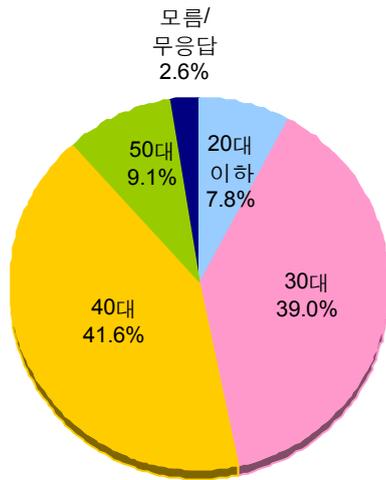
<그림 78> 대표자 최종학력(N=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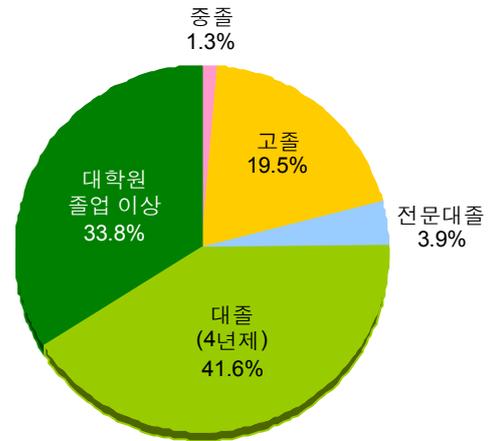
5) 창업 대표자 현황

- 여성벤처기업 창업대표자들의 창업 연령은 30~40대가 대부분으로(30대 39.0%, 40대 41.6%), 평균 창업연령은 39.5세인 것으로 나타남.
 - 창업대표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84.4%가 여성, 15.6%가 남성으로 나타나, 여성벤처기업 창업자의 대다수는 여성인 것을 알 수 있음.
- 창업대표자의 최종학력 분포는 4년제 대졸자가 41.6%, 대학원 졸업 이상이 33.8%, 고졸자가 19.5%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79> 창업대표자 연령(N=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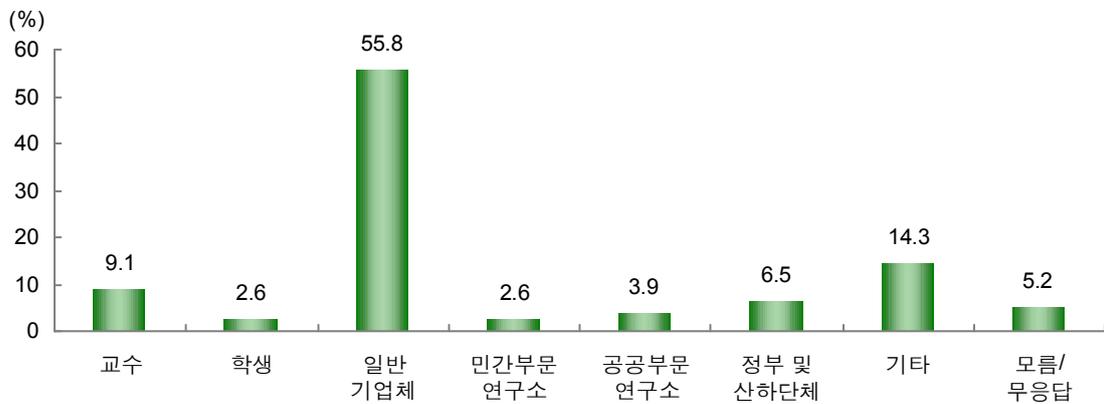


<그림 80> 창업대표자 최종학력(N=77)



- 여성벤처기업의 창업자 2명 중 1명(55.8%)은 창업 이전에 일반기업체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창업대표자들의 53.2%는 현재까지도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체 응답 업체의 81.8%는 창업대표자가 현재 최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81> 창업대표자의 이전 근무지(N=77)



6) 최대주주 현황

- 이번 조사에 응한 여성벤처기업의 88.3%가 현 최대주주가 창업당시 멤버였다고 응답하였으며, 89.6%의 기업에서 현 최대주주가 현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대주주들 중 62.3%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② 여성벤처기업의 경영실태

1) 재무 현황

- 본 조사에서 보고된 여성벤처기업의 총 자산은 평균 29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3년에 비해 약 12.3% 성장한 수준임.
- 여성벤처기업의 2003년 대비 2004년 부채증가율은 약 18.7%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비용 또한 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여성벤처기업의 200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대하여 2003년 적자를 기록 하였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20,971만원, 4,894만원 수준의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표 37> 여성벤처기업의 재무현황(N=77)

(단위 : 만원)

	자산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금융비용	당기순이익
2003	259,351.2	146,582.3	278,310.3	-4,024.0	5,246.9	-3,543.6
2004	291,110.6	173,962.3	335,202.3	20,970.9	5,289.8	4,894.2

2) 매출액 구성현황

- 여성벤처기업의 매출 경로는 2004년을 기준으로 소비자매출(B2C)이 3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사·소속사(20.2%),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15.3%), 정부매출(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8> 매출액 구성현황(N=77)

(단위 : %)

	대기업 및 대기업의 그룹·소속사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중소 벤처기업	소비자매출 (B2C)	정부매출 (B2G)	해외
2003	19.4	17.3	11.0	33.6	14.9	3.9
2004	20.2	15.3	11.9	34.5	14.1	4.1

3) 투자유치 현황

- 여성벤처기업의 2003년 신규 투자유치 경로는 주로 정부투자기관과 금융기관이었으며, 2004년에는 타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전체 투자규모는 2003년에 8,800만원, 2004년에 5,760만원 정도로 '03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9> 신규 투자유치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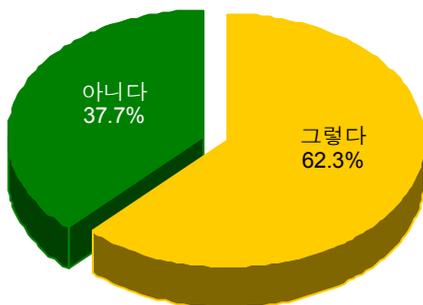
(단위 : 만원)

	벤처캐피탈	타기업	금융기관	개인투자자	정부 투자기관	기타
2003	-	476.2	3,000.0	-	5,381.0	-
2004	-	3,333.3	476.2	-	1,561.9	3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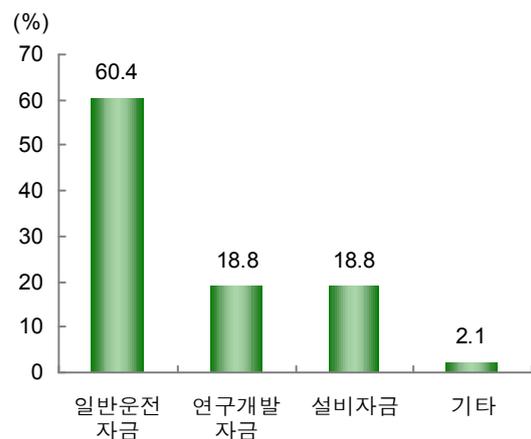
※ 투자유치 현황의 항목별 응답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응답자가 신규 투자유치 실적이 '없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투자금액이 있는 경우는 1.3~6.5% 정도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그 외 60~70% 응답자들이 모름/무응답에 표시하였음. 위의 신규 투자유치 현황에 대한 분석내용은 이 점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임.

-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벤처기업은 62.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조달 분야는 일반운전자금(60.4%), 연구개발 자금(18.8%) 및 설비자금(18.8%) 등이었음.

<그림 82> 자금조달상의 어려움(N=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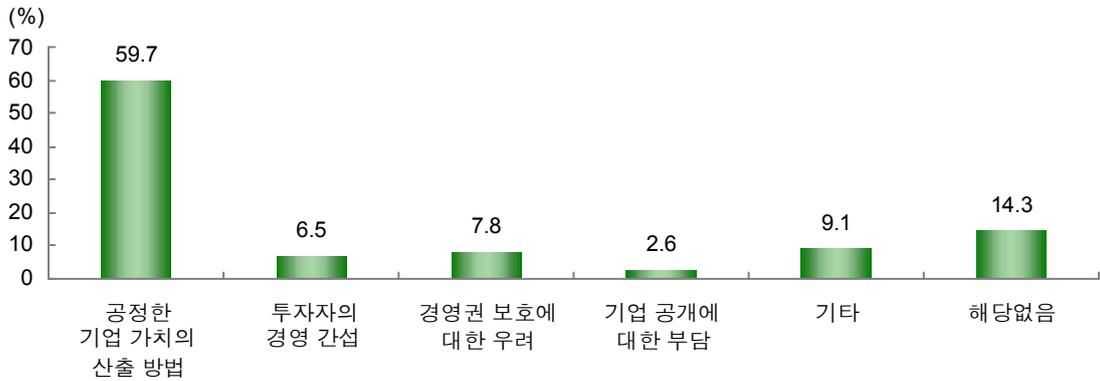


<그림 83> 자금조달이 어려운 분야(N=48)



- 벤처캐피탈이나 금융기관, 투자조합 등에서 투자를 유치하는데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공정한 기업가치의 산출방법(59.7%) 측면을 지적하였으며, 경영권보호에 대한 우려(7.8%), 투자자의 경영간섭(6.5%) 등을 꼽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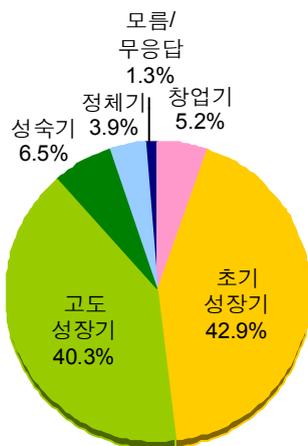
<그림 84> 투자유치시 느끼는 애로사항(N=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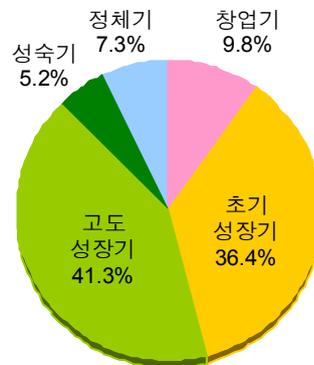
4) 성장 단계별 분포

- 조사된 여성벤처기업들의 성장단계별 분포는 창업기 5.2%, 초기 성장기 42.9%, 고도 성장기 40.3%, 성숙기 6.5%, 정체기 3.9%로 조사되었음.
- 「2004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의 전체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분포를 보면, 창업기 9.8%, 초기성장기 36.4%, 고도성장기 41.3%, 성숙기 5.2%, 정체기 7.3%로 여성벤처기업의 분포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85> 여성벤처기업의 성장단계(N=77)



<비교 4> 전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N=4,587)



※ 출처 :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청, 「2004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04년

③ 여성벤처기업의 경영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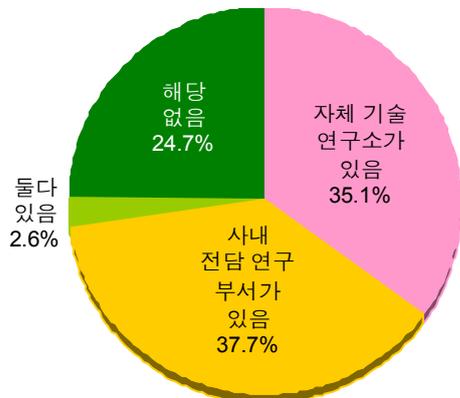
1) 기술개발 현황

○ 조사에 응한 여성벤처기업 중 자체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35.1%, 사내에 전담 연구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37.7%, 연구소와 연구부서를 둘 다 설치하고 있는 기업은 2.6%로 조사되었으며, 둘 다 없는 경우는 24.7%였음.

- 자체 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N=29)의 평균 연구 인력은 4.19명이며, 전담 연구부서를 보유한 기업(N=31)의 평균 인력 수는 3.28명으로 조사되었음.

○ 2003년도 여성벤처기업의 평균 R&D 투자금액은 약 2억6천만원, 2004년도 평균 투자금액은 약 3억7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86> 연구소·연구부서 보유현황(N=77)



<표 40> 연구개발(R&D) 투자현황(N=77)

구분	없음	1억 미만	1억~5억 미만	5억 이상	평균 (만원)
2003	5.2	36.4	22.1	9.1	26,163
2004	5.2	37.7	26.0	11.7	37,428

※ 해당없음(2003년 5.2%), 모름/무응답(2003년 22.1%, 2004년 19.5%)은 분석에서 제외함.

○ 여성벤처기업의 기술력 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는 전체 벤처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본 조사에서 여성벤처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보면, 기업의 기술력 수준이 세계 유일이거나 최고수준과 같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54.6%로 전체 벤처기업의 자체 평가 수준(52.2%)과 비슷하였으며, 약간 미흡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29.9%로 전체 벤처기업 평가수준(40.8%)보다 낮게 조사되었음.

<비교 5> 여성벤처기업과 전체벤처기업의 기술력 수준

(단위 : 개, %)

	세계유일	세계최고 수준	약간미흡	미흡	경쟁열세
여성벤처기업 (N=77)	13 (16.9%)	29 (37.7%)	23 (29.9%)	6 (7.8%)	1 (1.3%)
전체벤처기업 (N=4,184)	301 (7.2%)	1,881 (45.0%)	1,708 (40.8%)	267 (6.4%)	27 (0.6%)

※ 출처 :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청, 「2004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04년

2)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 여성벤처기업이 2004년말 현재 보유중인 지적재산권의 평균 건수는 특허권 2.16건, 실용신안권 1.65건, 상표권 1.72건 등이었으며, 출원진행중인 건수는 특허권이 1.21건, 해외 지적재산권이 0.44건 등으로 나타남.

<표 41> 지적재산권 보유현황(N=77)

(단위 : 건)

	국내 지적 재산권				해외 지적 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2004년 현재 보유중	2.16 (41.6%)	1.65 (55.8%)	1.04 (79.2%)	1.72 (66.2%)	0.60 (88.3%)
2004년 현재 출원 진행중	1.21 (48.1%)	0.36 (75.3%)	0.26 (93.5%)	0.32 (80.5%)	0.44 (88.3%)

※ ()은 지적재산권 '없음' 비율임.

3) 외부 기관과의 사업 및 기술상의 협력활동 현황

- 여성벤처기업과 사업 및 기술상의 협력활동을 가장 활발히 진행한 외부기관은 대학교(40.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앙 정부기관(18.2%)과 정부 연구기관(18.2%)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외부기관과의 협력시 가장 만족한 경우는 중앙 정부기관 및 대기업, 정부 연구기관과 진행했을 때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2> 사업·기술상의 협력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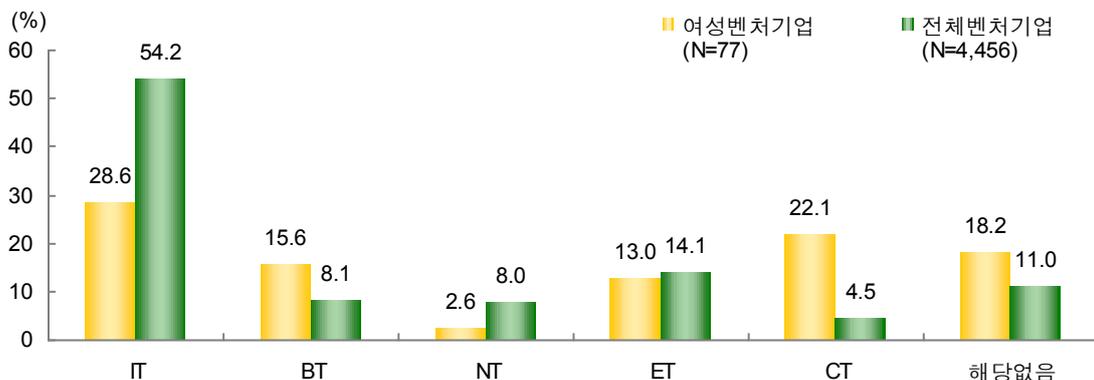
(단위 : %)

	중앙 정부기관	지방 자치단체	대학교	정부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기업	다른 중소 벤처기업
경험률	18.2	7.8	40.3	18.2	6.5	5.2	16.9
만족률	100.0	83.3	80.6	92.9	60.0	100.0	69.2

4) 여성벤처기업의 핵심기술

- 여성벤처기업에서 주력하고 있는 핵심 기술은 IT(28.6%)와 CT(22.1%)로 나타나, 전체 벤처기업의 핵심 기술이 IT(54.2%)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다소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5대 기술과 관련성이 적다고 응답한 여성벤처기업은 18.2%인 것으로 나타남.

<비교 6> 전체벤처기업과 여성벤처기업의 핵심기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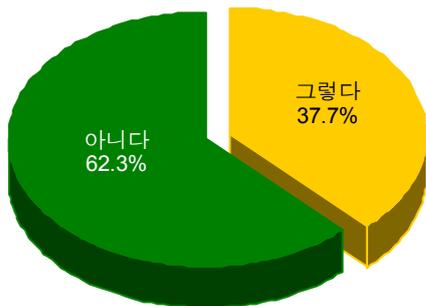


※ 출처 :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청, 「2004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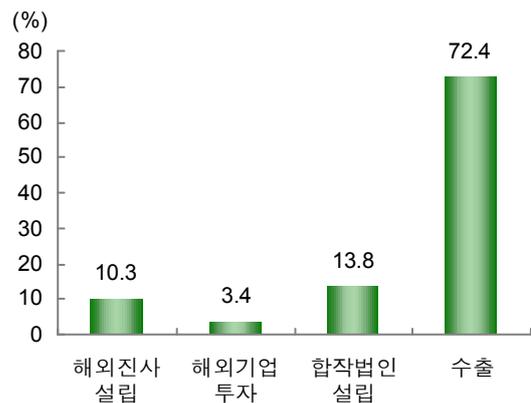
5) 해외활동 현황

- 조사에 응한 여성벤처기업 가운데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사업체는 37.7%였으며, 해외 진출 형태는 수출이 72.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여성벤처기업의 주된 해외진출 지역은 일본(34.5%), 중국 및 미국의 기타지역(각 31.0%), 동남아(20.7%) 순으로 나타남(N=29).
- 여성벤처기업의 해외진출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자금부족(31.2%)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우수한 파트너 발굴애로(22.1%), 정보부족(14.3%), 전문인력 부족(11.7%) 등으로 파악됨.

<그림 87> 해외 진출현황(N=77)



<그림 88> 해외 진출 형태(N=29)



※ 모름/무응답(3.4%)은 분석에서 제외함.

- 여성벤처기업의 2004년 수출액은 78,600만원 정도로 2003년 대비 2배 정도 성장하였으며, 해외투자 실적 또한 상승하였음.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2003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 해외 활동 현황 종합

(단위 : 만원)

	수출액	해외투자 실적	외국인 투자유치
2003	36,629.1	6,250.0	37,500.0
2004	78,617.1	8,423.7	31,5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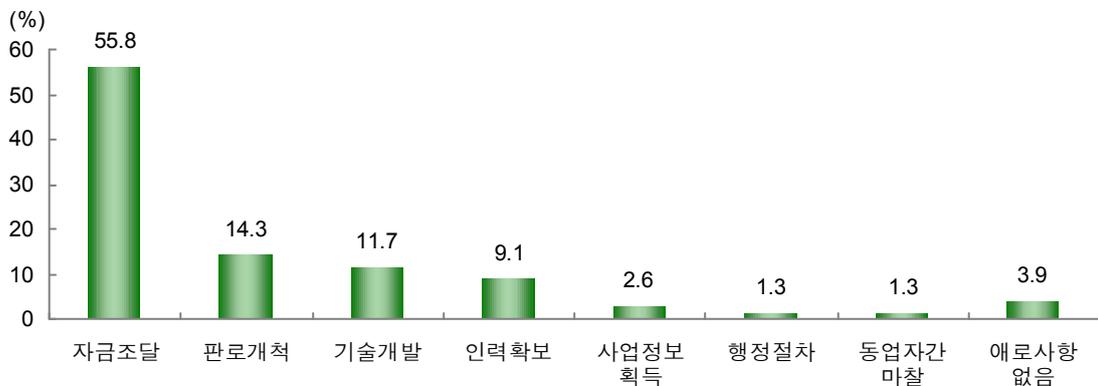
※ 해외활동 관련 현황의 항목별 응답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60% 이상의 응답자가 해외진출을 한 적이 없거나 해당 년도에 해외 실적이 '없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해외실적이 있는 경우는 1.3~20.8% 정도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그 외 10~15% 정도의 응답자들이 모름/무응답에 표시하였음. 위의 해외활동 현황에 대한 분석내용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임.

4 여성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1) 경영상의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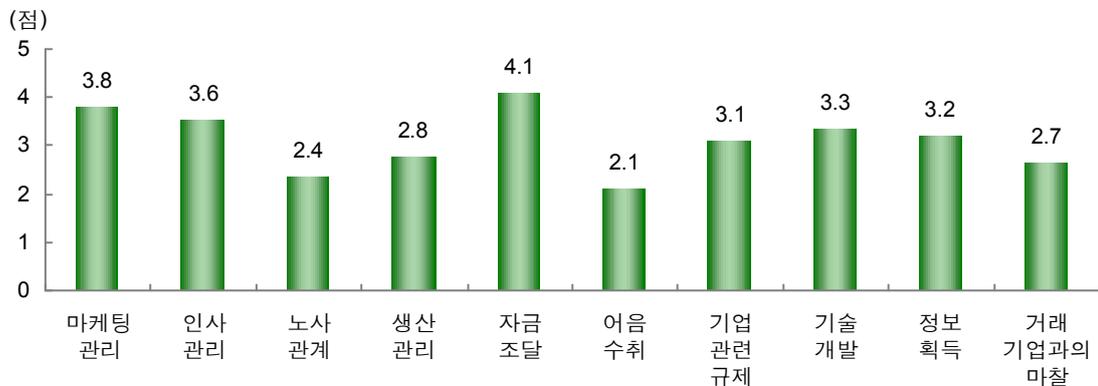
- 여성벤처기업이 기업활동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여타 여성기업들이 느끼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금조달(55.8%) 측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판로개척(14.3%), 기술개발(11.7%) 등을 꼽는 의견도 있었음.

<그림 89>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N=77)



- 분야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보면 역시 자금조달 측면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마케팅 관리, 인사관리, 기술개발, 정보획득 등도 여성벤처기업에서 어려워하는 분야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림 90> 분야별 경영상의 어려움(N=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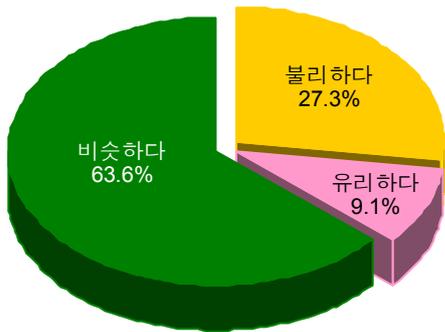
※ 위 그래프는 각 분야별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 별로 느끼지 않는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조금 느낀다 4점, 많이 느낀다 5점 등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 환산한 값을 제시한 것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임.

2) 여성벤처기업인의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인식

○ 남성기업에 비해 경영여건이 불리하다는 응답이 27.3%, 비슷하다 63.6%, 유리하다는 9.1%로 나타나, 다수 응답자들이 남성기업과 여성기업간에 경영여건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편, 유리하다는 의견보다는 불리하다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불리한 점은 남성위주 업계에서 네트워크가 부재(42.9%)한 것을 가장 크게 꼽았으며, 유리한 점으로는 여성 특유의 세심함을 이용해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71.4%)하다는 점을 들.

<그림 91> 남성기업대비 경영여건(N=77) <표 44>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점 및 유리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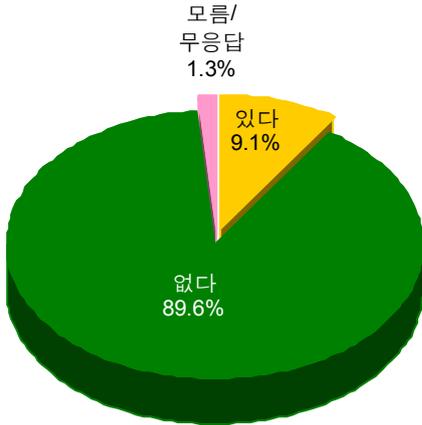


구분	내용	%
불리한 점 (N=21)	① 남성위주업계에서 네트워크 부재	42.9
	② 사회적 편견	28.6
	③ 남성 중심의 접대문화	14.3
유리한 점 (N=7)	③ 여성기업인에 대한 무시	14.3
	① 소비자 욕구파악 용이	71.4
	② 희소성으로 인한 PR효과	28.6

3)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대우 및 차별적인 관행 경험

- 여성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1%였으며,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여성벤처기업인은 기분은 나빴지만 무시하는 태도로 대응(75.0%)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92> 차별적 대우 경험 (N=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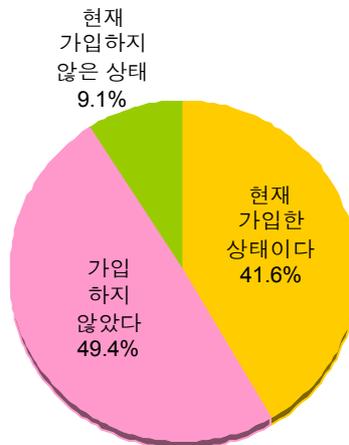
<표 45> 차별대우에 대한 대응방법 (N=8)

내용	%
① 기분은 나빴지만 무시	75.0
② 그 자리에서 항의	12.5
② 정부관련 기관에 시정 건의	12.5

4) 여성기업인의 여성경제단체 활동

- 현재 여성경제단체에 가입한 여성벤처기업은 41.6%였으며, 과거에는 가입했으나 현재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는 업체도 9.1% 있었음.

<그림 93> 여성경제단체 가입여부(N=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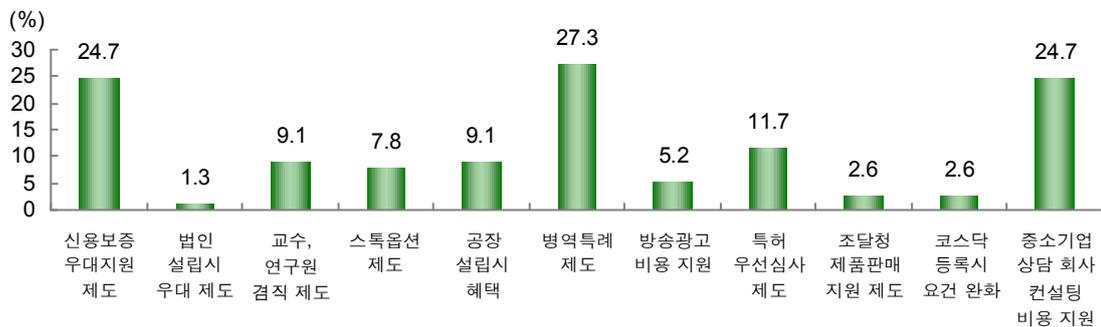


5 벤처기업 지원정책

1) 벤처기업 지원제도 이용률

- 각종 벤처기업 지원제도 중 실제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병역특례제도(27.3%), 신용보증우대지원 및 중소기업 상담회사 컨설팅비용 지원(각 24.7%), 특허우선심사제도(11.7%) 등이었으며, 그 외 제도들의 이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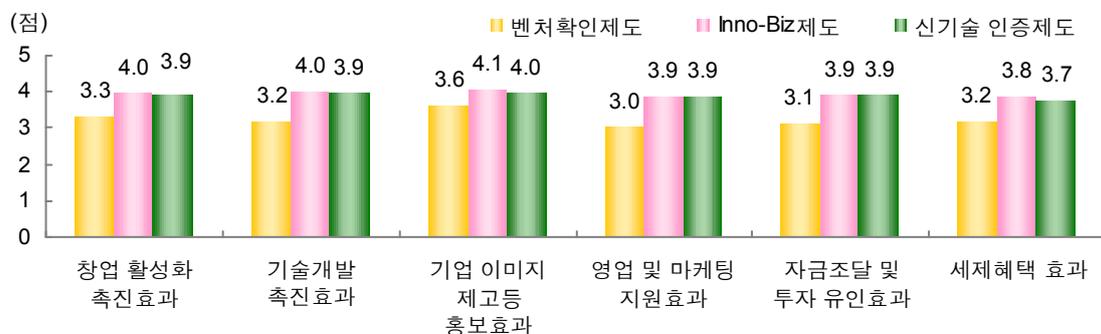
<그림 94> 벤처기업 지원제도 이용률(N=77)



2)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효과

- 벤처기업 지원제도 가운데 벤처확인제도, Inno-Biz 제도, 신기술인증제도에 대한 분야별 효과를 측정된 결과, Inno-Biz 제도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확인제도의 경우에는 그 효과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림 95>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효과(N=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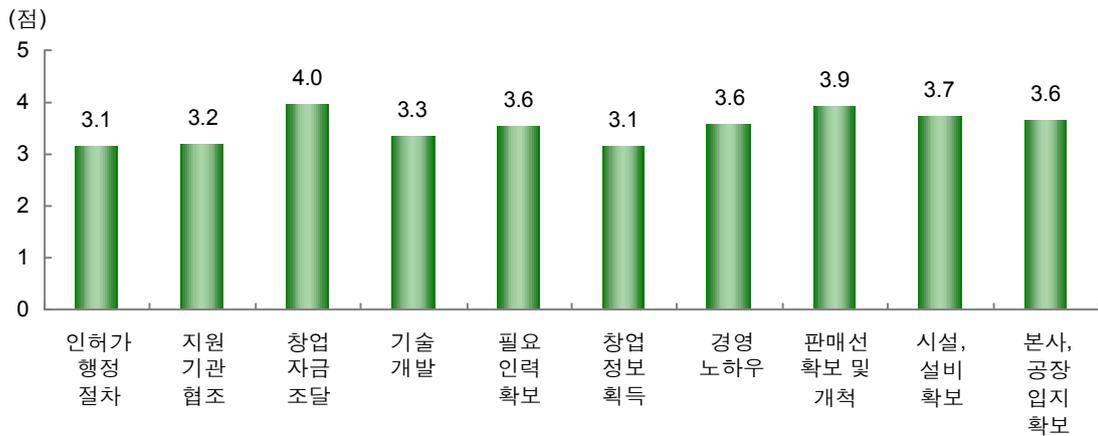


※ 위 그래프는 각 분야별 효과 정도에 대해 전혀 효과가 없다 1점, 효과가 적은 편이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효과가 있는 편이다 4점, 매우 큰 효과가 있다 5점 등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화한 값을 제시한 것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제도의 효과가 큰 것임.

3) 벤처기업 창업시 어려움

- 벤처기업을 창업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경영상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자금조달 측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후 안정을 찾기까지 판매선 확보 및 개척, 시설 및 설비확보, 경영노하우, 본사 및 공장 입지 확보, 인력 확보 등 운영 전반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96> 벤처기업 창업시 어려움(N=77)



※ 위 그래프는 각 분야별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전혀 어려움 없음 1점, 어려움 없는 편임 2점, 보통 3점, 어려움 있는 편임 4점, 많은 어려움 있음 5점 등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 환산한 값을 제시한 것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임.

4) 벤처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 벤처기업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책자금 지원확대 (44.2%)로 여성벤처기업들이 자금조달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이 외 신용보증 지원 확대(16.9%),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15.6%)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5) 벤처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항

- 여성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 판매, 유통 및 수출 관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6.9%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벤처캐피탈, 담보대출 등 금융지원(15.6%), 벤처기업 구조조정 지원(13.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항목별 응답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벤처기업이 요구하는 사항들의 배경과 그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지방소재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방안

-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판매, 유통 및 수출을 지원(31.2%)하고, 첨단 기술개발 자금(14.3%) 및 벤처캐피탈, 담보대출 등의 금융지원(13.0%)이 필요하며, 경영지도, 마케팅 등에 관련한 종합 지원(11.7%)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한 편이었음.

IV. 통계편

1. 여성기업 실태조사 통계표
2. 여성벤처기업 실태조사 통계표

여성기업 실태조사 통계표

여성벤처기업 실태조사 통계표

부록 : 설문지

1. 여성기업 실태조사(제조/건설)
2. 여성기업 실태조사(비제조)
3. 여성벤처기업 실태조사